



2018 EBS 수능특강 현대소설 변형문제집

나무아카데미

문제에 대한 질문은 홈페이지
www.namuacademy.com을 이용해 주세요.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포할 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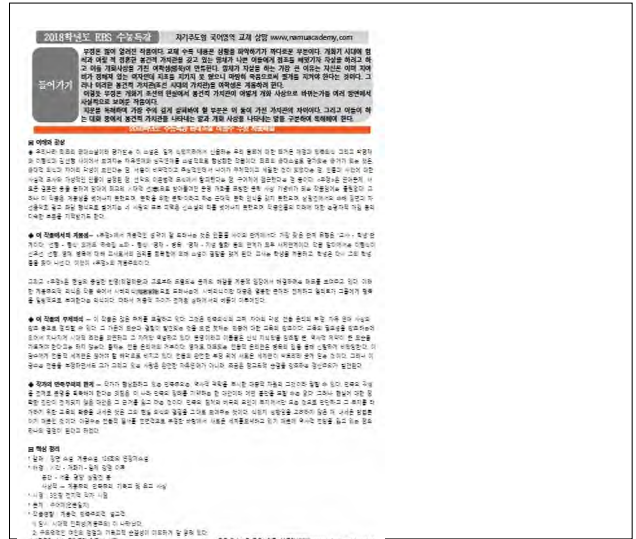
적용학습
(현대소설)

이 참고서의 구성과 특징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문제집

총론

- 이 참고서는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해설과 문제를 방대하게 구성하였다. (현대소설 편, 440여 페이지)
- 들어가기와 핵심정리 등 해설을 입체화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 언제든지 모르는 사항을 홈페이지 www.namuacademy.com를 통하여 질문할 수 있다.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교재 시리즈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해설서 (운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해설서 (산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운문문학-현대시)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운문문학-고전시가)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산문문학)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문제집의 특징 I | 해설을 자세하게 첨부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문제집의 특징 II | 방대한 문제 수를 통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 참고서의 차례

2018 ebs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현대소설)

Ⅲ 적용학습 (현대소설)

1) 무정	5
2) 달밤	29
3)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72
4) 사랑손님과 어머니	127
5) 압록강은 흐른다	170
6) 카인의 후예	189
7) 제3인간형	206
8) 서울 1964년 겨울	224
9) 큰 산	294
10) 우상의 눈물	316
11) 관촌수필	348
12) 눈이 오면	373
13) 소지	392
14) 겨울의 환	401
15) 19세	412
16) 캐비닛	424

적용학습

들어가기

무정은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교재 수록 내용은 상황을 파악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다. 개화기 시대에 형식과 어릴 적 정혼한 봉건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영채가 나쁜 이들에게 정조를 빼앗기자 자살을 하려고 하고 이를 개화사상을 가진 여학생(병옥)이 만류한다. 영채가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은 이미 지아비가 정해져 있는 여자인데 지조를 지키지 못 했으니 마땅히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봉건적 가치관(조선 시대의 가치관)을 여학생은 계몽하려 한다.

이렇듯 무정은 개화기 조선의 현실에서 봉건적 가치관이 어떻게 개화 사상으로 바뀌는가를 여러 방면에서 사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지문을 독해하며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둘이 가진 가치관의 차이이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대화 중에서 봉건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말과 개화 사상을 나타내는 말을 구분하여 독해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현대소설 이광수 무정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이라 평가받는 이 소설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민족의식 그리고 박영채와 이형식과 김선형 사이에서 보여지는 자유연애와 삼각연애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최초의 근대소설로 평가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근대적 의식과 자아의 각성이 보인다는 점, 서술이 비약적이고 추상적인데서 나아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이 되었다는 점,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개성적인 인물이 설정된 점, 선악의 이분법적 도식에서 탈피했다는 점, 구어체에 접근했다는 점 등이다. <무정>은 연애문제, 새로운 결혼관 등을 통하여 당대에 최고의 시대적 선(善)으로 받아들여진 문명 개화를 표방한 문학 사상 기념비가 되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작품은 계몽성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문학을 위한 문학'이라고 하는 근대적 문학 인식을 갖지 못했으며, 삼랑진에서의 수해 장면과 자선음악회 귀고 죄담 형식으로 벌어지는 네 사람의 포부 피력은 신소설의 티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작중인물의 미래에 대한 논평자적 개입 등의 미숙한 부분을 지적받기도 한다.

◆ 이 작품에서의 계몽성 → <무정>에서 계몽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은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서다. 가장 잦은 관계 유형은 "교사 - 학생"관계이다. '선형 - 형식' 외에도 '하숙집 노파 - 형식', '영채 - 병옥', '영채 - 기생 월화' 등의 관계가 모두 사제관계이다. 작품 말미에서는 이형식이 신우선, 선형, 영채, 병옥에 대해 교사로서의 권위를 회복함에 의해 소설이 결말을 맺게 된다. 교사는 학생을 계몽하고, 학생은 다시 그의 학생들을 찾아 나선다. 이것이 <무정>의 계몽주의이다.

그리고 <무정>은 현실의 충실한 반영(리얼리즘)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의 해결을 계몽적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계몽주의적 의식은 작품 속에서 시혜의식(施惠意識)으로 드러나는데, 시혜의식이란 대중은 열등한 존재라 전제하고 엘리트가 그들에게 행복을 일방적으로 부여한다는 의식이다. 따라서 계층적 차이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베품이 이루어진다.

◆ 이 작품의 주제의식 → 이 작품은 많은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의식의 고취, 자아의 각성, 전통 윤리의 부정, 자유 연애 사상의 강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모순과 결함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첫째는, 민중에 대한 교육의 강조이다.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시대적 조건을 외면하고 그 자체만 역설하고 있다. 문명이라고 이름붙은 신식 지식만을 강조할 뿐, 역사적 제약이 준 모순을 가르쳐야 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둘째는, 전통 윤리에의 거부이다. 영채로 대표되는 전통적 윤리관은 병옥의 입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당한다. 이광수에게 전통적 세계관은 끊어야 할 해악으로 비치고 있다. 전통의 완전한 부정 위에 새로운 세계관이 싹트리라 굳게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는 전통을 부정하면서도 그가 그리고 있는 사랑은 완전한 자유연애가 아니라, 조금은 청교도적 순결을 강조하는 정신주의가 발견된다.

◆ 작가의 민족주의의 한계 → 작가가 형상화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대중적 차원의 그것이라 말할 수 있다. 민족의 각성을 전제로 문명을 획득해야 한다는 외침은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기약하는 한 대안이라 어떤 불만을 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지 않은 대안은 그 근거를 잃고 마는 것이다. 민족의 침체와 비극의 요인이 무지에서만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교육의 확충을 내세운 것은 그의 현실 의식의 결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식민지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세운 방법론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광수는 전통적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바탕에서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전망을 잃고 있는 점도 하나의 결점이 된다고 하겠다.

■ 핵심 정리

* 갈래 : 장편 소설, 계몽소설, 126회의 연장체소설

* 배경 : 시간 - 개화기 ~ 일제 강점 이후

공간 - 서울, 평양, 삼랑진 등

사상적 → 계몽주의, 민족주의, 기독교 및 유교 사상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문체 : 구어체(언문일치)

* 작품경향 : 계몽적, 민족주의적, 설교적

1) 당시 시대적 진취성(계몽주의) 이 나타난다.

2) 구도덕적인 여인의 정절과 기독교적 순결성이 미묘하게 잘 얹혀 있다.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3) 구조가 교사와 학생 관계로 나타난다

(형식-선형, 형식-하숙집 노파, 월화-영채, 병옥- 영채 사이가 사제 관계와 같다)

* 주제 : 자유 연애와 민족의식의 고취

* 의의 :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 인물

이형식 : 주인공. 개화기의 전형적인 지식인. 개인과 민족,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 고뇌하는 인물. 신교육을 받았고 지극히 도덕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 이익을 받아들이나 인정적 의리 때문에 방황하는 여린 마음을 지녔다. 진취적기상을 가졌고 선형과 결혼하여 미국 유학을 함.

김선형 : 김장로의 딸, 기독교 집안의 개화한 신여성. 이형식의 약혼녀로 부자이고 양반이며 신사상을 본받으려는 집안 상황 속에서 신교육을 받았으나 구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신교육을 더 받기 위해 미국에 유학감.

박영채 : 박 진사의 딸. 유교 교육을 받은 순종적인 여인. 집안의 몰락으로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되었고 구습적인 도덕성 속에 살다가 병옥을 만나 신사상의 영향을 받게되고 그녀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함.

김병옥 : 자유 분방한 생활 태도를 가진 전형적인 신여성. 신교육을 받은 적극적 여성으로 불쌍한 영채를 도와 유학까지 시켜 줌

신우선 : 신문 기자.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 호탕한 성격을 가진 신교육을 받은 기자이며 구습으로 인한 결혼으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기생집을 자주 다녔으나 마음을 잡고 문명(文明)을 날림.

김장로 : 양반이고 부자이며 기독교 장로이고 과거 관료로서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 발달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려고 노력함.

노파 : 남의 집 하인으로 살았던 무지한 노인으로 이형식을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삶의 경험으로 인해 현실적인 부와 명예, 권력이 소중하다고 생각함.

* 구성

발단 : 이형식과 박영채의 재회, 사랑을 고백하는 영채

전개 : 기생이 된 영채와 선형 사이에서 방황하는 형식의 심리적 갈등

위기 : 자살을 기도하는 영채, 그녀를 찾으려는 형식

절정 : 형식과 선형의 약혼, 영채, 병옥, 우선등과 상봉, 수재민 구호, 유학을 떠남

결말 : 등장 인물들의 근황

* 출전 : 1917년 1월~6월까지 126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

▣ 줄거리

경성학교 영어 교사 이형식은 안동 김 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 장로의 딸 선형이가 내년엔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하기 위해 이형식을 매일 한 시간씩 가정교사로 초빙하여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본래 형식은 동경 유학을 마친 당대 일류 지식인이자 일찍이 고아가 되어 역경을 겪은 데다 내성적 성격이라 여성 교제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뛰어난 미모인 선형에게 반한다. 그리고 그 날 밤 하숙집에 돌아와서 형식은 뜻밖의 손님인 박영채를 만난다. 영채는 이형식이 고아일 때 형식을 데려다 기르고 자식처럼 대하여 준 은사 박 진사의 딸인데 장차 형식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정혼한 사이였다.

그러나 박 진사의 개화 운동이 세상 사람들의 개화 문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하고 집안이 망하자 형식은 영채와 이별하게 되었는데, 7년만에 해후하여 그 뒤 영채가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도우려 기생이 되고 형식을 사모하며 수절해 왔다는 전말을 듣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형식은 눈물을 흘리는 한편, 그녀가 기생이라는 혐오감과 미인이라는 유혹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에 형식은 선형에 대한 연정과 은사의 딸이자 정혼녀인 영채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 또, 기생인 영채를 구해낼 돈 천 원이 없음을 한탄하는 사이에 영채는 지금까지 형식을 위해 지켜 오던 정조를 배학감(명식), 경성학교 교주의 아들인 김현수 일당에게 유린당하고 만다. 그리고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하려 평양행 기차에 오른다.

그녀의 유서를 쥐고 눈물을 뿌리며 영채를 만나러 뒤따라 평양에 간 이형식은 소득없이 돌아와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생을 따라갔다는 오해만 사고 급기야 학교를 그만두기에 이른다. 이는 김현수가 거짓 소문을 낸 까닭이었다. 이런 형식에게 뜻밖에 김장로댁 선형과의 결혼 신청이 들어오고 형식은 이를 받아들여 약혼식을 치른 후에 함께 미국 유학을 할 준비를 하게 된다.

한편, 자살길에 오른 영채는 차 안에서 소위 신여성인 병옥을 만나 그녀의 황주집에서 한 달간 머무는 동안 봉건적 사고 방식에서 근대적 합리주의로 정신적인 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병옥의 호의로 함께 동경 유학길에 오르던 중, 기차 안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는 형식과 선형을 만나게 된다. 이리하여 형식은 새삼 애정과 의리 간에 갈등에 빠지게 되고 선형과 영채 사이에는 삼각 관계의 불협 화음이 생긴다. 기차는 삼량진 수재 현장에 이르러 연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네 젊은이는 고통을 당하는 수재민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들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그 대신 토론을 통해 허물어진 민족의 장래를 담당할 역군으로서 사명을 다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 인물들의 근황이 소개되고 작가의 계몽 의식이 서술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학생은 영채의 신세타령을 듣고 / “그러면 지금도 그(형식)를 사랑하시오?”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란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칠팔 연대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깐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까—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예. 그리고 어렸을 때에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어요. 그땐일을 생각하면 어째 그리운 생각이 나요.”

“그것이냐 그렇겠지요. 누구든지 아릿적 생각은 안 잊히는 것이니까. 그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시지요?” / 영채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예. 여러 동무들의 생각도 나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나요.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깐 생각던 바와 다름데다.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도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잘 알아들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그러.”

영채는 저도 제 생각을 모르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깐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려 오던 사람과는 딴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던 말이고 하고 영채도 눈을 감는다. 여학생이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일조에 정절을 더럽히고”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하고 절망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인다.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찌하고요?” / ⊕ “살지요! 왜 죽어요!”

영채는 깜짝 놀라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은 힘 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 왔어요. 부친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칠팔 년 헛된 절을 지킨 것이외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에 허락도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야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이외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닐까요. 허니깐 지금 영채 씨가 그이를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하여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성(古聖)*의 교훈도** 있는데” 한다.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내셨지요. 허깨비를 보고 지내셨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지아버가 어디 있겠어요. 허니깐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 **참생활이 열리지요.**”

영채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열녀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과연 지금토록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었고 다만 허깨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형식을 찾다가 이형식을 보매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아아, 이제는 영구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영채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또 아주 절망하였던 중에 새로운 광명이 발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영채는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참생활이 열리지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속아 왔으니깐 이제부터 참생활이 열리지요. 영채 씨 앞에는 행복이 기다립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버리고 왜 귀한 목숨을 끊어요.” 하고 이만하면 영채의 죽으려는 결심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울기를 그치고 웃으시오, 자, 웃으시오.” 하고 자기가 먼저 웃는다. 영채도 따라서 빙그레 웃더니

“행복이 기다릴까요? ⊕ 그러나 의리는 어찌합니까. 의리는 어기고 행복을 찾을까요. 그것이 옳은가요?” 하며 마음이 정지 못하여 한다.

[A] “의리? 영채 씨께서 죽으시는 것이 의리 같습니까.”
 “의리가 아닐까요?” / “어찌해서 의릴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허하였다가 그 사람에게 몸을 바치기 전에 몸을 더럽혔으니 죽어 버리는 것이 의리가 아닐까요?” / 옳다, 되었다 하는 듯이 여학생이
 “그러면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씨에게 마음을 허하신 것이 영채 씨오니까. 다시 말하면 영채 씨가 당신의 생각으로 마음을 허한 것입니까, 또는 부친의 말씀 한마디가 허한 것입니까.”
 “그게야, 물론 아버지께서 허하신 게지요.”
 “그러면 부친의 말씀 한마디로 영채 씨의 일생을 작정한

것이오그러.”

“그렇지요. 그것이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아닙니까.”

“흥. 그 삼종지도라는 것이 여러 천 년간, 여러 천만 여자를 죽이고 또 여러 천만 남자를 불행하게 하였어요. 그 원수의 글자 몇 자가, 흥.”

영채는 놀라며 / “그러면 삼종지도가 그르단 말씀이냐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겠지요. 지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말보다도 자식의 일생이, 지아비의 말보다도 아내의 일생이 더 중하지 아니할까요.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하여 제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를 죽임이외다. 그야말로 인도(人道)의 죄라 합니다. 더구나 부사종자(夫死從子)라는 말은 참남자의 포학(暴虐)을 포함이외다.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외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고 단속함이 마땅하외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리(非理)가 어디 있어요.” 하고 여학생은 얼굴이 붉게 되며 기운을 내어 구도덕(舊道德)을 공격하더니 “영채 씨도 이러한 낡은 사상에 종이 되어서 지금껏 속절없는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그 속박을 끊읍시오. 그 꿈을 깬시오. 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됩시오. 자유를 얻읍시오!” 하는 여학생의 얼굴에는 아주 엄숙한 빛이 보인다.

* 고성: 옛날의 성인.

1. 이 작품을 최초의 근대 소설로 보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문적 묘사체 ② 취재의 현실성
- ③ 인물의 유형성 ④ 분석적 구성 방식
- ⑤ 한글 전용의 구어체

2. 이 글을 읽고 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야.
- ② 민족 개조론을 주창했던 작가의 면모가 작품 곳곳에서 느껴지는군.
- ③ 중심인물의 사상을 조리 있게 제시하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군.
- ④ 여성을 피동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파악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는 다소 문제가 있어.
- ⑤ 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3. 이 글을 희곡으로 각색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주먹을 불끈 쥐며 ②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 ③ 병욱의 눈치를 보면서 ④ 큰 소리로 밝게 웃으며
- ⑤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4. 이 작품에 나타나나 근대 소설적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허구적 인물의 형상화
- ② 서사적 산문 문체의 확립
- ③ 자아의 각성을 다룬 주제 의식
- ④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한 주제 구현
- ⑤ 국내를 배경으로 한 구체 상황 제시

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문어체를 극복하고 있다.
- ② 계몽적 주제를 담고 있다.
- ③ 서구적 가치관을 중시한다.
- ④ 유형화된 인물이 등장한다.
- ⑤ 봉건적 가치 지향을 보여 준다.

6. 이 글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경험적 ② 계몽적 ③ 합리적
- ④ 세계적 ⑤ 실증적

7. 이 글에서 작가가 주제를 배출하는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두 개)

- ① 작중 인물의 내면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적절한 비유를 써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 ④ 작중 인물의 대사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관련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가 깨닫게 하고 있다.

8. 이 글에서 등장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여 통합하고 있다.
- ②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원천 봉쇄한 후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④ 문답 형식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고 있다.

9. 이 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간의 의견 대립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 ② 인물들의 관심사가 서로 달라 대화가 걸돌고 있다.
- ③ 주도적 인물이나 다른 인물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있다.
- ④ 일상적인 화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⑤ 두 인물의 의견 대립 때문에 다른 인물을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다.

10. '여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혜자(施惠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은이의 대변자
- ② 근대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주 독립을 외치는 지식인
- ③ 개인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확대하여 갈등하는 학자
- ④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정하며 지은이를 대리하는 계몽주의자
- ⑤ 제국주의적 사고를 비판하며 민족의 자각을 촉구하는 계몽주의자

11. 이 글을 연극으로 공연할 때, '여학생'의 연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신념에 찬 의지적인 어조로 대사를 한다.
- ② 감정 없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독백을 한다.
- ③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무대 위에 가만히 서 있다.
- ④ 감격에 겨워 관객석으로 나가 큰 소리로 만세를 외친다.
- ⑤ 의자에 앉아서 자신감이 넘치는 격정적인 어조도 말한다.

12. <보기>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 글이 지닌 소설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무정>은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적 정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따라서, <무정>은 ()을/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한 () 앞에 모든 개인의 갈등과 고민은 의미를 잃고 만다.

- ① 정서적 순화 ② 쾌락적 기능 ③ 창조적 예술성
- ④ 비판적 목적성 ⑤ 사회적 공리성

13.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사적 산문 문체를 확립하였다.
- ② 계몽성이 지나쳐 문학성이 다소 떨어진다.
- ③ 근대 의식에 바탕을 두고 주제를 형상화하였다.
- ④ 1910년대를 배경으로 한 평면적 구성의 참여 소설이다.
- ⑤ 현실에서 제재를 취하여 허구적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다.

1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식인으로서의 시혜(施惠)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② 작가의 생각이 등장인물의 대화 속에 제시되어 있다.
- ③ 인물 간의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 ④ 인물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화관(開化觀)을 엿볼 수 있다.
- ⑤ 문학적인 감흥보다 교훈적인 계몽의 의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15. 이 작품을 표현론적 관점으로 평가한 것은?

- ① 등장인물은 개화기 지식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 ② 주인공의 입을 통해 작가의 평소 생각을 전하고 있다.
- ③ 이 작품은 계몽기의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 ④ 작품에 반영된 현실과 실제 현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작품에 나타난 사상이 당시 독자들에게 일으킨 파장은 매우 크다.

16. 이 글의 주제 제시 방법은?

- ① 암시와 상징 ② 생략과 여운 ③ 인물의 행동
- ④ 인물의 대화 ⑤ 편집자적 논평

17.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여성 계몽의 방법을 놓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 ② 애정 문제를 여성적 정체성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
- ③ 계몽의 주도권을 놓고 인물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④ 개인적인 갈등은 심화되지만 민족적 갈등은 해소되고 있다.
- ⑤ 농민과 지식인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18. 전개 양상으로 볼 때,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유 연애의 실천 ② 봉건 의식의 타파
- ③ 민족 독립의 쟁취 ④ 교육을 통한 민족 계몽
- ⑤ 산업화를 통한 조국의 근대화

19. ㉡의 중심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조상들은 위대하였다.
- ② 요즘 젊은이들은 개성이 없다.
- ③ 요즘 사람들은 너무 무능력하다.
- ④ 사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 ⑤ 웃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20. ㉢에 나타나는 인물의 심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②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날으다가 / 깎감한 절벽(絶壁), / 헤어
날 수 없는 미로(迷路)에 부딪히곤 / 까무라쳐 돌아온다.
- ③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 육조(六曹)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
든
- ④ 이 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 가로막히고 // 무인공산(無人空山)의 적막만이 / 천만 근 나
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 ⑤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 친구의 서러운 사
랑 이야기를 /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 어느 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 1) ③
유형적(類型的)인 인물의 등장은 고전 소설의 특징이다.
- 2) ③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 3) ①
자신의 주장을 역설하는 장면이다.
- 4) ④
이 작품은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고 있지 않고, 서술자의 서술이나 인물의 대사로 주제가 직접 나타나 있다. 내면 심리 묘사 자체는 근대 소설의 특징이 될 수 있다.
- 5) ⑤
계몽적 가치관을 중시한다.
- 6) ②
- 7) ④
<무정>는 계몽주의적 성격의 작품으로서 주제의 형상화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2번 선지는 비유나 상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8) ④
- 9) ③
형식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깨우쳐 주고 있다.
- 10) ④
지은이의 대변자와 같은 느낌을 준다.
- 11) ①
- 12) ⑤
계몽주의, 인도주의,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므로 사회적 공리성(功利性)이 중시된다.
- 13) ④
역순행적인 입체적 구성을 하고 있다.
- 14) ④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데, 그는 우리 민족에게 지식과 문명을 베풀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이러한 다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15) ②
작가의 창작 의도와 결부시켜 작품을 이해하려는 관점이 표현론적 관점이다. ①, ③, ④는 반영론적 관점, ⑤는 효용론적 관점이다.
- 16) ④
주제가 인물들 간의 대화에서 웅변조, 설교조로 딱딱하게 노출되고 있다.
- 17) ②
- 18) ②
- 19) ④
- 20) ①

무정 -- 이광수

여학생은 영채의 신세타령을 듣고

“그러면 지금도 그(형식)를 사랑하시오?”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란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칠팔 연래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

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까그려.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네, 그리고 어렸을 때에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찌 그리운 생각이 나요.”

“그것이야 그렇겠지요. 누구든지 아이적 생각은 안 잊히는 것이니까. 그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시지요?”

영채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네, 여러 동무들의 생각도 나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나요.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까 생각던 바와 다름데다.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도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잘 알아들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그려.”

영채는 저도 제 생각을 모르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까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려 오던 사람과는 딴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던 말이고 하고 영채도 눈을 감는다. 여학생이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일조에 정절을 더럽히고...”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하고 절망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인다.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찌하고요?”

“살지요! 왜 죽어요!”

영채는 깜짝 놀라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은 힘 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 왔어요. 부친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칠팔 년 헛된 절을 지킨 것이외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에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야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이외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허니깐 지금 영채 씨가 그이를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하여 오던 것을 어떡합니까. 고성의 교훈도 있는데.” 한다.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내셨지요. 허깨비를 보고 지내셨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지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허니깐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참생활이 열리지요.”

영채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열녀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과연 지금토록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었고 다만 허깨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형식을 찾다가 이형식을 보매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아아, 이제는 영구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매 영채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또 아주 절망하였던 중에 새로운 광명이 발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영채는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1 ‘여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채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고 있다.
- ② 권위를 내세워 영채를 설득하고 있다.
- ③ 동정심을 유발하며 영채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 ④ 질문을 통해 점차적으로 영채를 깨우쳐 주고 있다.
- 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영채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

2 인물의 대화를 통해 윗글의 중심 사건을 추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a~e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채의 과거의 삶'
 a 형식을 찾으려는 영채 → b 형식과의 재회 → c 정절의 훼손 →
 '영채의 현재의 삶'
 d 여학생과의 만남 → e 새로운 광명을 봄.

- ① a 에서 영채는 형식과의 만남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군.
- ② b 에서 영채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형식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꼈군.
- ③ c 가 계기가 되어 영채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군.
- ④ d 는 영채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군.
- ⑤ e 에서 영채는 참생활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겠군.

3 <보기>를 바탕으로 ㉠에 나타난 영채의 심리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노력은 때로 원점을 지향한다. 이때 원점이란 인물들의 출발점이자 도달하고자 하는 종결점이다. 인물들이 현재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은 과거의 삶에서 존재했던 것으로, 인물들은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고자 한다. '무정'에 등장하는 '영채' 또한 원점을 지향하는 인물인데, '영채'에게 원점은 아버지와 '형식'이 함께 있었던, 유년 시절의 고향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채'는 아버지의 죽음과 형식과의 이별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 후 '영채'는 '형식'을 빨리 찾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된다.

- 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싶기 때문에
- ② 유년 시절부터 열녀가 되고 싶다는 영채의 내적 욕망 때문에
- ③ 형식과 함께할 미래는 과거와 달리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④ 유년 시절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 ⑤ 유년의 과거를 공유한 형식과 재회해 그리웠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4 <보기>의 '신여성'에 해당하는 인물을 윗글에서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1919년 3·1 운동 후 민중들은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으며, 부자가 한 반에서 공부를 하는 광경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상투를 틀고 한문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상경해 상투를 자르고 신학문 공부에 열을 올린 당시의 향학열은 여성 사회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때까지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하여 외간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낡은 사상에 갇혀 있던 이 나라의 여성들도 자진해서 학교에 가게 되었으며, '히사시가미(일본식 양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신여성'이 되었다. '신여성'이란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고 기존의 결혼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표명하는 일군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01 ④ 02 ④ 03 ⑤

04 (예시 답안) 여학생 / 여학생은 기존의 결혼 제도와 정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영채가 형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정절을 지키는 것은 낡은 사상에 갇혀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결혼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표명하는 집단인 '신여성'은 '여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정 -- 이광수

해제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 1918년 신문관에서 초판이 간행된 이래 일제 강점기 동안 8판까지 찍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언문일치에 가까운 문체를 확립하였으며, 치밀한 구성과 인물들의 내면 심리 묘사, 개성적인 인물의 창조 등이 근대 소설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민족의 계몽이라는 주제 의식을 삼각관계의 애정 구도 속에 녹여 넣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한 작품이다.

01 인물의 태도 파악 (답) ④

여학생은 영채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영채의 답을 이끌어 내면서 영채가 낡은 과거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조롱'이란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것'을 말한다. 여학생은 영채의 과거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영채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고 있지 않다.

- ② 여학생은 영채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 ③ 영채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영채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
- ⑤ 여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고 있다.

02 중심 사건과 관련하여 작품 이해 (답) ④

d 는 영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자살 결심을 하고 죽으러 가는 길에 영채는 여학생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영채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a 에서 영채는 형식과 재회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② b 에서 영채는 예상과는 다른 형식의 반응과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형식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깐 생각던 바와 다름데다.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도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글쎄요, 만나니깐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려 오던 사람과는 딴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에 나타난다.

③ c 는 영채의 삶을 뿌리째 뒤흔든 사건으로, 정절을 훼손당한 영채는 이 일을 계기로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정절의 훼손은 영채로 하여금 형식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동안 꿈꿔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자 자신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⑤ e 에서 영채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광명을 보게 되고 참생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품게 된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인물의 의도 추론 (답) ⑤

영채에게 원점이란 형식과 공유했던 '유년의 과거 시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채가 형식과의 재회를 바라는 것은 형식과 함께 공유했던 유년의 과거 시절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영채가 아버지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은 이 글과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영채는 고성의 교훈을 따르며 정절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지만 열녀가 되고 싶다는 내적 욕망 때문에 형식을 찾는 것은 아니다.

③ 형식과 함께할 미래가 과거와 달리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이 글과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영채는 형식의 아내가 되라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니다. 영채에게 형식은 유년의 과거를 함께 공유한 대상으로, 그리운 시절의 상징일 뿐이다.

04 신여성과 관련된 인물 찾기

여학생은 영채에게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하냐며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에 갇혀 산 것이라 말을 하고 있다. 여학생이 영채에게 '과거사는 꿈'이며 이제부터 '참생활'이 열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기>에 제시된 '신여성'의 모습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경성 학교 영어 교사 이형식은 김 장로의 딸 '선형'과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 준 박 진사의 딸 '영채'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영채는 경성 학교 배 학감에게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살하러 가는 길에 동경 유학생 '병욱'을 만나 마음을 돌이켜 일본 유학길을 떠난다. 마침 형식도 선형과 약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도중, 기차 안에서 병욱과 영채를 만나게 된다. 도중에 그들은 삼랑진 수재민을 위해 자선 음악회를 열게 된다.

서장은 병욱에게서 그 돈을 받는 듯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일동을 향하여 그 돈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방법을 취하여 수재민을 구제하겠노라 하였다. 일동은 병욱과 다른 두 사람의 성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그네는 다만 고개를 숙일 뿐이요, 말이 없었다.

이러하는 동안에 집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찌할 줄을 모르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차차 시장증이 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였으나 @그네에게는 아무 방책도 없었다. 그네는 다만 되어 가는 대로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네는 과연 아무 힘이 없다. 자연(自然)의 폭력(力)에 대하여야 누구라서 능히 저항(抵抗)하리요마는 그네는 너무도 힘이 없다. 일생에 뼈가 휘도록 애써서 쌓아 놓은 생활의 근거를 하룻밤 비에 다 씻겨 내려보내고 말리만큼 그네는 힘이 없다. @그네의 생활의 근거는 마치 모래로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나가면 그네는 흩어진 모래를 긁어모아서 새 생활의 근거를 쌓는다. 마치 개미가 그 가늘고 연약한 발로 땅을 파서 동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하룻밤 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발 떠는 그네들이 어찌 보면 가련하기도 하지마는 또 어찌 보면 너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네의 얼굴을 보건대 무슨 지혜가 있을 것 같지 아니하다. 모두 다 미련해 보이고 무감각(無感覺)해 보인다. 그네는 몇 푼어치 아니 되는 농사한 지식을 가지고 그저 땅을 팔 뿐이다. 이리하여서 몇 해 동안 하느님이 가만히 두면 썩은 벼섬이나 모아 두었다가는 한번 물이 나면 다 씻겨 보내고 만다. 그래서 @그네는 영원히 더 부(富)하여짐 없이 점점 더 가난하여진다. 그래서 (몸은 점점 더 약하여지고 머리는 점점 더) 미련하여진다. 저대로 내어 버려두면 마침내 북해도 의 아이누*나 다름없는 종자가 되고 말 것 같다.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겠다. 지식을 주어야 하겠다. 그리해서 생활의 근거를 완전하게 하여 주어야 하겠다.

"과학(科學)! 과학!"

하고, 형식은 여관에 돌아와 앉아서 혼자 부르짖었다. 세 처녀는 형식을 본다.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科學)을 주어야겠어요. 지식을 주어야겠어요"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거닌다.

"여러분은 오늘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다. 한참 있다가 병욱이가,

"불쌍하게 생각했지요." 하고 웃으며,

"그렇지 않아요?" 한다. 오늘 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훨씬 친하여졌다.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문명이 없는 데 있겠지요—생활하여 갈 힘이 없는 데 있겠지요"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을.....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외다..... 저들을 구제할까요?"

하고 형식은 병욱을 본다. 영채와 선형은 형식과 병욱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병욱은 자신 있는 듯이,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그리하려면?"/"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어떻게요?"/"교육으로, 실행으로."

영채와 선형은 이 문답의 뜻을 자세히는 모른다. 무론 자기네가 아는 줄 믿지마는 형식이와 병욱이가 아는 이만큼 절실(切實)하게, 단단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방금 눈에 보는 사실이 @그네에게 산 교육을 주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요, 대 웅변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었다.

일동의 정신은 긴장(緊張)하였다. 더구나 영채는 아직도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하나?'함은 참 큰 문제였다.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형식과 병욱은 매우 큰 사람같이 보였다. 영채는 두자미(杜子美)*며, 송동파(蘇東坡)*의 세상을 근심하는 시구를 생각하고, 또 오 년 전 월화와 함께 대성 학교장의 연설을 들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나이 어려서 분명히 알아듣지는 못하였거니와,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못생기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할 때에 과연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들이라 하던 생각이 난다. 영채는 그 말과 형식의 말에 공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번 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웁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고 세 처녀를 골고루 본다. 세 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쭉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세 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하는 듯하였다. 마치 큰 지진이 있어서 온 땅이 떨리는 듯하였다. 형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웁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 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하고 조끼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내어 푸른 차표를 내어 들면서,

"이 차표 속에는 저기서 들들 떠는 저 사람들..... 아까 그 젊은 사람의 땀도 몇 방울 들었어요..... 부디 다시는 이러한 불쌍한 경우를 당하지 말게 하여 달라고요....."

하고 형식은 새로 결심하는 듯이 한 번 몸과 고개를 흔든다. 세 처녀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었다.

이때에 네 사람의 가슴속에는 꼭 같은 '나 할 일'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없이 온통 한 몸, 한마음이 된 듯하였다.

- 이광수, 「무정」

* 아이누: 일본 홋카이도[海道]와 사할린에 사는 한 종족.

* 두자미(杜子美):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두보 '시성(詩聖)'으로 불리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www.namuacademy.com

며,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꼽힌다.

* 소동파(蘇東坡): 중국 북송의 문인 소식.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서화에 능하였다.

01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친일파로 행세하는 사람
- ②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 ③ 외래 학문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
- ④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 ⑤ 두자미나 소동파의 작품을 읽어 보지 못한 사람

02 ㉠~㉥ 가운데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03 <보기>를 근거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근대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소설로 평가된다. 특히 문체 면에서의 업적은 두드러진다. 이전 시대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라' 형태의 문장이 아니라 '~이다(였다)'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 시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려 했으며, 현장감을 살릴 때엔 의식적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고전 소설의 설화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근대 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인물을 가리킬 때도 고유 명사가 아니라 삼인칭 대명사인 '그'를 사용함으로써 인물 묘사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① '그저 땅을 팔 뿐이다.'처럼 '이다' 형태의 문장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본다.' '거닌다.'처럼 '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세 처녀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었다.'에서 형식을 지칭하는 말로 '그'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입을 꼭 다문다.'와 '감동을 깨달았다.'처럼 시제를 명확히 구별하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 ⑤ '구제하겠노라 하였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고전 소설의 설화체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짝반짝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펑 소요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 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라.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통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 기계와 전화 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 때각거리며, 왜 저 흥물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주야로 달아나는지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속에 영채는 행여나 누가 자기의 얼굴을 볼까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욱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 만날까 하고 플랫폼에 내려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도로 차실로 들어오려 할 적에 누가 어깨를 치며, "병욱 언니 아니야요?" 한다.

병욱은 놀라 돌아서며 자기보다 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

"에그, 얼마 만이여!"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왜, 어느 새에 여보, 그런데 좀 만나 보고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정하오." 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무려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

"아니오. 동행이 있어서 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소?"

"응, 아니, 언니 모르셔요?"

"무엇을?"

"에그, 저런! 저 선형이 알지요. 선형이가 오늘 미국 떠난다오."

"선형이가 미국?" 하고 놀란다. 그 여학생은 저편 이등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선 것을 가리키며,

"저기 탔는데 이번에 혼인해 가지고 양주가 미국 공부 하러 간다오. 잘들 한다. ㉡다 미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

병욱은 여학생을 따라 선형이가 탔다는 차 앞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곁에 갈 수가 없다. ㉢선형은 하얀 양복에 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 전승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답하고, 그 곁 창에는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신사가 그 역시 연해 고개를 숙여 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 전승인은 대개 두 패로 갈려 서 한편에는 여자만 모이고, 한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병욱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 종로에서 선형을 찾아볼 양으로 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에 올라왔다. 영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거의 만원이라 하리만큼 많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웃옷을 벗어 걸고, 어떤 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병욱과 영채 둘뿐이다. 병욱은 자리에 앉아서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영채더러,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었니?"

"㉣어째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혼란하여 집니다고려. 어서 차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에 벌써 증 흔드는 소리가 나고, "사요나라, 고키겐요우." 하는 소리가 소낙비 같이 들리더니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어디서, "만세,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인다. 또 한 번,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창밖으로 얼른한다. 그것은 모시 두루마기에 파나마 쓴 패였다. ㉥병욱은 아까 선형의 곁에 있던 사람이 형식인 것과, 형식이 선형의 지아빈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영채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 문득 가슴이 덜렁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썩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 형식이 탄 것을 생각하매 알 수 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

- 이광수, 무정 -

0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비유법과 열거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변모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상적 구어체에 가까운 산문적인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0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 '여학생'은 상황 판단에 대한 무지로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② ㉡ : '선형'은 현실 도피를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 ③ ㉢ : '영채'는 구시대적인 권위나 특권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형식'은 개화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⑤ ㉤ : '병욱'은 타인의 일에는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냉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06 <보기>를 참고할 때, 위 글에 나타나 있는 '기차'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제 강점기에 기차는 우리 민족에게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다가온다. 또한 기차는 공포와 동경의 대상이 된다. 민중들이 기차를 탄다는 것은 생활 터전으로서의 고향 상실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 반면 문명개화에 앞선 특권 계층들은 기차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 유학을 하거나 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다. 김동인도 지적하였듯이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무정에서도 기차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① 인물들의 사회적 계층과 위상을 보여 주는 수단
- ② 인물들에게 고향 상실감을 환기시켜 주는 매개체
- ③ 인물들의 만남을 통해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장소
- ④ 인물들이 지향하는 서구적인 근대 문명개화의 상징물
- ⑤ 인물들이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해 주는 장치

07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좌불안석(坐不安席) ② 간담상조(肝膽相照)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④ 침소봉대(針小棒大)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01 답 ④ 현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인물을 지칭한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형식과 병욱은 매우 큰 사람같이 보였다.'에서 지칭하는'큰 사람'에 반대되는 인물'못생긴 사람'이다.'두자미며, 소동파의 세상을 근심하는 시구를 생각하 고'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도'큰 사람'은'세상의 문제를 근심하는 사 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① 친일파로 행세하는 사람

→ 이 글에서는 친일파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시대가 요 구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의미로 '못생 긴 사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②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 대성 학교장이 했던'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못생 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영채는 이 말이 형식 의 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말과 형식의 말에 공 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라는 말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뒤 이어 형식이'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라고 말하자 세 처녀는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형식은 현실의 문 제를 극복하는 힘을 갖추기 위해'못생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교육 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형식과 같은 인물을 가리켜'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못생긴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③ 외래 학문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하나? 함은 참 큰 문제였다.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형식과 병욱은 매우 큰 사람같이 보였다.'라는 말에서 지칭하는'큰 사람'에 반대되는 인물'못생긴 사람'이다. 그러 므로 여기서 지칭하는'큰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그러므로 '못생긴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를 해결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래 학문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⑤ 두자미나 소동파의 작품을 읽어 보지 못한 사람

→ 두자미나 소동파의 작품을 읽어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을 근심하는 자세를 지니지 못한 사람'못생긴 사람'으로 보아야 한 다.

02 지시 대상 파악 정답 ⑤

㉠~㉢ 가운데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다른 대상을 지칭하고 있더라도, 내용 전체 를 이해하고 파악하면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문장의 의미를 정리하면 된다.

⑤ ㉢ 그네

→ ㉢의'그네'는 영채와 선형을 가리킨다.'방금 눈에 보는 사실이 그네에게 산 교육을 주었다.'라고 하여, 지금 막 깨달음을 얻은 사람 들을 가리키고 있다.'형식과 병욱이가 아는 이만큼 절실(切實)하게, 단 단하게 알지는 못한다.'라는 말을 참고하면'그네'는 영채와 선형만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① ㉠ 그네

→ 집 잃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수재를 당한 삼랑진 사람들을 가 리킨다.

② ㉡ 그네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 생활의 근거를 하룻밤 비에 씻겨 내려 보낸 사람들을 가리킨 다. 즉, 삼랑진 사람들이다.

③ ㉣ 그네

→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삼랑진 수재민들 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 그네

→ 지속적인 자연재해로 점점 가난해질 상황에 처한 삼랑진 사 람들을 가리킨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⑤

<보기>를 근거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시된 <보기>를 읽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작품에서 그 근거가 되는 적절한 예를 찾아 관련되었는지 하나씩 검토하도록 한다.

⑤'구제하겠노라 하였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고 전 소설의 설화체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고전 소설의 설화체를 벗어났다는 예 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 작품이 고 전 소설의 설화체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①'그저 땅을 팔 뿐이다.'처럼'이다'형태의 문장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보기>의 설명대로'~이라'형태의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이다'의 형태로 문장을 종결하고 있다.

②'본다,'거닌다'처럼'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 감을 살리고 있다.

→'현장감을 살릴 때엔 의식적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였다는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적절한 예인'본다,'거닌다'를 본문에서 찾 아 설명하고 있다.

③'세 처녀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었다.'에서 형식을 지칭하는 말 로'그'를 사용하고 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삼인칭 대명사'의 예를 지문에서 찾아 제 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입을 꼭 다문다.'와'감동을 깨달았다.'처럼 시제를 명확히 구별하 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입을 꼭 다문다.'는 문장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였고, '감동을 깨달았다.'는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였다. 각각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로 명확히 구별이 된다. 이는 <보기>의 설명과 일치하는 적절한 예 이다.

04 서술과 표현상 특징 파악 ㉡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A]에서 서술자는 현대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며, 문명의 소리가 요 란할수록 나라가 잘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는 현대 문명 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개혁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동시대의 여러 사회 문제를 비판하지 않 고, 아직까지 현대 문명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 로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사람들을'흰옷 입은 사람들' 무로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로 표현하고 있으며(대유법),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다양한 소리를 나열하고 있다(열거법).

③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가 들리는 상황을 통해 세상이 점차 근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서술자는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화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그네는 ~ 되어야 한다.'에 잘 나타난다.

⑤ 문어체가 중심이 되는 고전 소설과 달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구어체에 가깝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운문적인 문장보다는 산문적 문장을 주로 사용하였다.

05 등장인물의 특성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미국으로 떠나는 '형식'을 배웅하는 무리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개화된 미국으로 떠나는 '형식'은 분명 축하의 대상이다. 미국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만세'를 외치는 것은 미국 유학을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 점에서 '형식'은 개화된 젊은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여학생'은 '선형'처럼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뿐, 자신을 무지한 인물로 보지는 않는다.

② '선형'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웅을 받고 있으며, 또 그녀도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볼 때 '선형'이 미국으로 도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③ '남대문'이라는 소리는 '영채'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만 왜 그런지 제시되지 않았고, 또 '영채'가 '남대문'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

⑤ '병욱'이 '선형'과 '형식'에 관하여 '영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형식'을 잊지 못하는 '영채'를 걱정해서이다.

06 중심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일제 강점기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에게 기차는 고향의 상실이라는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이지만,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영채'와 '병욱'은 문명개화에 앞선 특권 계층에 해당하기에 고향(고국)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차를 타고 있는 주요 인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따라서 기차는 이들이 문명개화에 앞선 계층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영채'는 기차에 자신이 잊으려고 한 '형식'이 탔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린다. '형식'을 떠올리면서 내적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④ 등장인물들은 모두 문명개화를 위해 외국으로 나간다. 이들에게 기차는 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이다.

⑤ '영채'가 기차를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형식'을 찾기 위해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영채'에게 기차는 과거를 벗어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이다.

07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판단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영채는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좌불안석(坐不安席)'이란 불안이나 근심 등으로 인해 한군데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한자성어로, 영채의 심리를 드러내기엔 적합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간담상조(肝膽相照)'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사귀는 뜻이다.

③ '전전반측(輾轉反側)'은 걱정 때문에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못 이룬을 뜻한다.

④ '침소봉대(針小棒大)'는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허풍을 떨어 말함을 뜻한다.

⑤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임을 뜻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웁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고 세 처녀를 골고루 본다. 세 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쭉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세 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하는 듯하였다. 마치 큰 지진이 있어서 온 땅이 떨리는 듯하였다.

형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웁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 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하고 조끼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내어 푸른 차표를 내어 들면서,

"이 차표 속에는 저기서 들떠는 저 사람들... 아까 그 젊은 사람의 땀도 몇 방울 들었어요... 부디 다시는 이러한 불쌍한 경우를 당하지 말게 하여 달라고요..."

하고 형식은 새로 결심하는 듯이 한번 몸과 고개를 흔든다. 세 처녀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었다.

이때에 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꼭 같은 '나 할 일'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없이 온통 한 몸, 한 마음이 된 듯하였다.

선형도 아까 영채가 "제가 물 끓여 올게요." 하고 자기의 손목을 잡아 앉힐 때부터 차차 영채가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영채가 지은 노래를 셋이 합창할 때에는 영채의 손을 잡아 주도록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세 사람이 일제히 "우리지요!" 할 때에 더욱 영채가 정답게 되었다. 그리고 형식이 지금 병욱과 문답할 때에는 그 얼굴에 일층 거룩하고 엄숙한 기운이 보여 지금껏 자기가 그에게 대하여 하여 오던 생각이 죄송한 듯하다. 자기는 언제까지 형식과 영채를 같이 사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이 형식과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형식은 숙였던 고개를 들어,

"우리가 늙어 죽게 될 때에는 기어이 이보다 훨씬 좋은 조선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게으르고 힘없던 우리 조상을 원통히 여

기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고마운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합시다."

하고 웃으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장래 나갈 길이나 서로 말합시다."

하고 세 사람을 본다.

세 사람도 그제야 엄숙하던 얼굴이 풀리고 빙그레 웃는다.

<후략>

-이광수, <무정>

1. 위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당대 젊은이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 ② 인용된 부분은 소설 전체에서 절정의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 ③ 전통적인 인습이나 편견에서 벗어난 합리주의적인 사상을 보인다.
- ④ 등장인물 네 명은 국가 장학생에 선발되어 유학을 떠나는 길이다.
- ⑤ 우리 민족의 근대화와 과학적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 위에서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어를 찾아 2음절로 쓰시오.

3. 최초의 근대 소설로 보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우연성
- ②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배열
- ③ 근대적인 주제의식 반영
- ④ 소재의 현실성
- ⑤ 현대적인 문체 확립

4. 위 글에서 작가가 주제를 표출하는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작중 인물의 내면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적절한 비유와 암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작중 인물의 대사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 ⑤ 관련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깨닫게 하였다.

5. 위 소설을 반영론적 관점에서 감상한 것은?

- ① 태현 : 주인공의 삼각관계로 이어지는 자유연애 사상이 당시 독자들의 애정관이나 결혼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해.

- ② 유리 : 이광수의 사상(민족 개조론)이 이형식의 입을 통해 표현되고 있어.
- ③ 진영 : 영채 선형 형식의 관계를 통해 당시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④ 동건 : 이 작품은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씌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 ⑤ 진건 : 나는 개인주의적인 나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몽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작품이다.
- ② 전반부 인물의 삼각관계가 후반부에 민족을 위해 헌신하려는 정신적 각성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 ③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사제관계를 바탕으로 재편되어 있다.
- ④ 작가의 가치관과 의식이 인물의 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7. 이광수의 <무정(無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로 민족주의적 계몽 사상을 고취하려한 작품이다.
- ② 작가는 이형식 · 박영채 · 김선형 세 인물의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을 썼다. 당시 그들은 우리 청년들의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 ③ 계몽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이다.
- ④ 구어체(口語體) 문장의 확립이다.
- ⑤ 문학사적으로 볼 때, 「무정」은 이인직의 「혈의 누」의 전통을 잇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러하는 동안에 집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찌할 줄을 모르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차차 시장증이 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였으나 그네에게는 아무 방책도 없었다. 그네는 다만 되어가는 대로 되기를 바랄뿐이다. 그네는 과연 아무 힘이 없다. 자연(自然)의 폭력(暴力)에 대하여서야 누구라서 능히 저항(抵抗)하리요마는 그네는 너무도 힘이 없다. 일생에 뼈가 휘도록 애써서 쌓아 놓은 생활의 근거를 하룻밤 비에 다 씻겨 내려 보내고 말리만큼 그네

는 힘이 없다. 그네의 생활의 근거는 마치 모래로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나가면 그네는 흩어진 모래를 긁어 모아서 새생활의 근거를 쌓는다. 마치 개미가 그가 늘고 연약한 발로 땅을 파서 동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하룻밤 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발 떠는 그네들이 어찌보면 가련하기도 하지만 또 어찌보면 너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네의 얼굴을 보건대 무슨 지혜가 있을 것 같지 아니하다. 모두 다 미련해 보이고 무감각(無感覺)해보인다. 그네는 몇 푼어치 아니되는 농사한 지식을 가지고 그저 땅을 팔뿐이다. 이리하여서 몇 해 동안 하느님이 가만히 두면 썩은 벼섬이나 모아두었다가는 한 번 물이 나면 다 씻겨 보내고 만다. 그래서 그네는 영원히 더 부(富)하여 짐이 없이 점 점 더 가난 하여진다. 그래서 (몸은 점 점 더 약하여 지고 머리는 점 점 더) 미련하여진다. 저대로 내어 버려두면 마침내 북해도의 '아이누'나 다름없는 종자가 되고 말 것 같다.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겠다. 지식을 주어야 하겠다. 그리해서 생활의 근거를 완전하게 하여주어야 하겠다.

"과학(科學)! 과학!"

하고, 형식은 여관에 돌아와 앉아서 혼자 부르짖었다. 세 처녀는 형식을 본다.

"조선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科學)을 주어야겠어요. 지식을 주어야겠어요."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으로 거닌다.

"여러분은 오늘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다. 한참 있다가 병욱이가,

"불쌍하게 생각했지요."

하고 웃으며,

"그렇지 않아요?"

한다. 오늘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훨씬 친하여졌다.

-이광수, <무정>

8. 위 작품을 효용문적 관점으로 분석한 것은?

- ① 작품에 등장하는 영채와 선형은 각각 전통적 여성과 신여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들을 통해 이 작품이 씌어진 당시에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 작품은 형식과 영채, 선형의 삼각 관계로 이어지는 자유 연애 사상이 당시 독자들의 애정관이나 결혼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 ③ 작품에는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작품에서도 이 형식의 입을 빌려 작가의 사상이 표현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근대화한 현실과 인간의 심리를 세밀히 묘사했고 구어체 문장을 통해 언문일치를 이룩했다.
- ⑤ 이 작품은 당시 민중들의 무기력하고 무지한 모습과 비참한 생활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9. 위 글을 읽고 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 ② 민족 개조론을 주창했던 작가의 면모가 작품 곳곳에서 느껴지는군.
 - ③ 중심인물의 사상을 조리있게 제시하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군.
 - ④ 수재민을 피동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파악하는 서술자의 태도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 ⑤ 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10. <보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뒷글을 비평한 것은?

보기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일이다. 관점이란 쉽게 말한다면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비평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매우 영향력 있는 몇몇 관점들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 중에서 '소설은 풍속(風俗)의 재현(再現)'이라는 관점을 취하며 외적인 정보를 끌어들이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 ① 소설은 그 근본이 이야기니까 소설적인 구성이 중요한데, 이 작품은 신소설의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근대소설적 특징을 보여주는 현대소설사의 기념비적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 ② 소설 읽기는 작품 속 주인공과의 가상 대화를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당시의 엘리트로서 신식 교육을 받은 주인공 형식을 통해 읽는 이에게 민족 현실에 대한 자각과 자아에 눈뜨게 한다.
- ③ 소설의 핵심은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 글에서는 형식과 선형, 영채를 둘러싼 갈등이 개인적인 애정보다 절박한 민족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 헌신을 결의함으로써 해소된다.
- ④ 소설의 구조와 현실의 구조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이 글은 여기에 등장하는 영채와 선영을 통해 서구 문물이 유입되던 당시의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해 있던 시대상을 알 수 있다.
- ⑤ 소설의 본질적인 기능은 작품이 제시하는 주제를 통해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이 글에 담겨진 자유연애 사상은 당시 독자들의 애정관이나 결혼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동의 정신은 긴장(緊張)하였다. 다구나 영채는 아직도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하나?' 함은 참 큰 문제였다.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형식과 병욱은 매우 큰 사람같이 보였다. 영채는 두자미(杜自美)며, 소동파(蘇東坡)의 세상을 근심하는 시구를 생각하고, 또 오년 전 월화와 함께 대성 학교장의 연설을 들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나이 어려서 분명히 알아듣지는 못하였거니와,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못 생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할 때에 과연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들이다 하던 생각이 난다. 영채는 그말과 형식의 말에 공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번 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웁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고 세 처녀를 골고루 본다. 세 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 말 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쭉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세 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한 번 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웁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고 세 처녀를 골고루 본다. 세 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 말 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쭉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세 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하는 듯 하였다. 마치 큰 지진이 있어서 온 땅이 떨리는 듯하였다. 형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웁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 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하고 조끼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내어 푸른 차표를
내어 들면서. "

"이 차표 속에는 저기 들들 떠는 저 사람들-- 아까 그 젊은 사람
의 땀도 몇 방울 들었어-- 부디 다시는 이러한 불쌍한 경우를
당하지 말게 하여 달라고요--" 하고 형식은 새로 결심하는 듯이
한 번 몸과 고개를 흔든다. 세치녀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었다.
이 때에 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꼭 같은 '나 할 일'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없이 온통 한 몸, 한 마음이 된
듯하였다.

선형도 아까 영채가 "제 물 끓여 올게요."하고 자기의 손목을 잡
아 앉힐 때부터 차차 영채가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영채가 지
은 노래를 셋이 합창할 때에는 영채의 손을 잡아 주도록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세 사람이 일제히 "우리지요!"할 때에 더욱
영채가 정답게 되었다. 그리고 형식이 지금 병욱과 문답할 때
에는 그 얼굴에 일종 거룩하고 엄숙한 기운이 보여 지금껏 자기
가 그에게 대하여 하여 오던 생각이 죄송한 듯하다. 자기는 언제
까지 형식과 영채를 같이 사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이 형식
과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형식은 숙였던 고개를 들어,

"우리가 늙어 죽게 될 때에는 기어이 ①이보다 훨씬 좋은 조선
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게으르고 힘없던 우리 조상을 원하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고마운 조상이라는 말을 듣
게 합시다."

하고 웃으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장래 나갈 길이나 서로 말합시다."

하고 세 사람을 본다. 세 사람도 그제야 엄숙하던 얼굴이 풀리고
방그래 웃는다.

11.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 ②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
- ③ 자연 재해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 ④ 볼품 없는 외모를 소유한 사람들
- ⑤ 농업, 공업 등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12.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작자의 관심은 무엇인가?

- ① 수재민 구제 정책
- ② 자아(민족)의 각성
- ③ 새로운 결혼관
- ④ 남녀평등
- ⑤ 구습과 구사상 타파

13. 의 등장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은?

- ① 대화를 통해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여 종합하고 있다.
- ②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원천 봉쇄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④ 문답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논거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14. 의 주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어는?

- ① 과학, 지식
- ② 문명, 실행
- ③ 교육, 실행
- ④ 교육, 힘
- ⑤ 힘, 문명

15. 구절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의 형성
- ② 주제 암시
- ③ 갈등 해소의 전조
- ④ 사려의 본격적 전개
- ⑤ 갈등의 고조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 간의 연애를 바탕으로 한 삼각관계의 갈등이 민족주의
로써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②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 단편 소설이다.
- ③ 국문체를 바탕으로 구어체 문장이 사용되었다.
- ④ 이면적 주제는 형식과 선형, 영채의 삼각관계로 이어지는 자유
연애 사상이다.
- ⑤ 소설 후반부에는 인물들이 기본적으로 사제(師弟)관계를 바탕
으로 재편되는데, 이는 계몽적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러하는 동안에 집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찌할 줄을 모르
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차차 시장증이 나고 몸이 떨리기 시작
하였으나 그네에게는 아무 방책도 없었다. ㉠그네는 다만 되어
가는 대로 되기를 바랄뿐이다.

그네는 과연 아무 힘이 없다. 자연(自然)의 폭력(暴力)에 대하여서
야 누구라서 능히 저항(抵抗)하리요마는 그네는 너무도 힘이 없
다. 일생에 뼈가 휘도록 애써서 쌓아 놓은 생활의 근거를 하룻밤
비에 다 씻겨 내려 보내고 말리만큼 그네는 힘이 없다. ㉡그네는
생활의 근거는 마치 모래로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나가면 그네는 흩어진 모래를 긁어 모아서 새생활의
근거를 쌓는다. 마치 개미가 그 가늘고 연약한 발로 땅을 파서
둥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하룻밤 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
발 떠는 그네들이 어찌보면 가련하기도 하지마는 또 어찌 보면
너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나)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科學)을 주어야겠어요.
지식을 주어야겠어요."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거닌다.
 “여러분은 오늘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말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다. 한참 있다가 병욱이가,
 “불쌍하게 생각했지요.”
 하고 웃으며,
 “그렇지 않아요?”
 한다. 오늘 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훨씬 친하여졌다.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문명이 없는 데 있겠지요 - 생활하여 갈 힘이 없는 데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을.....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외다..... 저들을 구제할까요?”
 하고 형식은 병욱을 본다. 영채와 선형은 형식과 병욱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병욱은 자신 있는 듯이,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그리하려면?”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어떻게요?”
 “교육으로, 실행으로.”
 (다) ㉠일동의 정신은 긴장(緊張)하였다. 더구나 영채는 아직도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하나?’함은 참 큰 문제였다.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형식과 병욱은 매우 큰 사람같이 보였다. 영채는 두자미(都子美)며, 소동파(蘇東坡)의 세상을 근심하는 시구를 생각하고, 또 오 년 전 월화와 함께 ㉡대성 학교장의 연설을 들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나이 어려서 분명히 알아듣지는 못하였거니와,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못 생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에 과연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들이다 하던 생각이 난다. ㉢영채는 그말과 형식의 말에 공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번 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웁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고 세 처녀를 골고루 본다. 세 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듯 말 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짝 끼쳤다. 형식은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라) 이 때에 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꼭 같은 ‘나 할 일’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없이 온통 한 몸, 한 마음이 된 듯하였다.
 선형도 아까 영채가 “제 물 끓여 올게요.”하고 자기의 손목을 잡아 앓힐 때부터 차차 영채가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영채가 지은 노래를 셋이 합창할 때에는 영채의 손을 잡아 주도록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세 사람이 일제히 “우리지요!”할 때에 더욱

영채가 정답게 되었다. 그리고 형식이 지금 병욱과 문답할 때에는 그 얼굴에 일종 거룩하고 엄숙한 기운이 보여 지금껏 자기가 그에게 대하여 하여 오던 생각이 죄송한 듯하다. 자기는 언제까지 형식과 영채를 같이 사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이 형식과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이광수, <무정>

17. 친 ㉠~㉣에 대한 이해가 바른 것은?

- ① ㉠ - 수재민들은 어려움을 순응의 방법으로 극복하려 한다.
- ② ㉡ - 수재민들은 작은 모래 같은 정성을 모아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 ③ ㉢ - 네 사람은 큰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 ④ ㉣ - 영채는 형식과 병욱의 대화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 ⑤ ㉣ - 형식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18. 의 근대 소설로서의 면모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작가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② 3인칭의 ‘그’를 사용하였다.
- ③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④ 이야기가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⑤ 고전소설의 ‘-더라’투의 문어체를 탈피하였다.

19. 다)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의 접근이 가장 효과적일까?

- ① 표현론적 관점
- ② 반영론적 관점
- ③ 효용론적 관점
- ④ 절대주의적 관점
- ⑤ 종합주의적 관점

20. 인물 ‘형식’의 어조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 다.
- ②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③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 ④ 파르라니 깎은 머리 /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21. 밑줄 친 ㉠의 중심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 ② 생활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 ③ 우리의 조상들은 위대하였다.
- ④ 요즘 젊은이들은 개성이 없다.
- 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무능력하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네는 과연 아무 힘이 없다. 자연의 폭력에 대하여서야 누구라서 능히 저항(抵抗)하리오. 마는 그네는 너무도 힘이 없다. 일생에 뼈가 휘도록 애써서 쌓아 놓은 생활의 근거를 하룻밤 비에 다 씻겨 내려 보내고 말리 만큼 ㉠그네는 힘이 없다. ㉡그네의 생활의 근거는 마치 모래로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나가면 그네는 다시 흠어진 모래를 긁어모아서 새 생활의 근거를 쌓는다. 마치 개미가 그 가늘고 연약한 발로 땅을 파서 등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하로밤 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발 떠는 그네들이 어찌 보면 가련하기도 하지마는 또 어찌 보면 너무 악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중략>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문명이 없는 데 있겠지요. 생활하여 갈 힘이 없는 데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을.....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외다..... 저들을 구제할까요?”

하고 형식은 병욱을 본다. 영채와 선형은 형식과 병욱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병욱은 자신이 있는 듯이,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그리하려면?”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어떻게요?” / “교육으로, 실행으로.”

영채와 선형은 이 문답의 뜻을 자세히는 모른다. 물론 자기네가 아는 줄 믿지마는 형식이나 병욱이가 아는 만큼 절실하게, 깊게, 단단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방금 눈에 보는 사실이 그네에게 산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요, 큰 웅변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 - 수재민인 동시에 당시의 무기력한 민중들을 의미한다.
- ② ㉡ - 사상누각과 의미가 상통한다.
- ③ ㉢ - 수재민들의 불행의 원인을 민중들의 나약한 정신 상태에 있다고 본다.
- ④ ㉤ - 서구 물질 문명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 ⑤ ㉤ - 작가의 시혜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위 소설에 나타난 서술자의 시각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민주주의
- ② 계몽주의
- ③ 실존주의
- ④ 국수주의
- ⑤ 자본주의

24. 위 글에 대한 이해, 감상으로 바르게 된 것은?

- ① 소설 구성단계상으로 무정(無情)의 전개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 ② 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신소설의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④ 영채는 형식의 말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
- ⑤ 주인공의 자아 각성이 미흡한 작품이다.

25. ‘무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몽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작품이다.
- ② 세밀한 서술, 구체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 ③ 신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 ④ 민족적 현실의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 ⑤ ‘자선음악회’로 주요 갈등이 해소된다.

26. 위의 소설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려면?

- ① 개성적이고 근대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 ② 영채는 전통적인 여인상의 전형으로 평면적 인물로 볼 수 있다.
- ③ 언문일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 ④ 권선징악적 요소가 돋보인다.
- ⑤ 치정 관계만을 다룬 애정 소설이다.

27. 위 소설의 서술상 특징으로 바른 것은?

- ① 독백체로 서술자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관찰한 사실만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체험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독자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들여다보며 진술하고 있다.
- ⑤ 판소리 사설조의 어법을 활용하고 있다.

28. <보기>는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적어 놓은 것이다. <보기>의 관점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보기

문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소망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영채, 선형은 각각 전통적 여성과 신여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들을 통해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에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① 작품이 대상으로 삼은 현실에 대해 연구한다.
- ② 작품에 반영된 세계와 대상 세계를 비교, 검토한다.
- ③ 작품이 대상세계의 진실한 모습과 전형적 모습을 반영했는지 검토한다.
- ④ 이 작품은 형식과 영채 선형의 삼각관계로 이어지는 자유연애 사상이 당시 독자들의 애정관이나 결혼관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 ⑤ '흥부전'은 신분체계의 변동과 빈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후기 사회상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29. 위 글과 <보기>의 작품과의 공통된 주제는?

보기

잠깨 보세 잠깨 보세 대조선국 인물들아
 깃히 든 잠 번 듯 때여 자주 독립 도와 주세
 합심하고 동력하여 우리 인민 보호하세

- ① 민족 계몽
- ② 자주독립
- ③ 자유연애
- ④ 자주국방
- ⑤ 근면협동

30. 이 소설의 국문학사적 의의를 10자 내외로 쓰시오.

31. 다음은 이 작품 후반부의 줄거리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형식'의 강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보자.

영채 - 병욱	형식 - 선형
영채는 배 학감에게 유린 당한 후, 유서를 남기고 떠남.	형식이 영채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함.
영채는 김병욱을 만나 용기를 얻고 함께 유학길에 오름.	영채를 포기한 형식은 선형과 결혼하여 유학길에 오름.
네 사람이 우연히 열차에서 만남.	
삼랑진에서 수재 현장을 목격함,	
자선 음악회를 열어 구호 활동을 함.	
여관방에서의 형식의 강론(㉠)	
영채와 선형 사이의 갈등이 해소됨.	
후일담(에필로그)	

32. 다음 표는 본문의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빈칸을 채워보자.

	문제	문제의 당사자	해결책	해결의 주체
현상적	수재 (水災)	수재 당한 사람들	자선 음악회	형식, 선형, 영채, 병욱
본질적	㉠	㉡	㉢	㉣

33. 이 작품은 당대의 민족적 요구의 한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여 보자. 또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이 놓치고 있는 민족적 과제를 지적하여 보자.

34. 이 작품이 <매일신보>에 연재되던 때에는 하루만 연재가 안 되어도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이렇게 「무정」이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각도로 생각하여 보자.

35. 주인공 '형식'은 작가 의식의 대변자이다. '형식'의 태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점에서 비판받을 만한지 말하여 보자. 이 작품의 공리성, 즉 계몽적 성격을 고려해서 답하여 보자.

36. 다음 글을 읽고, ()안에 들어갈 작품의 제목을 써 보자.

우리의 대학 신입생들은 우리 나라의 어떤 소설에 흥미를 가졌을까. <중략>

70년대 학번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이광수의 (㉠) (1917년작)이었고, 80년대 학번은 염상섭의 (㉡) (1931년작)였고, 90년대 학번의 그것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1976년작)이었다. (㉠)의 쟁점은 작가의 친일 문제였고, (㉡)의 그것은 중산층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였다. 토론이 두 편으로 갈라지면서 격렬해지기 일쑤여서 사회자의 중립적 처지가 두 편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곤 했다. 소록도 병원장으로 현역 조백현 대령이 부임해서 벌이는 천국만들기의 의욕과 그 실패 과정을 그린 당신들의 천국의 경우는 이와 사정이 조금 달랐다. 어떻게 하면 '나의 천국도 당신들의 천국도 아닌,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 수 있겠느냐'에로 토론의 방향이 일제히 향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 <동아일보>,

2001. 10. 5

- 1) [답] ④ [해] 개인의 의지로 유학을 선택한 것이다.
- 2) [답] 조선
- 3) [답] ① [해] 사건의 우연성은 고전소설의 특징이다.
- 4) [답] ③ [해] 주로 형식의 대사를 통해 주제를 드러냈다.
- 5) [답] ③
- 6) [답] ⑤
- 7) [답] ② [해] 당시 우리 청년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나타냈다.
- 8) [답] ②
- 9) [답] ③
- 10) [답] ④ [해] 반영론적 관점의 감상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 11) [답] ②
- 12) [답] ② [해] 계몽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다.
- 13) [답] ④
- 14) [답] ③ [해] 형식이 강조한 말을 찾는다.
- 15) [답] ③
- 16) [답] ② [해] 장편 소설이다.
- 17) [답] ④
- 18) [답] ①
- 19) [답] ② [해]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 20) [답] ③ [해] 걱정적으로 화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 21) [답] ⑤
- 22) [답] ③
- 23) [답] ②
- 24) [답] ②
- 25) [답] ③ [해] 내용과 형식에서 신소설의 성격을 많이 벗어났다.
- 26) [답] ①
- 27) [답] ④ [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다.
- 28) [답] ④
- 29) [답] ①
- 30) [답]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
- 31) [답] 교육과 실행으로 힘과 문명을 주어 민족을 구제하고 인도하자. 또는 교육과 실행으로 민족을 구제하고 인도하자.
- 32) [답] ㉠ 무지, ㉡ 민족, ㉢ 교육, 실행 ㉣ 지식인
- 33) [답] 이 작품에는 민족주의 사상, 근대 문명에 대한 지향 의식, 신교육 사상 등을 바탕으로 일체의 봉건적 유습을 극복하고 민족을 계몽하려는 주제 의식이 나타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문명 개화와 민족 계몽이라는 당대의 민족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화기는 우리 나라를 놓고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이 각축하던 때였기 때문에 반외세가 또 하나의 민족적 과제로 등장했는데, 이 작품은 반외세라는 과제를 놓치고 있다.
- 34) [답] 이 작품은 '형식 - 선형 - 영채'의 삼각 관계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애정 갈등을 야기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고, 따라서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작품이 당대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삼각 야정 갈등과 자유 연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민족주의 의식을 드러낸 점, 이전의 신소설과 다른 새로운 문체를 시도한 점,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한 점,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 등이 인기를 끈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35) [답] 이 작품에서 이형식은 계몽적인 교사형 인물로서, 그와 작중 인물들은 일종의 사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의 태도는 문명 개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계몽 사상을 주입하려 하며

지나치게 절교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나친 공리성, 즉 계몽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가 민족 계몽이라는 주제 의식에 눌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개인주의적인 '나'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우리'로 승화됨으로써 인물과 사건의 진실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 36) [답] ㉠ 무정, ㉡ 삼대

들어가기

고1 창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있는 작품이다.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둔하지만 (사실 좀 모자란 인물이다.) 순박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소설을 왜 썼을까?
 개화가 되고 도시문명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점점 우리는 인간미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비합리적이지만 인간적인 삶의 모습,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인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도시문명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마치 이 소설의 주인공인 황수건처럼. 작가는 이런 현실을 소설로 그려낸 것이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현대소설 이태준 달밤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1933년 <중앙(中央)>에 발표된 단편소설 '나'와 '황수건'이라는 사내가 엮어내는 이야기인데, 우둔하고 천진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이 각박한 세상사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모습이 중심을 이룬다. '못난이'로 불리우는 황수건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 나갈 수가 있을까. 그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와 이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그리고 애상적 분위기가 돋보인다.

'나'는 문 안에서 성북동 시골로 이사온 후에야 사람다운 삶의 체험을 하게 되어 더 큰 보람을 느낀다. 그것은 '못난 이'가 눈에 잘 띄다는 사실 때문이다. 문안에는 말하자면 '잘난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못난 사람'은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또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골은 '못난 사람'도 자신을 감추지 않고 사는 곳이다. '못난 사람'이 자기 나름의 서툰고 어수룩한 생각을 통제 없이 표현한다는 것은 시골에는 그러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북동에 작은 집을 사서 이사 온 '나'에게 "왜 이렇게 죄고만 집을 사구 와겠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 걸업쇼."라고 첫 대면부터 황당하게 면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바로 이런 인물에게 정(情)을 느끼고 있다. '나'가 '반편'에 해당하는 '황수건'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를 느끼고, 또 이야기의 뒷끝이 깨끗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 복잡하고 뒷끝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과 상통한다.

그러므로 작가가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두 인물의 관계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인물의 사람됨과 그러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즉, 이 세계는 약사빠르고 경쟁에서 이기는 '잘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곳이기때문에 '황수건' 같이 신문 배달 자체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도중에 어느 집에서 지체되면 밤이 되어서까지 배달하는 사람은 도시적 경쟁에서 도태(淘汰)되기 마련이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반편' 같은 존재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태준의 대표작, 예를 들어 ??까마귀??, ??밤길??, ??복덕방?? 등은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에 패배당하는 인간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패배주의자들에 대하여 독자가 연민을 느끼는 것은 서술자, 또는 작중에 뛰어난 관찰자 '나'의 동정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나'가 '황수건'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정심은 휴머니즘 정신에 기반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회고(懷古) 취향의 나른한 서정성이 너무 짙게 배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인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는 문장은 이태준 문학 성향의 한 농축(濃縮)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문학이 '역사' 또는 '미래'와 거리가 먼 것임을 입증하기도 한다.

■ 핵심 정리

- * 갈래 : 단편소설
- * 배경 : 서울 성북동
-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 성격 : 애상적
- * 제재 : 세상사에 적응 못하는 못난이의 삶.
- * 주제 : **각박한 현실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삶의 모습.**
- * 인물
 - 나 : 황수건을 동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소설 속의 서술자.
 - 황수건 : 우둔하고 천진한 품성을 지닌 남자. 학교 급사, 보조 신문 배달원,
 - 참외 장사 등을 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모두 실패한다. 끝내
 - 아내마저 도망가자 달을 쳐다보며 우수에 젖는 주인공.
- * 구성
 - 발단 : '나'는 첫 만남에서부터 황수건이 못난이란 사실을 앎.
 - 전개 : 정식 배달원이 소원인 보조 신문 배달원 황수건의 과거.
 - 위기 : 보조 배달원마저 쫓겨나고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함.
 - 절정 : 참외 장사 실패와 아내의 가출.
 - 결말 : 달을 쳐다보며 우수에 잠기는 황수건.

★ <달밤>의 상징성

⇒ 아내를 잃은 황수건의 외로운 심리 강조, 아내에 대한 황수건의 그리움.

★ 달밤의 서술자

⇒ 이태준은 대체로 일상적인 사소함에 패배당하는 인간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패배주의자들에 대하여 독자가 연민을 느끼는 것은 서술자, 또는 작중 인물 '나'의 동정적인 태도에 기인한다. '달밤'에서 '나'가 주인공 '황수건'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러한데, 이러한 동정심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 황수건이라는 인물의 됨됨이

⇒ 성북동으로 이사온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만난 사람은 황수건이다. 그는 약간 모자라는 인물로 그려진다. 번잡하고 영약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에서 한일(閑逸)이 있는 시골에서 누리는 삶의 여유와 편안함을 대변해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황수건은 모자라지만, 세태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하고 돌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며, 고마운 사람에게 인사를 표할 줄 아는 착한 품성의 소유자이다. 그러한 황수건이 삶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그의 아내마저 달아나 버림으로 인해, 그의 삶 또한 고단해지고 그 애환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 줄거리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나'는 시냇물 소리와 싸아 하는 술바람 소리 때문엔, 그리고 황수건이란 사람을 만나고부터 이곳이 시골이란 느낌을 받는다.

우둔하고 천진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은 아내까지 거느리고 형님의 집에 얹혀살면서 학교 급사로 일하던 중 일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쫓겨난다. 그는 현재 원(정식) 배달원이 떼어 주는 20여 부의 신문을 배달하고 월 3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보조 배달원으로, 그의 유일한 희망은 원 배달원이 되는 것이다.

그는 '나'와 가깝게 지내면서, 집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우두(牛痘)를 맞지 말라, 개를 키우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실속 없는 참견을 한다. 그러나 그의 순진한 성격을 아는 '나'는 그의 참견을 끝까지 받아 준다.

그런데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으나 원 배달은커녕 '똑똑치가 못하니까' 보조 배달원 자리마저 떨어지고 만다. 황수건은 '나'에게 하소연을 한다. '나'는 그의 처지가 하도 딱해서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돈 3원을 준다. 한동안 그는 참외도 가져오고 포도도 훔쳐 오는 등 '나'의 집에 잘 들렀으나, 참외 장사도 실패하고 끝내는 동서(同壻)의 등쌀을 견디지 못한 그의 아내마저 달아난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달만 쳐다보며 서툰 노래를 부른다. 전에 볼 수 없던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나'는 그를 부를까 하다가 그가 무안해 할까봐 얼른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다. 쓸쓸한 달밤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돌워 주는 것이다.

(나)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뿍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 한다.

보니, 핫피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뎁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았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겠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걸르지 않고 잘 옵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류?” / 한즉 또,

“늦지도 않습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꼭 옵쇼?” / 한다.

“당신이 돌을 때보다 세 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 하니 그는 머리를 벽적벽적 긁으면서,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낸다.

(라) 웬 사람 하나가 날새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꿈쩍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1. 위 작품에서 ‘황수건’과 ‘나’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교양 있는 어휘를 구사한다.
- ② ‘나’는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며 말을 한다.
- ③ ‘황수건’은 비표준어를 사용한다.

- ④ ‘황수건’은 하층민의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
- ⑤ ‘황수건’은 급실거리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한다.

2. ㉠~㉤ 중 황수건의 성격을 드러내는 언행이 아닌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 (가)~(라)에서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의 단정적 평가가 드러나는 말을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오뉴월인데도 “평양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등, 아무튼 그가 애깃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먹기.”라고 하면서 평생소원은 자기도 원 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말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 한다. /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이오.”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함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의 말로,

“요즘 같은 따듯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리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라)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 났습쇼.” / 한다.

“왜 그렇소?” /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덥쇼. 아 삼산 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덥쇼, 그걸 모르겠거든덥쇼.....”

한다. 나는, / “그렇게 옹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마)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4. 위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인물간의 외적갈등보다는 심리적 갈등이 지배적이다.
- ② 상황 판단이 서투른 인물의 어수룩함이 웃음을 자아낸다.
- ③ 작품 내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다.
- ④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천진난만한 순박함이 드러난다.
- ⑤ 인물들은 서로 다른 계층으로 상이한 사회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5. 위 작품에서 서술자가 '황수건'에게 대하는 태도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의 처지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낀다.
- ② 그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도 즐거워한다.
- ③ 그의 따뜻한 품성에 감동하며 도와주고자 한다.
- ④ 그의 소박한 꿈이 실현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 ⑤ 그의 엉뚱한 이야기에도 무조건 동조하고자 한다.

6. 다음 중 ㉠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황수건이 찾아오면 감사를 표하기 위해
- ② 포도값을 대신 물어주고 얻은 포도이기에
- ③ 황수건의 순박한 인정이 담긴 선물이기에
- ④ 다섯 송이 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이기에
- ⑤ 황수건을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 보는 집엔덥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덥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덥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

“왜?” / “막 깨물라고 덤비는걸덥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 “그놈의 갠 그저, 한번, 양떡을 맥여 대야 할 텐데.....”

(나)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푹푹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 한다. /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이오.”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다)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기어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번은 도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 말을 못 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 말을 연습하였다. (중략)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 나 오고 만 것이다.

(라)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던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마)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깃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 “사.....게.....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를 부르며 큰길기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 “수건인가?” /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격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7. 다음 중 서술상의 특징이 위의 작품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②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www.namuacademy.com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김소월, <초혼>

- ③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 비이삭이 문제리 - 박재삼, <흥부 부부상>

- ④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정지용, <향수>

- 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
다. - 백석, <여승>

8. 위 글을 읽은 '황수건'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수룩한 행동과 상식에 벗어난 말이 웃음을 자아낸다.
- ② 인물의 계속되는 불운한 삶을 통해 비극성을 느낄 수 있다.
- ③ 못난 인간형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순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고 있지는 않나 깨닫게 해준다.
- ⑤ 삶에 대한 집착이 크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아 성실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

9. (마)에 드러나는 배경의 분위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환상적 ② 애상적 ③ 관조적
- ④ 낭만적 ⑤ 토속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렇소, 신문이오?"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덱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엇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뽀뽀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노라고 수고했쇼."
(나)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덱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
"왜?" / "막 깨물랴고 덤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낸다.

"그놈의 갠 그저, 한번, 양떡을 맥여 대야 할 텐데....." /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레로 작고 가느다랗다.

"어서 곤할 텐데 가 자시오."

(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빠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라)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 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어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마)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술은 눈물인가 한승인가)."

를 부르며 큰길기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 나는, /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격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밭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10. 위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다.
- ② ㉡과 ㉢에는 순박한 인정이 담겨 있다.
- ③ ㉢은 선물로 주기 위해 훔쳐온 물건이다.
- ④ ㉡은 '나'에 대한 은근한 순정의 열매이다.
- ⑤ ㉡과 ㉢은 황수건의 어수룩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11. (마)에서 밑줄 친 ㉣의 기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비극적인 현실 부각
- ② 인물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강조
- ③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 형성
- ④ 인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분위기 조성
- ⑤ 인물의 삶과 어우러져 애상적인 분위기 조성

12. 위 작품에서 드러나는 '나'와 '황수건'의 소통 방식의 차이점과 그 특징을 서술하십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퍽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을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핫피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죠.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뎡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었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나)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의 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돌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리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중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큼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작품 내부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가)에서 황수건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충실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 ③ (가)의 대화를 통해 ‘나’는 신분과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해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다)의 일부 사건에 대한 암시가 드러난다.
 - ⑤ (다)에는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인 논평이 드러난다.

14.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황수건의 신분을 드러내는 말투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1. 3가지로 나눠서 서술할 것.
2. ‘제기, 죄꼬만, 개와집, 댁입쇼, 겠쇼’ 등의 낱말을 예로 들어 서술할 것.

15. (나)를 통해 인물에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한 잔 먹세그러. 또 한잔 먹세그러, 꽃 꺾어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러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역새풀, 속새풀, 떡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 바람 불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위에 원숭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하리
 - ②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알미오랴.
 뉘온 님 오며는 꼬리를 뽀뽀치며 뉘락 나리 뉘락 반겨서 내닷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머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
 - ③ 당시(當時)에 녀던 길힐 멧해를 바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녀던 마음 마로리
 - ④ 굵병이 매암이 되야 나래 돌쳐 나라 올라
 노프나 노픈 남게 소리는 조커니와
 그 우희 거미술 이시니 그를 조심하여라.
 - ⑤ 꿋도리 저 꿋도리 여엿부다 저 꿋도리
 어인 꿋도리 지난 달 새난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이 슨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사창(紗窓) 여 인 잠을 살드리도 깨오난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 에 내 뜻 알리난 저뿐인가 하노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옛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한다.

“그럼, 전옛 사람은 어디를 맡았고?”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맡았나 봅니다.”/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이오.”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나)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즈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장사를 할 텨덱쇼?”/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겡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덱쇼.”/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다)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하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16. ㉠에 대해 ‘나’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편일 수 있지만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 ②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는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③ 그를 제대로 아시나요? 충분히 원 배달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④ 똑똑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일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은 야박하네요.
- ⑤ 모르시겠지만 그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조 배달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17. ㉡을 통해 드러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심리와 행동의 불일치로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을 품게 한다.
- ② 인물의 대인관계를 통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믿음을 준다.
- ③ 인물의 장점을 드러내 우호적인 생각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 ④ 인물의 생각과 외부의 평가의 차이를 드러내 인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필연적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8. 위 글에서 ㉢이 조성하는 분위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겠다. //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벵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겠다.

- 이수복, 봄비

- ② 너를 부르마
불러서 그리우면 사랑이라 하마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아도
내 가장 가까운 곳
나와 함께 숨 쉬는
공기여
시궁창에도 버림받은 하늘에도
쓰러진 너를 일으켜서
나는 숨을 쉬고 싶다.

내 여기 살아야 하므로
 이 땅이 나를 버려도
 공기여, 새삼스레 나는 네 이름을 부른다.

- 정희성, 너를 부르마

③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풀고 나서
 우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섰다. //
 이봐
 내겐 꽃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쩐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주며
 이것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가 아닌가
 어쩐가

- 김지하, 무화과

④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굽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털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 김기림, 연륜

⑤ 비바람 험살갓게 거쳐 간 추녀밑 --
 날개 찢어진 늙은 노랑나비가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찢긴 나래의 맥이 풀려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 수 없는 슬픔에
 물고 있는 맨드라미조차 소태 맛이다.//
 자랑스러운손 화려한 춤재주도
 한 옛날의 꿈 조각처럼 흐리어
 늙은 무녀(舞女)처럼 나비는 한숨진다.

- 윤곤강, 나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 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수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 수건이라고 놀리어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에서 노랑 수건 하면, 다 자기 줄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 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지껄이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 주었다.

(나)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말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목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19. 위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서술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는 작품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인물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살피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안과 밖을 넘나들며 인물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작품 안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에 대해 관찰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20. ㉠의 역할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밝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리
 흰 옷깃 여머머며 가옵신 임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의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햇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입아.

- 서정주, 귀촉도

② 거문고 타자하니 손이 아파 어렵거늘
 북창송음(北窓松陰)에 줄을 엮어 걸어두고
 바람의 제우는 소리 이것이야 듣기 좋다

- 작자미상

③ 승기자를 엮지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내 몸에 이할 대로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는 불목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키와
 주색잡기 모두하여 돈 주정을 무진하네
 부모조상 돈망하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흥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짚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

- 작자미상, 우부가

④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희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 김중삼, 북 치는 소년

⑤ 굶주리는 마을 위에 놀이 뒀다.
 화안히 곱기만 한 저녁놀이 뒀다//
 가신 듯이 집집이 연기도 안 오르고
 어린것들 늙은이는 먼저 풀어져 그대로 밤자리에 들고//
 끼니를 놓으니 할 일이 없어
 신네도 나와 참 고운 놀을 본다//
 원도 사또도 대감도 옛같이 없잖아 있어
 거들어져 있어//
 하늘의 선물처럼
 소리 없는 백성 위에 저녁놀이 뒀다.

- 유치환, 저녁놀

21. ㉠과 단어형성 방법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햅쌀 ② 첫날밤 ③ 시누이
 ④ 공부하다 ⑤ 뒤바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 꽤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을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 햇피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오?”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뎡쇼, ㉢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겐쇼. 아, 내가 알었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나) “그런뎡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뎡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뎡쇼.”
 하고 자기 팔을 걸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한다.
 ㉣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 냈습쇼.”/한다.
 “왜 그렇소?”/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뎡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한다. 나는,
 ㉤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22. 위 글을 읽고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 집단과 계층으로 구성되며 이들 집단과 계층은 나름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를 (㉠)라고/이라고 하는데, 계층, 성별, 학력, 직업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언어의 변이 형태를 말한다.

(가)에서 황수건은 합쇼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이며 굽실거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고, ‘나’는 (㉡)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고 대우를 해 주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23. (나)와 <보기>에서 보이는 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봤지? 자치회는 이걸루 끝났다.”
 “그래, 이영래가 오늘부터 우리 반 급장이다.”
 “반대하는 놈들은 우리 반이 아니야.”
 영래는 만족에 가득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들 밖으로 집합. 야 좋아야, 집합시켜서 오목내 다리 밑으루 내려가.”
 나는 환성을 울리며 밀려 나가는 애들의 뒤를 따라 나갔고, 우리 뒤에서 좋아가
 “빨리빨리 움직여.” 어찌구 하며 고함치는 소리가 들었다. 석환이와 몇몇 아이들이 꾸물거리는 걸 보고 영래가 뒷짐을 지고 서서 좋아에게 말했다.
 “야, 단체 행동에서 빠지는 애는 잡아다 조겨.”

- ① (나)와 <보기> 모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격식체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나)와 <보기> 모두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회 계층에 대한 추리가 가능하게 한다.
- ③ (나)는 문답형식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고, <보기>는 구성원 모두가 동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④ (나)는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대등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보기>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⑤ (나)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 소통의 단절을 드러내고, <보기>는 명령 어법을 통해 소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앞뒤 따지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② ㉡ - 황수건이 정식 신문 배달부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③ ㉢ - 초면에 실례가 될 수 있는 언행으로 인물의 천진함이 드러난다.
- ④ ㉣ -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 - 상대방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고 인물의 여수룩함이 드러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 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 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기어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은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 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고자이마스카(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비가 옵니다). 유키가 후리마스카(눈이 옵니까)? 히히.....”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사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나)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깃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끼를 올라오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문안해 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휘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遺憾)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25. 위 글 (가)와 (나)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해학성이 강조되고, (나)는 비극성이 강조된다.
- ② (가)는 이야기하기의 방식으로, (나)는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서술된다.
- ③ (가)는 서술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이고, (나)는 서술자가 직접 목격한 일이다.
- ④ (가)는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고, (나)에는 시간적 배경이 부각되어 있다.
- ⑤ (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나)는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26. 위 글 ㉠~㉣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틀린 것은?

- ① ㉠ : 틀림없이 언제나.
- ② ㉡ :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
- ③ ㉢ : 그 자리에서
- ④ ㉣ : 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낯이 없다.
- ⑤ ㉣ :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나)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짹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햇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뎡쇼, 왜 이렇게 죄고만 집을 사구 와 겐쇼. 아, 내가 알았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을 일시에 히죽거리며,

“뭇입쇼, 이게 제 업인뎡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깧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다)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아홉 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소?”

물으니,

“자연 그럽쇼.”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 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수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 수건이라고 놀리어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에서 노랑 수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깟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 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지껄이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 주었다.

(라) 하루는 바깥마당에서부터 무어라고 떠들어 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겐쇼? 아, 저도 내일부터 원 배달이 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며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렇게 무어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 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 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렁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마)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옛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옛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러다가 똑똑치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시다.”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하니,

㉔“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 걸이오.”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었고 말했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이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 이태준, <달밤>

27. 위 글 ㉔에 쓰인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밥그릇을 빼앗긴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놀고먹지는 않았습니다.
- ②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③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 ④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⑤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28. 위 글 ㉑~㉔ 중 시간상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 ① ㉑ ② ㉒ ③ ㉓
- ④ ㉔ ⑤ ㉕

29. 위 글의 인물의 발화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나’는 ‘하오체’의 말투를 써서 황수건을 낮잡아 보았다.
- ② 황수건은 ‘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절제된 태도로 말하였다.
- ③ 황수건은 ‘합쇼체’의 말투를 써서 ‘나’를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였다.
- ④ ‘나’와 황수건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 ⑤ ‘나’는 ‘황수건’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휘를 구사하여 신분적 차이를 부각하였다.

30. 위 글 (가)~(마)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가)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인 황수건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 인물의 외양을 희화화(戲畵化)하여 풍자하고 있다.
- ③ (다) - 인물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 황수건의 내적 갈등이 표면화된다.
- ⑤ (마) -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됨으로써 ‘나’는 ‘처음 보는 사람’과 대립하게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㉑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뒤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 -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중략>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㉒망아지만한 개가 있는덱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압쇼.”

“왜?”

“막 깨물라고 덤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떡을 멕여 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는데 보니, ㉓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중략>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이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㉔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중략>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㉕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루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중략>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31. 이 글의 밑줄 친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㉑ :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으로 가난한 동네로 그려지고 있어.
- ② ㉒ : 허풍이 센 황수건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 ③ ㉓ :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운 황수건의 외모로 황수건의 삶과 조응되고 있어.
- ④ ㉔ : 이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으로 삭막한 애상에 대한 원망이 서려있어.

⑤ ㉔ : '말하기의 방식'으로 서술자가 직접 보고 겪은 바를 상세하게 독자에게 전달한다고 보아야.

32. 이 글의 달밤과 <보기>의 '달빛'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보기>

"아랫마을서 오셨소?"
하고 물었다.
"네, 달이 하도 밝기에....."
"음! 참 밝소."
허연 수염을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각각 말이 없었다. 푸른 하늘은 먼 마을에 덮여 있고, 들은 달빛에 젖어 있었다.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안으로 통한 문소리가 나고 얼마 후에 다시 문소리가 들리더니, 노인은 방에서 상을 들고 나왔다. 소반에는 무청김치 한 그릇, 막걸리 두 사발이 놓여 있었다.
"마침 잘 됐소, 농주(農酒) 두 사발이 남았더니....."
- 윤오영, 『달밤』

- ① 이 글의 달밤과 '달빛' 모두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이 글의 달밤과 '달빛' 모두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③ 이 글의 달밤은 어두운 현실에서의 희망을 말하고 있으며, '달빛'은 따뜻한 인정미를 함축한다.
- ④ 이 글의 달밤은 작품의 주제와 상반되는 배경이고, '달빛'은 작품의 주제와 일치하는 배경이다.
- ⑤ 이 글의 달밤에는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달빛'에는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 있지 않다.

33. <보기>는 이 글에 대한 평론이다.<보기> 밑줄 친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보기>

소설 '달팽이'는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사건을 비극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물의 착하고 순수한 성격이 고귀한 것으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 즉 모자란다고 하여 결함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삶이 좌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슬프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결국 황수건처럼 착하지만 모자란 듯이 평가되는 사람도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고, 그런 사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현실이 도래해야 이 아이러니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달팽이 각시는 자기를 데려온 관원의 하인에게 반지, 비녀 등을 주면서 사정을 봐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붙잡혀 가게 되었다. 이에 총각은 애태우다가 죽어서 파랑새가 되고, 달팽이 각시도 참빛이 되었다.
『달팽이 각시』
- ② 아이들이 커 아버지를 찾자 당금 아기는 예전에 스님이 준 박씨를 심어 그것의 줄을 따라 금강산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스님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당금 아기는 삼신이 되고 아이들은 제석신이 되었다.
『제석본 풀이』

③ 공방의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 돈을 중하게 여기고 곡식을 천하게 여기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장사 잇속만을 좇게 했다.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는 이의 탄핵을 받고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다.

『공방전』

④ 홍길동은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 판서를 제수받고 조선을 떠난다. 조선을 떠난 홍길동은 울도국이라는 나라를 정벌하여 왕위에 오른 후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다가 생애를 마감한다.

『홍길동전』

⑤ 심청은 심봉사의 일이 궁금하여 왕에게 맹인 잔치를 열도록 권한다. 맹인 잔치에서 심청과 심봉사는 다시 만나게 되고 딸을 만난 기쁨에 심봉사는 눈을 뜬다.

『심청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껍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읍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류?"
한즉, 또
"늦지도 않굽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꼭 읍쇼?"
한다.
"당신이 돌릴 때보다 세 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하니 그는 ㉠ 머리를 벽적벽적 굽으면서,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뎡쇼, 선생님?"
"왜 그류?"
"삼산 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습쇼?"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쇼."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굽쇼, 운동을 합쇼."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갔쇼. 다시 써 달라고 졸라뎡쇼.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뎡쇼, 이 녀석이 막 불끈뎡니다그려. 그래 한번 싸움 해야 할 뎡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뎡벼들 뎡쇼..... 허."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썩쇼, ㉡ 엿저녁엔 큰 돌맹이 하나를 굴러다 삼산 학교 때문에 다 났습쇼. 그리구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뎡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러다 버렸는지, 뻘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www.namuacademy.com

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뺑을 탁 치더니,

"그런덱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쇼."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덱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덱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 냈습쇼."

한다.

"왜 그렇쇼?"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덱쇼, 아 삼산 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덱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쇼."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쇼?"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턱덱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상사 막, 합쇼. ㉢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덱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긱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러 보며 먹었다.

34. 이 글에서 황수건이 자신에 대해 도움을 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황수건의 따뜻한 인간미를 드러내는 소재(자연물)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35. ㉥의 상황을 한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동상이몽(同床異夢)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점입가경(漸入佳境) ④ 마이동풍(馬耳東風)
- ⑤ 고진감래(苦盡甘來)

36. 황수건이 ㉡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3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37. 다음 중에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황수건의 아내는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을 했다.
- ② 삼산학교의 새 급사는 황수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 ③ '나'는 황수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장사 밀천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 ④ 황수건이 신문배달에서 해고된 이후 삼산학교에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 ⑤ 황수건이 삼산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내와 함께 분가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겸연쩍어하는 황수건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 ② ㉡ :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거 없이 엉뚱한 데다 원인을 찾고 있다.
- ③ ㉢ :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황수건이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허풍스러운 면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 '나'의 황수건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애정과 감동을 함축하고 있다.

39.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인물간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는 1인칭 시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변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있다.
- ③ 인물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현재법을 구사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④ 이 글은 서술자인 '나'와 황수건의 관계보다는 황수건의 인물됨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간결한 문체와 대화 위주의 이야기 서술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40. 다음 글에서 이 글을 읽고 난 후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진무구하고 선량한 인물이 각박한 현실로 인해 패배하는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현실에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도 한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 ③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참외장사를 시작하는 황수건의 모습에서 각자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 ④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인정이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야.
- 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을 통해 작가의 휴머니즘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섯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

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 대여섯 송이를 종이로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아 냈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게.....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1)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1) 사계와 ~ 다메이키카.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뜻.

(나)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을 가제 지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두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 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 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러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꿀은 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향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 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 시장철 두벅두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뒀어졌다. 꿈무늬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러다. 총춧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처 천만예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 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 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꺾꺾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는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예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똥하면 미끄러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얹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 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 물은 뼈를 찌렀다.

"그래 대체 기르킨 누가 기르구?"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의부라고 전 망나니예요. 철들어서부터 맛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맛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집 꼴이 무어겠소. 열여덟 살 때 집을 뛰쳐나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낫세론 동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훑힐 듯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A] "모친의 친절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삼

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위적거릴수록 몸을 견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펴이나 흘렀었다. 옷째 짙은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 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윈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버지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를 묻고 보면 이력저력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래다?"

동이의 탐탁한 등머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원."

조선달이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했던가. 저 끝에 제법 새끼를 얻었던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41. ㉠ ~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이군.
- ② ㉡ 허장성세(虛張聲勢)라고 볼 수 있어.
- ③ ㉢ 인면수심(人面獸心)하는 모습이군.
- ④ ㉠ 주마간산(走馬看山)을 느낄 수 있어.
- ⑤ ㉢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군.

42. '그(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를 고려할 때, '나'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제 어머니는 지상에 아니 계십니다. 물감상자 속의 물감들이 놓아 주는 가장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 강우식, <어머니의 물감상자>

- ②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셔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 ③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 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 김명인, <그 나무>

- ④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 이용악, <그리움>

- 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www.namuacademy.com

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43. (가) ~ (나)의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달밤'은 희망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나)의 '달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 ② (가)의 '성북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도시 빈민의 의지를 부각한다.
- ③ (나)의 허생원이 걷는 길은 허생원의 삶의 여정을 짐작하게 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④ (나)의 배경은 부자관계의 확인이라는 사건 진행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 ⑤ (가), (나)의 배경은 모두 주제 형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44. (가) ~ (나)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서술자는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 ② (나)의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가), (나)의 서술자는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다.
- ④ (가), (나)의 서술자는 작품 속에 개입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가), (나)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45. (가)와 (나)의 작가가 구인회 정기모임에서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효석 :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의 소설 <달밤>을 읽고 우둔하지만 순수한 주인공을 보고 왠지 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② 이태준 : 저도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서정적이며 낭만적 이미지를 통해 소설이 아닌 마치 한 편의 시를 읽은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 ③ 이효석 : 저는 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 ④ 이태준 : 결말 부분의 나귀를 통해 그 주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소설 <달밤>을 통해 정이 사라져가는 각박한 세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 ⑤ 이효석 : <달밤>에서 일제 강점기의 참담한 현실을 묘사하고 그 현실에 대응해 가는 주인공을 통해 당신이 제기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껍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오?”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뎁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겐쇼. 아, 내가 알았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을 일시에 히죽거리며,

“뭇입쇼, 이게 제 업인뎁쇼.”

(나)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옛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오?”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옛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러다가 뚝뚝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시다.”

한다.

50.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인물의 특징을 행동과 외양 묘사를 통해 보여준다.
 - ② (나) -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 주인공의 몰락 상황을 들려주고 있다.
 - ③ (다) - 주인공의 다른 좌절을 소개해 비극을 강화시킨다.
 - ④ (라) - 주인공에게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마) - 주인공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51. 이 소설을 읽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한 두 문장으로 간략히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중략> 보니 할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죠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데, 왜 이렇게 죄고만 집을 사구 와 겐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대가리다. <중략>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뎅을 맥여 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나]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 괜찮았던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었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라]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겁을 깬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게.....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뜻의 가사임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이태준 - <달밤>

[마] 잠옷 바람으로 뜰을 어정거리면서 달빛을 즐기다가 한기가 들면 방에 들어와 차 한 잔 마시고 걸옷을 걸치고 다시 밖으로 나간다. 달은 어느새 중천에 떠 있다. ㉣ 달밤에는 나무와 바위들도 달빛을 머금어 그 모습들이 한층 그윽해 보인다. <중략>

밤이슬로 옷이 눅눅해져 방 안으로 들어온다. 방 안은 방 안대로 창호에 비친 달빛으로 넘치고 있다. 등잔불이 소용없다.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창문을 연다. 잠자리에, 베개 위에 달님이 들어오신다. 달빛을 베고 누워 중천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본다. ㉤ 달도 나를 내려다본다. 아, 달빛에서 향기가 나네!

법정 - <달에서도 향기가 나네>

52. (가) ~ (라)에 대한 언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상황은 ‘엮힌 데 뉘친 격’이라 할 수 있다.
- ②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다.
- ③ [라]는 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④ 서술자는 ‘황수건의 대화’를 통해 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황수건의 균형 잡히지 않은 외모는 그의 정신적 미숙함과 호응된다고 할 수 있다.

53.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달빛’은 각박한 현실을 상징하는 동시에 주동적 인물의 불길한 운명을 암시한다.
- ② ㉡의 ‘달’을 황수건의 처지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애상적이고 비극적인 느낌을 주는 달로 생각할 수 있다.
- ③ ㉢의 ‘달밤’에서 ‘밝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생각하면, 다소 희극적 성격의 인물이기도 한 황수건이 비극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으리라고 독자들이 전망할 수도 있다.
- ④ ㉣의 ‘달밤’은 달빛 아래의 만물이 고요하고 깊이가 있게 느껴지는 밤이다.
- ⑤ ㉤의 ‘달’은 화자와 서로 교감이 되는 달이며, 그 달빛에서 화자가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는 달이다.

54. 다음 그의 밑줄 친 어휘를 화살표 다음의 말로 바꾸어 쓰려 한다. 의미로 볼 때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비 → 상호가 찍힌 옷
- ② 장구대가리 → 장구머리
- ③ 달포 → 두어 달
- ④ 직각하였다 → 곧바로 깨달았다
- ⑤ 중천 → 하늘 한 복판

55. [다]글에서 '나'가 '포도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는 이유'를 찾아, [다]글에 나오는 추상명사 하나를 이용하여 쓰되, 10 ~ 25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5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을 보여준다.
- ② ㉡ - 세상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황수건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③ ㉢ - '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보여준다.
- ④ ㉠ - 불합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 ⑤ ㉢ - 황수건의 괴로운 심정을 보여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었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이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함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나) 나는 그날 그에게 돈 ㉠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던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라)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마)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 노래는 그

57. 글(가) ~ (마)에 대한 감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황수건을 동정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물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작가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황수건을 통해 각박한 세상을 비판하는 것 같아.
- ④ '달밤'이라는 배경은 황수건의 슬픔을 극대화 시키고, 독자가 그런 애상적인 분위기에 젖어들게 해.
- ⑤ 1930년대의 각박한 현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겠어.

58.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가) ~ (마)에 드러나는 핵심 갈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갈등은 인물과 인물 또는 인물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인물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하나의 작품은 단일한 갈등 구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① 황수건과 새로 등장한 배달원 사이의 외적 갈등
- ② '나'와 황수건 사이의 갈등
- ③ 우직하고 천진한 황수건과 사회라는 환경 사이의 갈등
- ④ 황수건으로 인한 '나'의 내면적 갈등
- ⑤ 황수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 다음을 읽고 맞는 답이나 답의 번호를 표기하시오.

(가)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 하는 술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

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㉞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옛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옛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㉞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러다가 똑 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니다.”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다) 나는 그날 ㉞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던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㉞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아 놓았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게.....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㉞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푹푹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달밤’, 이태준

59. 서술자가 ㉞에 대해 ㉞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둔하고 천진스러운 그의 눈 때문에
- ② 참외 장사를 금세 망칠 정도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 ③ ‘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해 준 인물이기 때문에
- ④ 말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해 결국 보조 배달부에서 떨어진 일 때문에
- ⑤ 바로 잡힐 줄도 모르고 포도를 훔쳐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단순함 때문에

60. (다)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쓰인 소재 2개(①은 2음절, ②는 1음절)를 찾아 그 기능을 각각 한 문장으로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샅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샅 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샅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샅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저문 강에 샅을 씻고', 정희성

- (1) 공통 소재 ①(2음절의 단어)를 찾아 그 기능을 한 문장으로 비교하여 서술
- (2) 공통 소재 ②(1음절의 단어)를 찾아 그 기능을 한 문장으로 비교하여 서술

6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전개하고 있다.
- ② 작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
- ③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④ 작품 안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서술하고 있다.
- ⑤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62. ㉠ ~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새로 이사 온 성북동에 대한 인물의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 :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황수건의 처지를 알 수 있군.
- ③ ㉢ :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군.
- ④ ㉣ :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한 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황수건의 인물됨을 알 수 있군.
- ⑤ ㉣ :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해 할 황수건의 마음을 헤아린 '나'의 이해심에서 비롯된 행동이군.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63. <보기>와 관련하여 위 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세계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 깨달음은 새로운 인식일 수도 있고 윤리적 성찰일 수도 있으며 심미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투사되고 용화될 때 보다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작품 수용의 결과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세계를 보다 넓고 깊은 안목에서 성찰하며,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이 바로 내면화이다. 내면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작품의 의미를 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므로 현실과 연관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 ②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여 현실의 모순을 개혁하는 선구자가 되어야겠어.
- ③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
- ④ 1930년대의 시대적 특성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다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⑤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군.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옛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오?"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옛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가)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러다가 푹푹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시다." 한다.

...(중략)...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밑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턱덱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겍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게 치는덱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러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깃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게.....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를 부르며 큰길에 쫓다스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6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치밀한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로 작품 안의 한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관찰하고 있다.

㉣ 대화와 요약적 진술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서사 전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
- ④ ㉡, ㉢, ㉣ ⑤ ㉠, ㉡, ㉢, ㉣

65. 밑줄 친 (가)와 유사한 어조가 사용된 것은?

- ① 덮어 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모로 만 벌어지는 몸도 있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삼

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봄봄, 김유정)

- ② 이 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 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중략)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루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대며 중얼거렸다. (운수 좋은 날, 현진건)
- ③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러 갖고 간 모양이니 자살을 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고만큼 뻥뻥하고서야 어디 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지껍이는 것이었다. (비오는 날, 손창섭)
- ④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히 여길 때 한 생원은 “그 깐 놈의 나라 시원히 잘 망했지.” 하였다. 한 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눈 이야기, 채만식)
- ⑤ 팔월 한가위는 투명하고 삼삼한 한산 세모시 같은 비에는 아닐는지, 태곳적부터 이미 죽음의 그림자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달에 연유된 축제가 과연 풍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토지, 박경리)

66.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위 글을 비평한 것은?

<보기>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일이다. 관점이란 쉽게 말한다면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점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비평은 매우 영향력 있는 몇몇 관점들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 ‘소설은 풍속(風俗)의 재현(再現)’이라는 관점을 취한다면, 외적인 정보를 끌어들이어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① 소설은 그 근본이 이야기이므로 문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글은 방언을 통해 글의 생동감을 더하고 있어.
- ② 소설은 곧 작가의 의식 세계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 글에는 근대화에 대한 작가 이태준의 생각이 묻어나 있어.
- ③ 소설의 구조와 현실의 구조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이 글은 효용성과 이익의 문제로만 규정되는 당시의 도시적 삶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 ④ 소설을 읽는 일은 소설 속 인물과의 가상 대화를 의미하는데, 이 글은 등장인물의 성격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 ⑤ 소설의 본질적 기능은 주제를 통해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이 글은 독자에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 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서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퍽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한다.

보니 함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뎡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았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대 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쇼.”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

“뭇입쇼, 이게 제 업인뎡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중략)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뎡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겠쇼, 가을부턴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님들보다 낫게게 치는뎡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겠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새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러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아 놓았다. 그런데 포도원끼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67. 밑줄 친 ㉣의 상황에 대해 첫째, ‘무안해할 일’이 무엇인지 모두 찾아 쓰고, 둘째 ‘나’의 행동으로부터 알 수 있는 주인공에 대한 ‘나’의 태도를 쓰시오.

68. 다음 글에 나타난 ㉠달밤과 위 글의 밑줄 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복을 고비로 장마가 끝나더니 밤으로는 달빛이 하도 좋아 쉬이 잠들 수가 없다. 앞산 마루 소나무 가지 사이로 떠오르는 달은 더없이 정다운 얼굴이다.

잠옷 바람으로 뜰을 어정거리면서 달빛을 즐기다가 한기가 들면 방에 들어와 차 한 잔 마시고 걸옷을 걸치고 다시 밖으로 나간다. 달은 어느새 중천에 떠 있다. ㉠달밤에는 나무와 바위들도 달빛을 머금어 그 모습들이 한층 그윽해 보인다. '쓱쓱' '쓱쓱' 새가 내 머리 위로 몇 바퀴 맴돌다 날아가고, 저 건너 숲 속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에 밤은 더욱 이슬하다.

밤이슬로 옷이 눅눅해져 방 안으로 들어온다. 방 안은 방 안대로 창호에 비친 달빛으로 넘치고 있다. 등잔불이 소용없다.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창문을 연다. 잠자리에, 베개 위에 달님이 들어오신다. 달빛을 베고 누워 중천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본다. 달도 나를 내려다본다. 아, 달빛에서도 향기가 나네!

- 법정, '달빛에서도 향기가 나더라' 에서

- ① ㉠은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은 글 전체를 서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데 비해, ㉡은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 ③ ㉠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포근한 정감을 느끼게 한다.
- ④ 착하고 순수하지만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황수건의 쓸쓸함이 ㉡에 잘 드러난다.
- ⑤ ㉡에는 주인공이 처한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그의 천진한 성격에서 빛어지는 묘한 대비가 함축적으로 드러난다.

69.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다양한 일화를 나열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역설적 기법을 통해 사건을 비극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풍자적 어조를 통해 사회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⑤ 보여주기(showing)의 방식만으로 사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70. 다음 중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삼산학교 학생들은 황수건을 매우 좋아한다.
- ② 황수건은 참외 장사에 이어 포도 장사까지 망했다.
- ③ 각박한 생활환경 때문에 서울에는 못난이들이 없다.
- ④ 황수건과 그의 아내는 평소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 ⑤ '나'는 우둔하고 천진스러운 황수건을 통해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71. 이 글을 감상한 후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통제 없이 완전히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황수건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인물임이 분명해.
- ② ㉡로 미루어 보아 황수건은 능청스럽고 녀석 좋은 사람인 것 같아.
- ③ ㉡를 통해 황수건은 고마운 사람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 ④ 황수건의 생김새를 보고 '나'는 그가 하는 것도, 생김새도 모두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 ⑤ 이 글이 '못난이'들이 소외되고야 마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면 황수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성북동으로 이사한 나는 신문보조 배달부 황수건과 친해지고 황수건의 소망이 원배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원배달이 될 것이라고 기쁨에 들떠 다녀간 며칠 뒤 다른 사람이 신문 배달을 하러 온다.

"왜 전옛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오?" /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 한다.

"그럼, 전옛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러다가 뚝뚝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니다." /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 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 수건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 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 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오래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곧 자기류의 만담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A] 「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 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은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사이마쓰카..... 히히, 아메가 후리마쓰. 유키가 후리마쓰카. 히히.....[선생님, 히, 안녕하십니까..... 히히,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히히.....]"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쓰카.....[안녕하십니까, 눈이 옵니까.....].”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려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중략 줄거리> 한동안 소식이 없던 황수건은 어느날 나를 찾아와서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현재 급사로서 있는 사람의 근력을 알아보고 싶다는 말을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내가 생각해 냈습죠.” / 한다.

“왜 그렇소?” /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덱쇼, 아 삼산 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덱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⑥“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턱덱쇼.”

한다. / “무슨 장사?”

⑦“아, 방학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터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갑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덱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⑧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⑨“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B]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술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C] “웬 ⑩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증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긱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목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⑪“사.....게.....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술.....은.....눈.....물인가 한숨.....인.....가.]”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⑫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격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7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야박하고 냉정한 세태가 암시된다.
- ② ㉡ :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 : 치밀하지 못하고 허풍스러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다.
- ④ ㉣ : 상대방의 호의에 감사하는 소박한 성품이 드러난다.
- ⑤ ㉤ : 삶에 대한 인물의 고뇌와 슬픔을 대변한다.

73. <보기>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십시오.(완전한 문장의 형식으로 맞춤법에 맞게 쓸 것.)

<보기>

소설의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서술자의 위치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말하고, 서술자의 태도는 인물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느냐, 인물 외부에서 관찰만 하느냐를 말한다. 그런데 동일한 서술자라 할지라도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명백한 서술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 (1) 위 글의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 태도를 쓰시오.
- (2) 사건 전달 방식에 주목하여 [B]와 [C]에 나타나는 서술상의 차이점을 서술하십시오.

<조건>

- 1. (2)는 [B]와 [C]의 사건 전달 방식을 각각 밝힐 것.

74.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가는 간혹 지적으로 열등한 인물을 등장시켜 시대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한다. 상식에 따르지 않는 인물의 바보스런 행동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이 과정에서 권위로 포장된 위선이나 사회적 모순이 폭로되는 것이다. [A]에 나타난 '황수건'의 바보스런 행동 역시 일제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 '시학관'은 일제의 정책을 대면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겠군.
- ㉡ '선생들'은 '수건'에게 사회적 상식을 강요하는 인물들이군.
- ㉢ '시학관'을 상대로 일본말을 연습한 '수건'의 행동은 일제의 정책에 대한 작가의 야유를 내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군.
- ㉣ '수건'이 '선생들'과 달리 '시학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겠군.
- ㉤ '수건'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는 시대의 모순을 의도적으로 폭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7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대화와 서술을 병행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ㄴ. 초점화된 장면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ㄷ. 인물의 추리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ㄹ.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어휘를 통하여 사회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ㅁ.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하여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76. 위 글의 [달빛]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울한 시대 현실을 드러낸다.
- ② 인물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한다.
- ③ 인물의 천진한 동심을 자극한다.
- ④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을 부각한다.
- ⑤ 현실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의식을 함축한다.

7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과 ㉡은 모두 '수건'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한다.

ㄴ. ㉢은 미래에 대한 '수건'의 기대감을, ㉣은 과거에 대한 '수건'의 반성을 함축한다.

- ㄷ. ㉠은 '수건'에 대한 동정심을, ㉡은 '수건'에 대한 배려심을 내포한다.
- ㄹ. ㉢은 ㉣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 ㅁ. ㉣은 ㉢에 비해 '수건'에 대한 '나'의 객관적 입장을 강화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터덱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겍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덱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들어 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아 놓았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게.....와 나.....미다까 다메이.....키.....카..... .”

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나) 아니, 그것은 일어났던 게 아니다. 마치 가랑이 사이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나를 태우고 벌떡 일어선 것만 같았다. 불가해한 어떤 힘이 내게 개입돼 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확연히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거부할 수 있는 종류의 힘이 아니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침대 위에 두 발과 두 손을 디딘(!) 채로 옆에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모른 채 잠의 가면에 들썩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깊은 물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소리를 이명인양 듣고 있었다.

자!! 이제!! 가자!!

나는 아내가 잠을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장롱 서랍을 열고 옷을 꺼내 입었다. 새벽의 희부연 빛이 창문을 적시며 들어와 침대 모서리를 휘장처럼 감싸고 있었다.

안방을 나서려는 찰나에 아내가 잠에서 깬다. 때마침 아들 녀석이 눈을 비비며 제 방에서 안방으로 건너왔던 것이다.

아내는 단박에 사태를 짐작하고 차라리 냉정한 얼굴이 되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흔들리지 않는 표정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과 슬픔과 노여움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는 굵은 목소리로 내게 여자가 생겼는가, 라고 물었다. 아니라고.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아내는 내게서 무슨 말인가를 듣고자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더듬이가 되어 아내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럼 어딜 가려구요?" "그래, 어디로든 가려고 해."

"거기가 어딘데요?"

"몰라. 그냥 곧장 가 보는 거지....."

"그럼 굳이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마침내 쇠북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니, 갈 곳이 있지. 그게 어딘지는 몰라. 하지만 가야만 하는 거지."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의 장소.....라고 말하려다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체념한 죄수처럼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소리 없이 대문을 열고 나와 문 앞에서 잠시 사위를 두리번거린 다음, 도대체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낮게 낮게 발굽소리를 통기며 내닫기 시작했다.

- 윤대녕, '말발굽 소리를 듣는다'

78. <보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위 글 (가)와 (나)에 해당하는 시점을 정확한 용어로 쓰시오.

<보기>

시점(視點)이란 소설에서 대상,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또는 관점을 말한다. 소설은 이야기 형식의 문학이므로 그 속에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 즉 서술자가 있다. 이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이야기 방식이 달라진다.

(1) (가):

(2) (나):

79. 글 (가)에서 이야기를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

80. <보기2>를 참조하여 <보기1>의 (㉠)안에 들어갈 4음절의 단어를 쓰시오.

<보기1>

작가 이태준은 대체로 일상적인 사소함에 패배당하는 인간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패배주의자들에 대하여 독자가 연민을 느끼는 것은 서술자인 '나'의 동정적인 태도에 기인한다. 글(가)에서 서술자 '나'가 주인공 '황수건'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러한데, 이러한 동정심은 (㉠)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보기2>

㉠은/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뜻한다.

㉠은/는 원래 모든 인간적인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세 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입장이다.

㉠을/를 인간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라고도 한다.

81. 위 글 (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서정성과 인정미가 잘 드러나 있다.
- ㄴ. 감정의 절제를 통해 극단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ㄷ. 주로 행동, 대화를 통해 인물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ㄹ.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82. 위 글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소외된 인간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③ 일제라는 시대적 압력과 그것이 빚어내는 고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④ 상황과 대비되는 환한 달빛의 이미지가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 주고 있다.
- ⑤ 상황을 비판하는 주인공을 통해 사회 속의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83. 위 글 (가)를 읽은 후 등장인물 '황수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유천 : 황수건은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들어.
 - ② 윤호 : 황수건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도피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
 - ③ 준수 : 달빛 아래서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의 모습은 삶에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
 - ④ 재중 : 황수건과 '나'의 대화 내용 속에서 다소 허풍스러운 황수건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었어.
 - ⑤ 창민 : 황수건이 도움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보이더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퍽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었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르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로 이상으로 곱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을 일시에 히죽거리며,
 “뿔입쇼, 이게 제 업인덱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중략>

삼산 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 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곧 자기류의 만담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은 못 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쓰까..... 히히, 아메가 후리마쓰. 유키가 후리마쓰까. 히히.....[선생님, 히, 안녕하십니까..... 히히,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히히.....]”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 칠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쓰까.....[안녕하십니까, 눈이 옵니까.....]” 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 나오고 만 것이다.

<중략>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벅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는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 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샤.....게.....와 나.....미다카 다메이.....카.....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 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질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8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 '나'는 황수건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 ②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주인공의 황수건을 관찰하고 있다.
- ③ 이 소설에 나타난 서술자의 태도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④ 이 소설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서 '나'의 눈에 비친 것만을 이야기한다.
- ⑤ 서술자 '나'는 독자들로 하여금 황수건을 애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85. 마지막이 제시된 이 작품의 배경인 '달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달'과 '어두운 밤'이 어울려 황수건의 의지적 태도를 보여준다.
- ② 환한 달빛의 이미지는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 ③ '밤'을 비추고 있는 '달'은 현재 황수건의 밝은 현실을 대변한다.
- ④ '밤'의 어둠 속에서 '달'은 황수건이 소원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다.

- ⑤ '달'과 '밤'이 역설적 구조로 연결되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었다.

8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황수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지도 않은 자기소개를 할 만큼 능청스럽고 녀석이 좋다.
② 삶의 애환과 고통을 달밤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달래고 있다.
③ 듣는 사람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껄이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④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운 외양을 통해 어리석고 우둔한 성격의 인물임을 잘 보여 준다.
⑤ 현재 자신의 일에 골몰하다 다른 정황은 모두 잊어버리는 것을 통해 사리 분별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 [정답] ④

[해설] 황수건이 사용하는 방언은 '사회 방언'이다. 그의 방언은 '나'와는 다른 계층적 차이를 나타내준다.

2) [정답] ⑤

[해설] ㉔은 포도를 훔친 사실을 들켜 부끄러워 도망친 것이지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㉓㉔에서는 앞뒤 따지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성격이, ㉔㉔에서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순박한 성격이 드러난다.

3) [정답] 못난이

[해설] (가)에서 서술자 '나'는 황수건을 '못난이'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로 인해 성북동이 시골임을 느낀다고 서술하고 있다.

4) [정답] ①

[해설] 이 작품은 소설의 구성요소인 '갈등'보다는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에 초점을 두어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

5) [정답] ⑤

[해설] 서술자는 황수건을 연민과 동정, 온정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한다. 그러나 무조건 그의 말을 동조하는지는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6) [정답] ③

[해설] '다섯 송이의 포도'는 비록 황수건이 돈을 치르지 않고 훔쳐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따뜻하고 순박한 인정이 담겨 있는 소재이다.

7) [정답] ⑤

[해설] '달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⑤의 <여승>도 시적화자인 '나'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여승의 비극적인 생애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8) [정답] ⑤

[해설] 황수건은 소박한 꿈을 키워가며 사는 어수룩하며 순박한 인물이지,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나 성실하게 사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9) [정답] ②

[해설] (마)는 '달밤'이라는 배경이 황수건의 가슴 아픈 사연과 어울려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10) [정답] ⑤

[해설] 참외와 포도는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자 순박한 인정이 담긴 소재이다. 황수건의 어수룩한 성격을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11) [정답] ③

[해설] '달밤'의 배경은 아내를 잃은 황수건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드러내며 그의 비극적인 삶을 부각시키면서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12) [정답] '나'는 표준어와 한자어를 사용하며 '하오'체의 말투로 상대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방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지만, '황수건'은 비속어와 비표준어를 사용하며 '-니쇼'의 굽신거리는 듯한 말투인 사회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두 인물은 서로 다른 계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은 없다.

[해설] 서로 다른 사회 계층의 인물들이 상이한 사회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교감으로 소통하고 있다.

13) [정답] ⑤

[해설] (다)에는 사건에 대한 요약적 제시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함께 황수건이 포도를 훔쳐 온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작가의 직접적인 논평은 나타나 있지 않다.

14) [정답] 1. '제기' 등의 비속어를 사용한다. 2. '죄꼬만, 개와집' 등의 비표준어를 사용한다. 3. '댁입쇼, 겹쇼' 등의 굽신거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한다.

[해설] 황수건은 비속어와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등 하층민의 사회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니쇼'의 굽신거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15) [정답] ②

[해설] (나)는 황수건에 얽힌 우스운 일화를 소개한 것이다. 따라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성을 지닌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알미운 개'가 하는 행동을 해학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미워하여 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화자의 태도 또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6) [정답] ④

[해설] '나는 보조 배달자리 마저 쫓겨난 황수건의 처지에 안타까워하며 황수건과 같은 못난이가 살아가기에는 각박한 세상에 야속함을 느끼고 있다.

17) [정답] ④

[해설] ㉔은 학생들에게 놀림감이 되면서도 그것을 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황수건의 순진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황수건이 생각하는 것과 외부 평가의 차이를 드러내어 황수건이라는 인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8) [정답] ①

[해설] '달밤'은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배경으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픔과 이에 대한 연민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애상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①이다.

19) [정답] ⑤

[해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안에 존재하며 인물의 행동과 말에 대해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느낌이나 관점을 드러낸다.

20) [정답] ①

[해설] ㉔은 황수건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훔쳐서까지 가지고 올 정도로 '나'에 대한 정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육달 메투리'이다.

21) [정답] ②

[해설] '맨손'은 접사+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② 첫날밤은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22) [정답] ㉠ 사회 방언, ㉡ 하오체

[해설] 등장인물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방언을 통해 인물의 계층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황수건은 비속어와 합쇼체 등을 사용하여 하층민 계층의 인물임을 드러내고, '나'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교양 있는 인물임과 동시에 '하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3) [정답] ④

[해설] (나)에서는 두 인물 간의 소통이 그려지고 있는데 수건의 의 엉뚱한 이야기에 '나'가 귀를 기울여 주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인간적 교감이 느껴지는 대화가 진행된다. 반면, <보기>에서는 영래 패거리의 일방적인 선언과 명령이 내려지고 있을 뿐 상호간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보기>의 구성원들은 폭력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 동조의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4) [정답] ⑤

[해설] ㉠은 황수건의 가담찮은 말도 고맙다며 받아주는 '나'의 온정적인 태도가 드러난 부분으로, '나'의 어수룩함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25) [정답] ⑤

[해설] (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황수건에 얽힌 우스운 일화에 대한 내용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달밤에 쓸쓸한 모습의 황수건을 직접 본 일에 대한 내용이다.

26) [정답] ③

[해설] ㉢'그예'는 '마지막에 가서는 기어아'라는 뜻이다.

27) [정답] ①

[해설] ㉠은 원 배달을 의미하는 말로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대유법은 사물의 명칭을 직접 쓰지 않고 사물의 일부나 특징을 들어서 그 자체나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이다. 이처럼 대유법이 사용된 것은 '일자리, 일타'를 '밥그릇'이라고 표현한 ①이다. ②는 직유법, ④는 역설법이다. 또한 ③은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28) [정답] ②

[해설]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신문 배달을 하는 황수건이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나'의 집에 찾아온 일이다. ㉠은 '나'가 황수건을 만난 다음에 황수건을 떠올리면 한 말로, ㉠보다 ㉡이 먼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9) [정답] ④

[해설] ① '나'는 황수건에게 '하오체'를 사용하여 정중하게 대하고 있다. ② 황수건은 비속어는 물론 표준어에서 벗어난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절제된 태도로 말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③ 황수건은 '합쇼체'의 말투를 써서 굽신거리는 듯한 말투로 말하였다. ⑤ '나'는 한자어와 표준어를 구사하여 대화하고 있는데, 이는 '나'가 지식인의 계층에 속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비록 황수건이 낮은 계층의 인물이지만 그를 인간적으로 대하고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나'의 따뜻한 인간성이 담겨 있다.

30) [정답] ③

[해설] ①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안의 서술자가 주인공 황수건을 소개하고 있다.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④ 원 배달이 될 것에 기뻐하는 황수건에 대한 내용이다. ⑤ 황수건이 보조 배달의 일마저 못하게 된 각박한 세상에 대한 '나'의 원망스러움이 나타나 있는 단락이다.

31) [정답] ⑤

[해설] ㉠은 '말하기'의 방식으로 사건의 전개를 요약한 부분은 맞지만, 서술자가 직접 보고 겪은 바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서술자가 직접 들은 바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다.

32) [정답] ④

[해설] 이 글의 달밤은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그의 천진한 성격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사공간적 배경이고, <보기>의 '달빛'은 향토색과 서정성이 잘 드러나는 글의 배경이다.

33) [정답] ①

[해설] 이 글과 같이 비극적 구성의 아이러니 기법이 사용된 것은 ①이다.

34) [정답] 참외, 포도

[해설] 이 글에서 황수건은 비록 참외 장사는 실패하였지만, 자신을 믿어준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참외 세 개를 갖다 주었다. 또한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황수건은 포도원에서 대여섯 송이의 포도를 훔쳐 갖다 주었다.

35) [정답] ②

[해설] ㉠에는 참외 장사도 망하고 아내도 달아나 버린 상황, 즉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얽힌 데 덮쳐 잇따라 일어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한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 한다.

36) [정답] 새 급사의 근력이 얼마나 센지 시험해 보기 위해

[해설] 황수건은 새로 온 급사와 싸움을 하여 자신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와 같이 큰 돌을 삼산 학교 대문에 갖다 놓았다.

37) [정답] ③

[해설] 이 글에서 '나'는 황수건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돈 삼 원을 주었다. ① 황수건의 아내는 남편과의 갈등이 아니라 동서와의 갈등 때문에 달아났다.

38) [정답] ③

[해설] ㉠은 '나'가 황수건의 말을 모두 믿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의 마음 씀씀이를 기특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그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부분이다.

39) [정답] ⑤

[해설]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 '나'와 주인공 '황수건'의 이야기지만, 두 인물의 관계보다는 우둔하고 천진한 성품을 지닌 황수건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모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1인칭 시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들

으니 참외 장사를 ~ 달아난 것이라 한다.와 같이 주변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전달한다. 하지만, 간결한 문체와 대화 위주의 이야기 서술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지는 않다.

40) [정답] ③

[해설] 이 글의 서술자 '나'는 황수건의 가난에 동정하면서도 가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천진한 성격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런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도 고귀한 것으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 즉 모자란다고 하여 결함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결국 황수건처럼 모자란 듯이 평가되는 사람도 인간답게 존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하고 그런 삶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슬퍼한다. 따라서 ③은 이 글을 읽고 난 후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거리가 멀다.

41) [정답] ①

[해설] ㉠은 참외 장사도 실패하고 옆친 데 뉘친 격으로 아내마저 달아나버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독자들은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반응할 수 있다.

42) [정답] ③

[해설] (가)에서 '나는 '그(수건)'의 정직하고 따뜻한 인간성을 긍정하고 있고, 그에게 진심으로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나는 '그(수건)'에게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43) [정답] ②

[해설] (가)의 공간적 배경인 '성북동'은 서울이기는 하지만 도심과는 달리 자연이 있어 여유가 느껴지는 곳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성북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도시 빈민의 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44) [정답] ①

[해설] (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45) [정답] ⑤

[해설] (가)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압력과 그것이 빚어내는 고통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러한 현실을 묘사보다는 상황에 대응해 가는 인물을 통해 사회 속의 참다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인간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 어린 눈길을 통해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세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6) [정답] 우둔함

[해설] 이 글은 우둔하고 천진한 성품을 지닌 황수건이 각박한 세상사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모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47) [정답] ②

[해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황수건은 은근히 남의 도움을 바라거나 무엇을 재고 따지는 도시민들과 달리 천진하고 지극히 순수한 인물이다.

48) [정답] ①

[해설] (마)의 '달밤'은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그의 천진한 성격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사공간적 배경이며, 황수건이 처한 어두운 시대 현실이 밤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환한 달빛의 이미지가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 주고 있다. 하지만 '달밤'이 주인공 황수건의 밝은 앞날을 암시해 주진 않는

다.

49) [정답] ③

[해설] (다)는 황수건에 얽힌 우스운 일화들로, 서술자가 인물(황수건)에 대한 정보를 취재해서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다.

50) [정답] ④

[해설] (라)는 참외 장사도 실패하고 아내마저 달아나 버렸으며, '나'에게 주기 위해 포도를 훔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1) [정답] 이 소설에 등장하는 천진하고 순수하지만 약간은 모자란 황수건은 각박한 세상에서 부딪혀 아픔을 겪는다. 이를 통해 무엇을 재고 따지며,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각박한 현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해설] 이 소설은 '반편'같은 존재도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약삭빠르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이 세계에 대해 반성 의식을 가져야 한다.

52) [정답] ④

[해설] 이 글에서 서술자는 황수건의 성격을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3) [정답] ①

[해설] ㉠의 '달빛'은 밝고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준다.

54) [정답] ③

[해설]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의미한다.

55) [정답] 황수건의 순정에 애정과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다.

[해설] [대]글에서 '나는 황수건이 훔쳐 온 포도를 맛보며 순수한 그의 마음씨에 무한한 애정과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포도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은 것이다.

56) [정답] ④

[해설] ㉠'노래'는 삶에 지친 듯한 황수건이 자신의 삶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부른 것이므로, 불합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각박한 세상사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황수건의 삶'을 나타낸다.

57) [정답] ②

[해설] 글(가)~(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속에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여 관찰할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58) [정답] ③

[해설] (가)~(마)는 세상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은 천성은 착하지만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 '황수건'과 각박한 사회라는 환경 사이의 갈등이다.

59) [정답] ④

[해설] '나는 황수건의 외형적인 면모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그를 못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해 결국 보조 배달부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④는 '나가 황수건을 못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60) [정답] (1) '담배'는 삶의 답답함, 고단함 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2) '달'은 인물의 서러움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해설] (다)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쓰인 소재는 '담배'와 '달'이다. '담배'는 인물의 답답하고 고단한 삶, 무기력한 삶 등을 나타내며, '달'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물이 느끼는 서러움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때론 희망을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61) [정답] ⑤

[해설] 이 글은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① 이 글의 제시된 부분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다. ② 이 글은 단편 소설로 작가가 직접 경험한 사실임을 알 수 없다. ③ 이 글은 황수건이라는 인물과 각박한 세상(사회)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④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62) [정답] ①

[해설] ㉠은 황수건과의 만남에 대한 '나'의 느낌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나'는 우둔하고 천진스러운 황수건을 통해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63) [정답] ⑤

[해설] <보기>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해 얻은 세계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인 내면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작품의 의미를 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각박한 세상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황수건'의 삶을 나타낸 이 글을 읽고 바르게 내면화를 한 것은 ⑤이다. 이 글의 황수건과 같이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옆에서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며, 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야말로 이 글을 읽고 진정한 내면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4)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1930년대 서울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 '나'와 주인공 '황수건'의 이야기이다.

65)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가)는 새로 온 배달부가 한 말로 방관적이고, 수건이를 무시하는 어조이다. 이와 유사한 어조가 사용된 것은 ③이다.

66) [정답] ③

[해설] <보기>는 작품의 비평 관점에 대한 내용으로 밑줄 친 부분은 외재적 접근 방식 중에서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반영론적 관점의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글을 비평한 것은 ③이다.

67) [정답] 1) 참외 장사를 실패하여 돈 삼 원을 갚지 못한 일, 훔친 포도를 갚다 준 일 2) 주인공에 대한 배려

[해설] ㉠에서 '나'는 황수건이 참외 장사를 실패하여 돈 삼 원을 갚지 못했고, 훔친 포도를 가져다준 것 때문에 무안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황수건에 대한 배려로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춘 것이다.

68) [정답] ②

[해설] ㉠'달밤'은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그의 천진한 성격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사공간적 배경이다. 황수건이 처한 어두운 시대 현실이 밤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환한 달빛의 이미지가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 주고 있다.

69) [정답] ①

[해설] 이 글은 황수건의 다양한 일화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황수건의 성격과 인물됨을 보여주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건을 비극적으로 구성하여 비장미를 창출하고, ③ 글쓰이는 소외된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눈길을 통해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세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④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며, ⑤ 보여주기의 방식 뿐만 아니라, 말하기의 방식도 사용하여 사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70) [정답] ⑤

[해설]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는 우둔하고 천진스러운 황수건을 통해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① 삼산학교 학생들이 황수건을 좋아한다는 것은 황수건의 말로, 허풍이다. ② 황수건이 포도 장사를 했다는 내용도, 망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 ③ 서울이라도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④ 황수건과 그의 아내는 금슬이 괜찮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아내가 달아난 것이다.

71) [정답] ⑤

[해설] 황수건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인물로, 천성은 착하지만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못난이들이 소외되고야 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알맞지 않다.

72) [정답] ②

[해설] ⑥는 '나가 황수건의 말을 모두 믿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의 마음 씀씀이를 기특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그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한 말이다.

73) [정답] (1)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 '나'는 작품 안에서 주인공 '황수건'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2) [B]는 '말하기의 방식'으로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식이고, [C]는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대사와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해설] 이 글은 서술자 '나'와 주인공 '황수건'의 이야기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 글의 [B] 부분은 서술자 '나가 들은 이야기를 '말하기의 방식'으로 요약해서 전달하였고, [C] 부분은 서술자 '나가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황수건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74) [정답] ⑤

[해설] 이 글에서 황수건은 상식에 따르지 않는 바보스런 행동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권위로 포장된 위선이나 사회적 모순이 은연중에 폭로되는 것이므로, 황수건이 의도적으로 시대의 모순을 폭로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볼 수 없다.

75)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대화와 서술을 병행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조절하

고 있으며, 초점화된 장면을 통해 주인공 황수건의 심리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학관' 등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어휘를 통해 사회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76) [정답] ④

[해설] 이 글의 [달빛]은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 '나의' 연민을 부각하고,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 주고 있다.

77) [정답] ①

[해설] ㉠'삼 원 돈'은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나는 소재로, 황수건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며, 미래에 대한 황수건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포도'는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황수건의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로, 포도원에서 흠친 것으로 보아 황수건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나무 그늘'은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가 드러나는 소재이다.

78) [정답] (가) 1인칭 관찰자 시점 (나) 1인칭 주인공 시점

[해설] 글(가)는 서술자 '나'와 주인공 '황수건'의 이야기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글(나)는 '조부'의 업보를 물려받은 '나'가 백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미지의 근원의 세계를 찾아 나서게 되는 이야기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79) [정답] 들으니, 한다.

[해설] 글(가)에서 말하기의 방식으로 사건 전개를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들으니 참외 장사를 ~ 달아난 것이라 한다.'이다.

80) [정답] 휴머니즘

[해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로 <보기1>의 (㉠)안에 들어갈 단어는 '휴머니즘'이다.

81) [정답] ①

[해설] 글(가)는 서술자 '나'와 우둔하고 천진한 성품을 지닌 주인공 '황수건'의 이야기로, 황수건이 각박한 세상사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모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주로 행동, 대화를 통해 인물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정성과 인정미가 잘 드러나 있다.

82) [정답] ④

[해설] (가)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압력과 그것이 빚어내는 고통을 묘사보다는 상황에 대응해 가는 인물을 통해 사회 속의 참다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외된 인간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 어린 눈길을 통해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세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달밤'은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그의 천진한 성격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사공간적 배경으로, 환한 달빛의 이미지가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 주고 있다.

83) [정답] ②

[해설] (가)에 등장하는 황수건은 모자라지만 세태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마운 사람에게 예를 표할 줄도 안다. 또한 삶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달밤에 취해 노래를 부를 정도로 낙천적이다.

84) [정답] ①

[해설] 이 글은 서술자 '나'가 우둔하고 천진한 성품을 지닌 황수건을 애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 '나'가 황수건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85) [정답] ②

[해설] 이 글에서 '달밤'은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그의 천진한 성격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사공간적 배경이다. 또한 황수건이 처한 어두운 시대 현실이 밤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환한 달빛의 이미지가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막아 주고 있다.

86) [정답] ③

[해설] 황수건은 단순하고 우둔하며 모자라지만 세태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품성을 지니고 있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예를 표할 줄 안다. 또한 사리 분별력이 없고, 자신의 일에 골몰하다가 다른 정황은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성격이지만 무엇을 재고 따지는 도시민들과 달리 천진하고 지극히 순수한 인물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한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기어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결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 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 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스카(선생님, 안녕하세요)? ...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비가 옵니다). 유키가 후리마스카(눈이 옵니까)? 히히 ...”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 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 하는 판이다.

그날 ㉢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맞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단니까 오늘은 이 동리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략)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용인)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장사를 할 텃덱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턴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덱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가)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A]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깃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 케 ... 와 나 ... 미다카 다메이 ... 키 ... 카 ...”(1)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푹푹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

(주) (1) “사 ... 케 ... 와 나 ... 미다카 다메이 ... 키 ... 카 ...”: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뜻의 일본 가요.

1. (보기)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 ㄱ. 과거와 현재를 병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 ㄴ. 인물의 특정 행위를 통해 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ㄷ.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ㄹ. 서정적 배경을 설정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ㅁ.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나’는 며칠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황수건’을 왜 ‘노랑수건’이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
- ② ㉡: ‘황수건’은 ‘시학관’이 심심하지 않도록 ‘시학관’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 ③ ㉢: ‘황수건’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는 자신을 꾸짖는 선생님

들에게 대들었기 때문이다.

④ ㉔: '황수건'은 자신이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⑤ ㉕: '황수건'은 '나'에게 장사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태준의 단편에는 주로 지식인의 입장에서 관찰한 당대 사회에서 소외받는 인물의 삶이 표현되어 있다. 관찰 대상인 작중 인물은 각박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들의 비극적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그들의 순박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서술자는 흔히 약자인 작중 인물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러한 서술자는 당대의 소외받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를 대변한 인물로 볼 수 있다.

① 몇 마디 배운 일본말을 활용하여 일본인과 대화하려는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② 색시가 달아날까 봐 학교 중을 마음대로 치는 '황수건'의 행동을 보니 그가 어리석을 정도로 순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군.

③ '나'가 '황수건'에게 장사를 하라며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것은 소외된 인물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연민이 표현된 것이로군.

④ 작가는 정 많은 '황수건'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 각박하고 인정 없는 당대 현실을 표현하려했군.

⑤ '나'가 어제 성북동 길에서 '황수건'을 보고도 먼저 피한 행위에는 '황수건'과 같은 인물을 소외시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군.

4. (가)의 소식을 접한 '나'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옆친 데 댁친 격이로군.

②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했어.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로군.

④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는 상황이로군.

⑤ 내 조언에 콧방귀만 뀌더니 결국 그렇게 됐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나'는 황수건과의 첫 만남에서 그가 못난이라는 것을 안다. 신문 보조 배달을 하던 황수건은 똑똑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쫓겨나지만 '나'는 그와 가깝게 지내며 그의 말벗이 되어 준다.

"그런데요, 선생님?" / "왜그류?"

"삼산 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습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급쇼, 운동을 합쇼." /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쇼. 다시 써 달라고 줄라 댁쇼.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쇼, 이 녀석이 막 불끈댁니다그려. 그래 한번 씹을 해야 할 터데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댁벼들 터데쇼..... 허."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섭쇼, 엇저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러다 삼산 학교 대문에다 놔줍쇼. 그리구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데쇼. 이 녀석이 나 처럼 억지루 굴러다 버렸는지, 뺨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 입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데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 /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데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데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뽏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 놔줍쇼." / 한다.

"왜 그렇소?" /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데쇼. 아 삼산 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데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그렇게 옹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벅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코즈까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빼젓이 장사를 할 터데쇼?" /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겍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데쇼." /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빼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㉔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벅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㉕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감*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깃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껌..... 와 나..... 미다까 다메이..... 끼..... 까.....*" 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휘 길 아래로 내려서 ㉔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㉕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 * 우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
- *코즈카이: '사환(使喚)'의 일본어. '사환'은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 * 직각(直覺): 보거나 듣는 즉시 곧바로 깨달음.
- * 사께와 나미다까 다메이끼까: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뜻.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황수건에게 장사 밀천을 주었다.
- ② 황수건은 삼산 학교에서 급사를 한 적이 있다.
- ③ 황수건은 새로 들어온 급사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있다.
- ④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 주사를 맞았다.
- ⑤ '나'는 황수건이 훔친 포도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수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태준은 작품 속에서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늙은이 등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회의 중심에서 이탈한 사람들로 사회의 주변인에 해당한다. 이들 인물의 공통점은 모두가 순수한 성격의 소유자들이고, 세태에 물들지 않은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 ① 참외 장사에 실패하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주변인이로군.
- ② '나'의 도움이나 호의를 잊지 않을 만큼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있군.
- ③ 어려운 상황인데도 흥겹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순수한 성격을 지녔군.
- ④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없어진다고 여길 정도로 배움이 부족한 인물이군.
- ⑤ 학교에서 쫓겨나고 아내마저 도망가 버려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군.

7 <보기>는 위 글의 서술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㉔~㉕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난 구절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보기>

황수건은 독자의 호감을 살 만한 장점이 없다. 진지한 삶의 자세도 없고 타인을 위한 희생이나 배려도 없다. 타인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보일 때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동정을 살 만큼 기구한 삶을 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독자는 황수건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는 황수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호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① ㉔, ㉕ ② ㉔, ㉕ ③ ㉔, ㉕ ④ ㉔, ㉕ ⑤ ㉔, ㉕

8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적 배경을 동원하여 인물을 신비화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구체화하여 사건을 명료화하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의 전환을 통하여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⑤ 자연적 배경을 활용하여 여운이 있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황수건'이 못난이임을 알아보지만 편견을 갖지 않고 그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말동무가 되어 준다. 신문 배달 보조를 하던 '황수건'은 어리숙하고 똑똑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된다.

"그런데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요?"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데쇼, ㉔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데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보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 냈습쇼."

한다.

"왜 그러쇼?"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데쇼. 아 삼산 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지 것 무서울 것 없는데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쇼."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쇼?"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지 거 누가 고즈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http://www.namuacademy.com)

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장사를 할 텃덱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터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덱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어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갑*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휘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 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푹푹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달밤'

*우두: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
*마마:천연두를 이르는 말.
*고즈카이:잔심부름을 하는 남자 고용인을 이르는 일본어.
*차미:참외.
*얼른하다:얼씬하다.'얼씬'은 조금 큰 것이 눈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모양.
*직각:보거나 듣는 즉시 곧바로 깨달음.
*갑: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 9 '나'와'황수건'의 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수건'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친교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 ② '황수건'은 자신의 지식, 경험 등을 상대에게 알려 주는 정보 전달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 ③ '황수건'은 의도적으로 청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설득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 ④ '나'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친교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 ⑤ '나'는 말을 재치 있게 하여 상대의 기분을 즐겁게 해 주는 오락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 10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수건'은 배움이 부족한 인물로서 자의적인 판단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어.
 - ②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 ③ ㉢: 장사 밀천을 대 준'나'에게 장사가 잘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야.
 - ④ ㉢: 인물을 바라보는'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어.
 - ⑤ ㉢: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황수건'에 대한 연민이 표출되어 있어.

01 ④ 02 ④ 03 ⑤ 04 ① 05 ⑤ 06 ③ 07 ⑤ 08 ⑤ 09 ⑤ 10 ③

이태준, 「달밤」

(해제) 이 작품은 모자라고 우둔하지만 순박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각박한 세상과 부딪치면서 겪게 되는 아픔을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식인인 '나'는, 학교 급사, 신문 보조 배달원, 참외 장사 등을 하지만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황수건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은 황수건의 비극적 삶을 그리고 있지만 절망적인 분위기보다는 영동한 황수건의 행동으로 인해 해학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작가는 황수건을 연민하는 '나'를 통해 순박한 인물인 황수건과 같은 사람이 소외되는 당대의 각박한 현실을 비판하려 하였다.

(주제) 우둔하지만 순박한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전체 줄거리) 문안에서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나'가 모자란 신문 보조 배달원인 황수건을 만난다. '나'는 순박한 황수건을 좋아하여 실속 없는 황수건의 말을 들어 준다. 황수건은 신문 보조 배달원의 자리를 빼앗기고, '나'는 장사를 하려는 황수건에게 대가 없이 돈을 준다. 황수건은 참외 장사에 실패하고, 그의 아내도 집을 나간다. 어느 달밤, 담배를 피우며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보며 '나'는 연민을 느낀다.

1. 서술상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ㄴ (확인) 특정 행위에 담긴 인물의 정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담배를 피우거나, 슬픈 일본 가요를 되풀이 하여 부르는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그가 현재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ㄹ (확인) 애상적 분위기 형성

밝은 달밤이라는 서정적 배경을 통해 '황수건'의 쓸쓸한 심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ㅁ (확인) 서술자의 작중 인물에 대한 관찰

'나가 달밤에 길을 걸어 나오는 '황수건'의 행위를 보면서 '황수건'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확인) 과거와 현재의 병치

[A]는 서술자인 '나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하는 부분으로,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나란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ㄷ (확인) 인물 간의 대립

[A]에는 '황수건'을 아는 체할지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이 나올 뿐,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

'황수건'은 삼산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매우 좋아하므로, 학교 앞에서 어떤 장사를 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노랑수건'의 의미

'나가 요 며칠 사이에 '황수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가 우스운 일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② (확인) '시학관'이 심심하지 않도록 대화를 나눔.

'황수건'은 '시학관'과 마주 앉아서 자기류의 만담 삼매경에 빠졌다.

③ (확인) '황수건'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

'황수건'이 학교에서 쫓겨난 것은 급사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⑤ (확인) 장사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춤.

'나가 '황수건'에게 돈을 빌려 준 다음 날의 사건이므로 '황수건'이 장사에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현실에 대한 불만

'나가 어제 성북동 길에서 '황수건'을 보고도 먼저 피한 행위에는 '황수건'과 같은 인물을 소외시킨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황수건'이 '나'를 보면 무안해할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즉 '나'는 '황수건'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피하려 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해학적 분위기

'황수건'의 영동한 행동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확인) 순박한 인물

'황수건'은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행동을 할 정도로 순박한 인물이다.

③ (확인) 연민의 표현

지식인인 '나가 '황수건'에게 조건 없이 돈을 빌려 준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확인) 각박하고 인정 없는 당대 현실

정 많고 꾸밈없는 '황수건'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아픔을 겪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각박하고 인정 없는 당대 현실을 드러내려 하였다.

4. 인물이 처한 상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장사가 망하고, 아내는 도망감.

'나는 조건 없이 '황수건'에게 장사할 돈을 줄 정도로 '황수건'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황수건'이 장사를 잘해 이득을 보았다는 소식 대신에 '황수건'이 장사를 망쳤으며, 심지어 아내까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는다. 따라서 (가)의 소식을 접한 '나는 '황수건'에게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일어나는 것을 걱정할 것이다.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일어난다는 뜻의 관용어로는 '엮힌 데 뉘친 격'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핑곗거리가 있다는 말

③ (확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말

④ (확인) 쇠를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⑤ (확인) 콧방귀를 꺾다.

아니꼽거나 못마땅하여 남의 말을 들은 체 만 체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말

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태준, 달밤

[해제] 소설「달밤」은 1930년대 서울 성북동을 배경으로 우둔하고 천진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이 각박한 세상사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모습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당시의 성북동은 많은 영세민들이 움막 신세를 면하지 못했던 곳이었다. 작가는 그의 가난을 동정하고 그런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도 고귀한 것으로 대접받으면서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즉 모자란 것을 결함으로 인식하더라도 이를 배척하지 않는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사회를 꿈꾼다.

소설「달밤」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빚어낸 현실적 고통을 암시하고,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세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순진한 사내의 안타까운 삶에 대한 연민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나'는 황수건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가 못난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북동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신문 보조 배달을 하는 황수건의 평생소원은 정식 배달 사원이 되는 것이다. 그는 '나'와 가깝게 지내며 집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개를 키우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실속 없는 참견을 한다. 그런 황수건을 '나'는 따뜻하게 받아들인다. 황수건은 똑똑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문사 보조 배달원 자리마저 떨어지고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끝내는 동서의 등쌀을 견디지 못한 그의 아내마저 달아난다. 어느 늦은 밤, 황수건은 전에 볼 수 없던 모습으로 달을 쳐다보며 서툰 노래를 부른다. '나'는 그를 부를까 하다가 그가 무안해 할까 봐 얼른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다.

5 세부 내용 확인하기 정답 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는 유형이다. 선택지와 지문을 연결시키면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한다.

⑤ '나'는 황수건이 훗날 포도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 '나'는 황수건이 가져온 포도가 훗날 훗날 주인에게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그리고 황수건이 가져온 포도를 음미하며 먹었다. 그러므로 포도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러 보며 먹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나'는 황수건에게 장사 밀천을 주었다.

→ '나는 그 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라는 부분을 통해 '나'가 황수건에게 장사 밀천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황수건은 삼산 학교에서 급사를 한 적이 있다.

→ '삼산 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계 생겼습죠?'라는 수건의 말을 통해 황수건은 삼산 학교에서 급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황수건은 새로 들어온 급사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있다.

→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쇼.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댁쇼. 야,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뎁쇼, 이 녀석이 막 불끈뎁니다그려. 그래 한번 씹을 해야 할 턱뎁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뎁벼들 턱뎁쇼..... 허.'라는 수건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 주사를 맞았다.

→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뎁쇼'라는 부분을 통

6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 ③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수건'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인공의 성격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에서 파악한 '수건'의 사람됨과 선택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한다.

③ 어려운 상황인데도 흥겹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순수한 성격을 지녔군.

→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수건이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다. 수건임을 확인한 '나'는 가만히 그를 지켜본다. 그런데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 같은 구절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수건이 달밤에 풍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③에서는 이를 두고 흥겹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순수한 성격을 지녔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푹푹 빨면서 지나갔다.'라는 부분에서 삶의 애환을 달래고자 하는 황수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참외 장사에 실패하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주변인이로군.

→ 수건은 참외 장사에 실패하고 아직 특별한 직업도 없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처음에 삼산 학교에서 급사를 했으나 새로 온 급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 다시 급사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한다. 그리고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했으나 이것도 실패하고 만다.

② '나'의 도움이나 호의를 잊지 않을 만큼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있군.

→ '나'는 수건을 따뜻하게 대하며 말벗이 되어 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수건을 어리숙한 사람으로 여기고 꺼리지만 '나'는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장사 밀천도 대 준다. 수건은 비록 자신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을 도왔던 '나'에게 포도원의 포도를 훔쳐서 가져올 만큼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

④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없어진다고 여길 정도로 배움이 부족한 인물이군.

→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뎁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뎁쇼.'라고 말하는 부분과 '이걸 뎁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라는 부분을 통해 수건의 지적 수준을 알 수 있다. 즉, 수건은 우두를 넣어서 근력이 없어졌다고 여길 만큼 배움이 부족한 인물이다.

⑤ 학교에서 쫓겨나고 아내마저 도망가 버려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군.

→ 수건은 새로운 급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아내마저 도망가 버려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가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아내가 도망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서술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⑤

<보기>는 위 글의 서술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난 구절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서술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주인공에 대해 서술자가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⑤ ㉢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러 보며 먹었다. / ㉔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 ㉔와 ㉔는 황수건에 대한 '나'(서술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㉔에서는 수건이 훔쳐 온 포도를 그의 은근한 순정이라고 생각하며 호의를 드러내는 서술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고, ㉔에서는 수건이 무안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몸을 감추었다는 데서 서술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는 부분과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질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라는 부분을 통해 서술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㉔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 ㉔는 수건이 '나'에게 포도를 들고 온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수건이 '나'에게 포도를 가져온 부분으로, 서술자의 호의적인 태도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㉔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 서술자의 호의적인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수건'이 먹살을 잡히는 것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처음에는 수건이 가져온 포도가 훔친 것인지 몰랐지만 포도원 주인에게 먹살을 잡히는 것을 본 '나'가 상황을 짐작한 것이다.

8 결말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㉔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말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 결말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㉔ 자연적 배경을 활용하여 여운이 있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 수건은 장사에 실패하고 아내마저 도망가 버려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삶의 애환을 지닌 수건은 스스로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라는 서술이 나온다. 작가는 글의 결말 부분에서 비참한 삶의 수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달밤이 그를 바라보도록 마무리한다. 즉, 서글프고 힘들어하는 수건의 삶과 '달밤'을 연결시켜 '달밤'이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수건을 지켜보듯 독자들도 한번쯤 수건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뚜렷한 결말을 내리지 않은 ㉔과 같은 마무리는 여운을 느끼게 해 준다.

지문에서 정답 찾기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라는 부분에 나타난 수건의 행동과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라는 작가의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㉔ 자연적 배경을 동원하여 인물을 신비화하고 있다.

→ '달밤'이 자연적 배경이므로 자연적 배경을 활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인물을 신비화하고 있지는 않다.

㉔ 공간적 배경을 구체화하여 사건을 명료화하고 있다.

→ 공간적 배경을 구체화하지도 않았고, 사건을 명료화하고 있지도 않다. 자연적 배경인 '달밤'만 제시되어 있다.

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달밤'이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것이므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통해 비판적인 인식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수건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독자들에게 여운을 준 것이다.

㉔ 공간적 배경의 전환을 통하여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자연적 배경인 '달밤'만 제시되어 있으며 배경을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이태준, '달밤'

[해제] 이 작품은 성북동으로 이사 온 후 처음 만난 황수건이라는 못난이의 아둔한 세상살이를 서술자 '나'가 곁에서 지켜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작가 이태준은 우둔하지만 순박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이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담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각박한 세태를 넉넉히 꼬집고 있다. 1930년대 어느 여름철의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직접적 행동이나 이념적 진술보다는 관찰자의 주관성에 의해 해설되고 있다. 황수건의 좀 모자라는 행동이나 생각은 관찰자가 갖고 있는 동정적 해설에 의해 순수한 것으로 또는 인간미로 바뀌며 연민을 자아낸다.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희극적인 일화를 달밤의 정취 속에 응축하여 표현하였다. [주제] 순박한 주인공의 안타까운 삶에 대한 연민

[전제] '줄거리'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를 와 '황수건'을 만난다. 그는 못난이지만 천진하고 순박한 사람이다. 아내와 함께 형님 집에 얹혀 살면서 학교 급사로 일하던 중 쫓겨나 신문 배달 보조원 일을 한다. 그의 희망은 정식 배달원이 되는 것이나 못난이라는 이유로 그 꿈은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나'는 그가 배달원 자리마저 잃자, 그가 급사로 있었던 삼산 학교 앞에서 참외 장 사라도해 보라고 돈 삼원을 준다. 그러나 참외 장사마저 실패하고 아내는 달아난다. 달포 만에 찾아온 황수건은 포도를 대여섯 송이 사왔다며 '나'에게 주지만, 곧 사람이 쫓아와 그 포도는 훔쳐 온 것이 들통 난다. '나'는 포도값을 물어 주고, 그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밤, 서툰 노래를 부르며 황수건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나'는 그가 무안해할까 봐 나무 그늘에 얼른 몸을 숨긴다.

9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㉔

이 문제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기준으로 화법의 유형을 나눌 때, '나'와 '황수건'의 화법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실마리[답지] 오락적 화법을 구사

'나'가 '황수건'의 기분을 즐겁게 해 주고자 말을 재치 있게 하는 부분은 지문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㉔, ㉔, ㉔ '황수건'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니 '나'에게도 우두를 넣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또, '나'에게 참외와 포도를 가져와 먹어 보라며 이야기한다. 이로 보아 '황수건'은 친교적 화법, 정보 전달적 화법, 설득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㉔ '나'는 황수건의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유용한 이야기를 해 줘서 고맙다고 대답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반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의 친교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㉔

이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각 구절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실마리[지문] 달포 만에, 그것도 밤에 황수건이 '나'에게 찾아옴. 황수건은 장마로 참외 장사를 접게 된다. 그리고 황수건은 못난이 라고 알려져 있지만 인간적 면모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포도는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㉔ 황수건은 사람들에게 못난이로 알려져 있으며 어리숙하고 우

둔하게 행동하여 어디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는 황수건의 집안 사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황수건의 순박한 인정이 담긴 포도임을 알기에 아껴 먹은 것이다.

⑤ 가출한 아내로 인한 슬픔과 세상 풍파로 마음을 크게 다친 황수건의 쓸쓸함을 작가는 달밤이라는 애상적 분위기를 통해 한층 부각하고 있다.

들어가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그러나 특정한 중심 사건과 갈등 없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인 소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이 경성(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때에는 서울을 경성이라 불렀다.)을 배회하는 여로형 소설(여행 등을 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소설)이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갖는 다른 소설들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하다. 소설가 구보가 일제 시대 경성을 배회하며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그저 경성의 어디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디를 가며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반복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현대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작품해설

구절이해

1. R, 4 L, 3

구보의 시력표이다. 오른쪽 시력 4, 왼쪽 시력 3이란 뜻이다.

2. 수남이와 복동이와 더불어

장수와 복을 바라는 일제 시대의 흔한 이름이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을 뜻한다. (이에 비해 구보는 끊임 없이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정신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태를 나타내기 위해 장소를 백화점으로 설정한 것이다.

3. 전차 안에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을 생각할 때, 전차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과 이질감을 느끼고 고독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을 택한 자신의 정신 세계를 면밀히 따져본다.

4. 대정 12년, 11년, 8년

일제 시대의 년도이다.

5.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물을 게다.

‘그 색시’란 예전에 어머니의 주선으로 선을 보았지만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은 여성이다.

6.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줄(拙)하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암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責)할지도 모른다.(책망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줄(拙)하다 고라도(졸렬하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암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 이해와 감상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박태원의 중편소설이다. 민족 항일기(民族抗日期)에 문학을 하는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인데, 이상(李箱)이 ‘하용’이란 필명으로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이 소설은 박태원의 생활을 반영한 그의 자전적(自傳的) 소설로, 발표된 직후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주인공인 ‘구보’가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집→천변길→종로 네거리→화신상회→전차 안→조선은행 앞→다방→거리→경성역→조선은행 앞→다방→거리→다방→거리→식당→거리→다방→거리→술집→카페→종로 네거리→집) 하루 동안,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구보’의 의식 세계가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그것은 일정한 의식의 기준에 의해 통일된 입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도중에 우연히 부딪히게 되는 단편적인 사실들에 의해 촉발되는 두서 없는 생각들일 뿐이다.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별한 목적 없이 외출하여 걷고, 다방에 들어가고, 벼를 만나고 하는 ‘구보’의 행동이 아니라, 일상성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주인공 ‘구보’의 의식의 추이와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서술 양식이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는 전통적인 소설 장르에서 중시하는 사건이나 행위, 갈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소설을 이끌어 가는 것은 ‘구보’의 지각과 의식의 유동(流動)뿐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공간은 스물여섯 살 ‘구보’의 서울에서의 하루이지만, 의식의 공간은 첫사랑을 시작한 어린 소년기에서 동경 유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플롯(plot)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구조가 약화되어 있는 반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의식의 추이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어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0년대 문학인의 일상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문학인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탄제’, ‘비랑’ 등의 단편들에서 인물의 심리를 면밀하게 탐구하던 것과 장편 ‘천변 풍경’에 나타나는 철저한 관찰적 방법과의 혼재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중편 소설이란 점에서, 박태원의 작품 변모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작품이다.

▣ 이해와 감상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표제가 시사하는 바처럼, 실직한 인텔리 소설가가 도시에서의 무료한 일상을 보내며 그것들을 '고현학(考現學)'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이 식민지 지식인 사회의 말기적 현상의 하나로 취급되는 원인은 바로 이 고현학의 방식에서 연유한다.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도 장담하거나 단정짓지 않으며 결론은 항상 유보된다. 이미 모든 현실 속의 문제에 대하여 신념을 잃어버린 사회의 허무적 냄새가 깊이 배어 있는 것이다.

도시의 일상적 현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그의 정신적 배경에는 현대의 일상사에 대한 낯설음이 담겨 있다. 현대의 일상사가 그에게 기록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다면 그는 '노트 한 권과 단장(短長)'을 들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상적 현실에 대한 낯설음은 소설 창작의 과정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로 도입되는 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글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소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소설 창작의 과정을 다시 소설 속에 도입하는 "소설 속의 소설 쓰는 행위"를 독자에게 보여 준다. 독자는 허구를 창작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작가와 그 작품의 관계 그리고 사회 현실의 의미를 글을 쓰는 당사자와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박태원의 창작방법은 이러한 당대의 현실 속에서의 소재 취하기를 통해 일상과의 좀더 면밀한 길트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의 작가의식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一日)>이라는 작품이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소설가로서의 그의 맨얼굴을 보여준다. 반대로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맨얼굴을 독자에게 노출함으로써 소설 속의 '구보라는 소설가' 뒤편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추어 버린다.

얼굴을 노출함으로써 "작가 자신이 직접 소설 속에 뛰어들어 거리를 활보한다"는 적극적인 작업은 현실 속의 박태원을 소설가로서의 '구보'로 한정짓는 행위에 해당한다. 살아있는 자연인으로서의 박태원이 아닌 소설가 '구보'의 등장은 작가의 직업적 의식이 소설 속에 그대로 담겨지는 효과를 자아낸다. 지식인으로서의 작가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의 기초작업으로서 이 소설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소설사에서 지식인 소설가의 창작행위에 대한 새로운 검토작업을 그대로 글로 옮긴 작품인 만큼 '소설의 소설 그 자체 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이 소설은 실험적이라고 하겠다. 박태원의 또 다른 문제작인 장편 「천변풍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작가의 면밀한 관찰력의 힘 때문이다. 이 작품은 「천변풍경」의 탄생을 예고하는 작품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이라고 할 수 있다.

▣ 핵심정리

■ 갈래 : 중편소설, 심리소설

■ 배경

시간 - 1930년대 어느 하루, 공간 - 서울 거리

공간의 의미

현실적 공간(서울에서의 하루)

의식의 공간(첫사랑을 시작한 어린 소년기-동경 유학시절)

■ 성격 : 세태소설

■ 의의

자신의 창작 방법론을 고현학(modemologe: 현대적 일상 생활의 풍속을 면밀히 조사 탐구하는 행위)이라 했는데, 이를 적용시킨 작품이 바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다.

박태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자전적 소설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1930년대 무기력한 문학인의 눈에 비친 일상사.

■ 등장인물

구보 : 외출에서 귀가까지의 세태 관찰의 주체. 26세 미혼, 무직의 소설가. 귀도 잘 들리지 않으며, 시력에도 문제가 있어 신체의 불안감을 느낌

어머니 : 구보의 어머니. 아들의 늦은 귀가와 결혼을 염려한다.

■ 구성

이 작품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다만, 외출해서 '전차 안→다방→거리→경성 역 대합실→다방→거리→술집' 그리고 귀가까지의 작중화자의 관찰과 심리가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 특징

작가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자전적인 소설로 발표 직후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목적없이 집을 나선 '구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도중에 우연히 부딪히게 되는 단편적인 여러 사실들, 그리고 그에 의해 촉발되는 두서 없는 생각들의 연속인 이 소설에서 1930년대 나약한 지식인의 일상사를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작품 전체의 처음 부분으로 주인공이 놓인 처지가 잘 나타나 있고, 앞으로의 내용 전개에 대한 은밀한 암시가 주어져 있다. 먼저 주인공은 26세의 장가를 못 간,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한마디로 그는 현실적으로 무능한 룸펜 인텔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그를 기다리면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실 어머니의 바램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상적인 '행복'과 지식인의 무료한 일상은 이 작품의 중요한 내용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이 장면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 그 나름의 암시를 보여주는 셈이다.

이 작품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다만, 외출해서 전차 안 → 다방 → 경성역 대합실 → 다방 → 거리 → 술집 그리고 귀가까지의 작중 화자의 관찰과 심리가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이 작품의 '산책'이라는 배회의 형식은 '관찰'과 '의식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관찰되고 있는 것은 당시 경성의 여러 풍물, 경성역을 중심으로 한 지계꾼, 유랑민, 시골 노파, 바세도우씨병에 걸린 노동자 등 암울한 풍경과, 다른 한편으로 종로통의 카페를 중심으로 한 휘황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근대화의 양면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 의식의 흐름이다. 그것은 여러 풍경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러나 자신에게는 결여된 '일상적인 행복'과 지식인의 '고독'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 줄거리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정오에 집을 나와 광고, 종로를 걸으며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시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무작정 동대문행 전차를 타고는 전차 안에서 전에 선을 본 여자를 발견한다. 일부러 모른 채하고 있다가 그녀가 전차에서 내리고 난 후 후회한다. 혼자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자기에게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독을 피하려고 경성역 삼등 대합실로 가지만, 오히려 온정을 찾을 수 없는 냉정한 눈길들에 슬픔을 느끼며, 거기서 만난 중학 시절 열들생이 예쁜 여자와 동행인 것을 보고 물질에 약한 여자의 허영심을 생각한다. 다시 다방에서 만난, 시인이며 사회부 기자인 친구가 돈 때문에 매일 살인 강도와 방화 범인의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애달파하고, 즐겁게 차를 마시는 연인들을 바라보면서 질투와 고독을 동시에 느낀다. 다방을 나온 '구보'는 동경에서 있었던 옛사랑을 추억하며 자신의 용기 없는 약한 기질로 인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또 전보를 배달하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오랜 벗에게서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젖는다. 그리고 여급이 있는 종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정신 병자로 간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아낙이 카페 창 옆에 붙은 '여급 대모집'에 대하여 물어 오던 일을 생각하고 가난에서 오는 불행에 대하여 생각한다. 새벽 두 시의 종로 네거리, '구보'는 제 자식의 행복보다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제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여 생활도 갖고 창작도 하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향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일 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의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답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곁눈질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알은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체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그옥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A]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일 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 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챈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삼

하고 뉘우친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 '구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자를 대하는 구보의 태도는 여자에 대한 확실한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다.
- ② 구보는 여자가 자신을 보았으며, 자신을 알아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구보와 여자는 작년 여름에 만났던 사이로 다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④ 구보는 여자가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여자의 느낌도 궁금해 하고 있다.
- ⑤ 구보는 여자를 따라 내리고자 하는 충동을 느꼈지만, 따라 내리지 않은 후 후회를 하게 된다.

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을 자극하는 문장들이 쓰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② 만연체를 통해 정돈되지 않은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인물의 시선에 따른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 ⑤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당대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중략>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마약 차에 오른 듯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웅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 뒤를 캐어물을 게다. 그가 만일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즐(拙)하 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암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怯)하여, 얼토당토않은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 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웅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일 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 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 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의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 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 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중략>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 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 러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아린 구보가 동경의 마 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중략>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 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일 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 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 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 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 제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 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 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 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 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 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 川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 러 한 잔의 흥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나. 구 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팔뚝시계는-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팔뚝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 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典當) 나온 십팔금 팔뚝시 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다. 그 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 에,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뱀 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 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 해 본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 윗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보는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고독 속에서도 끊임없이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
 - ② 구보는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맞선 본 여자를 보고 결단력 없이 망설이기만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③ 구보는 전차 안에서 만난 여자에게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이에 실망한 어머니께 죄송한 감정을 느낀다.
 - ④ 구보는 다시 만난 벗의 누이가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태도를 보이자 결혼을 통한 행복에 더욱 회의하게 된다.
 - ⑤ 구보는 '시계'에 대한 생각을 '팔뚝 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와 연결하여 행복의 물질적 조건에 대해 고민한다.
4. 윗글의 표현기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과 가정, 추측의 문체를 통해 구보의 관념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 ② 만연체 문장을 통해 논리적이고 정돈된 사유의 전개 과정을 드러낸다.
 - ③ 문두의 일부를 끊어 소재목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용을 전환한다.
 - ④ 심표의 빈번한 사용은 문장에 라듬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 ⑤ 인과의 서사 구조가 약화되어 있는 반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의식의 추이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어 있다.
5. 윗글과 같은 시점이 쓰인 작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제 모든 것이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오상원, 「유예」
 - ② 이렇게 어머니는 자꾸 되풀이하였습니다. 나도 지금은 막히지 않고 줄줄 외는 주기도문을, 글씨 어머니가 막히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 ③ 문 서방은 딸을 품에 안으니 이때까지 악만 찻던 가슴이 스스로 풀리면서 독살이 올랐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슬픈 중에도 그의 마음은 기쁘고 시원하였다. -최서해, 「흥영」

- ④ 그는 먼저 인숙이 쪽을 바라보고 다음에 만기와 익준을 번갈아 보면서 멧쩍게 씩 하고 웃었다. 그러고는 거의 자기 자리로 정해진 대합실 소파의 맨 구석 자리에 조심하히 걸터앉았다. -손창섭, 「잉여 인간(剩餘人間)」
- ⑤ 이번에도 점순이가 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김유정, 「동백꽃」

6. 다음은 밑글에서 사용된 서술 방법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5음절로 쓰시오.

(㉠)은/는 등장인물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서술 방식이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소설은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루게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응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찍음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短杖)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료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1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 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쨌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막 차에 오른 듯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사'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물을 게다. 그가 만일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즐(拙)하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암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怯)하여, 얼토당토않은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중략>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이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이리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詩)를 초(草) 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 게다.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열일곱 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꺾이나 괴롭고 슬픈 것같이 생각하려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 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 비용 삼천 원. 신혼 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하여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싶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일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린 무로 학습자로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젠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읽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흥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다.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팔뚝시계는-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팔뚝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典當) 나온 십팔금 팔뚝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뵘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7.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②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가 중심을 이룬다.
 - ③ 심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독자들이 내용에 주목하게 만든다.
 - ④ 의식의 흐름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풍경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 ⑤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작가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자전적인 소설로, 1930년대 지식인들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작가는 소설가 구보 씨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경성 거리의 풍물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한 소설이다.

- ① 작품 속의 구보는 실제 박태원과 다소 거리가 먼 허구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군.

- ② 이 소설에 사용된 문체의 특성은 근대화된 경성거리의 활기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이군.
- ③ 구보는 당대 세태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로 역사의식이 부족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지금 쓰이지 않는 화폐단위를 나타낸 부분은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사실성을 더해주는 것이겠군.
- ⑤ 빠른 장면전환을 통한 이야기의 전개는 근대화되고 있는 1930년대의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과 아내를 구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대해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게 모종의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나)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중략>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묘사 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묘사 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중략>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1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볼리 내릴 수 없다. <중략>

(다)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일 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

을 달리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9.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 행선지가 없는 구보의 행보를 의미한다.
- ② ㉡ : 구보가 교외를 즐겨 찾지 않은 이유이다.
- ③ ㉢ :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구보를 성격을 보여준다.
- ④ ㉣ : 자신의 과거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⑤ ㉣ : 목적의식이 명확한 삶의 형태를 표현한다.

10. <보기>는 뒷글에 나타난 '구보'의 여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집→거리→백화점→전차 안

- ① '집'은 구보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곳이다.
- ② '거리'에서 구보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 고민한다.
- ③ '백화점'에서 만난 '젊은 내외'를 통해 구보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 목표를 찾고 싶어 한다.
- ④ '전차 안'에서 구보는 한 여성을 통해 삶의 목표를 찾았다.
- 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자신이 가야할 목적지를 분명히 결정했다.

11. <보기>와 뒷글의 서술 방식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목살되어 묻혀 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퀴퀴한 냄새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꼭 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오상원, '유예(猶豫)'에서

- ① 몽타주와 오버랩 등 모더니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다.
- ⑤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12. (1) (다)부분에서 드러나는 문체상의 특징 두 가지와 (2) 문체상 특징의 역할, (3) 문체상 특징의 장치 두 가지를 모두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일 년 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하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의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런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곁눈질 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알은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체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그욕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일 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 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http://www.namuacademy.com)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 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5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던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 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시하였었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 집으로 솔직하게 구혼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쩍게서리 여자를 괴롭혀 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 관계가 있는 노마나님이 와서 색시 집에서도 이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싶더라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느니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하여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一日)' 중

13.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작품 안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독백체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내면의식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며, 인물의 생각이 특별한 논리적 인과 관계 없이 풀려나가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사건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는 주인공으로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잘 그려내고 있다.
- ⑤ 서술자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인물과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위 작품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모더니즘 문학이란 현대문학의 여러 경향 중에서 기성문학의 형식과 관습에 대해 반발하고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경향의 문학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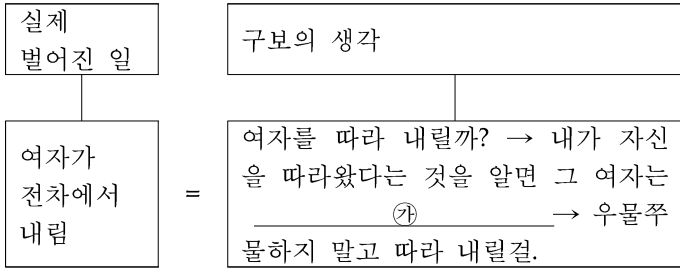
모더니스트들의 작품들은 대개 혁신적인 형식과 언어를 통해 개인의 소외와 고독, 정체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것은 이들이 물질주의와 산업주의에 기반한 현대문명을 부패하고 파편화된 세계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 파편화된 세계에서 인간들 사이의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고, 개인의 극심한 소외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대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기조로 하는 이들의 작품에서 미래는 흔히 반유토피아적인 묵시록적 세계상으로 그려진다.

- ① 범호 : 이 작품은 전통적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사건이 약화되어 있고, 인물의 내면이 중심인데 이는 기성 문학에 반발하는 모더니즘의 분위기와 일치하는군.
- ② 희섭 : 이 작품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모더니즘의 혁신적인 형식과 언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소외와 고독을 잘 그려내고 있어.
- ③ 지완 :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행복이 영구히 가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관적 관점을 기조로 하는 모더니즘의 특성과 일맥상통해.
- ④ 필형 :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안면이 있는 여인에게 말조차 건네지 못하는 것은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인간들 사이에는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모더니스트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어.
- ⑤ 치홍 : 이 작품은 주인공의 눈을 통해 근대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드러나는 부패하고 무기력한 일제 강점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목적이야.

15. ㉠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의 갈등이 시작되고 심화되는 공간으로서, 전차의 정지와 주행이 반복될수록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주인공이 도시를 산책하는 수단으로서, 근대 도시로서의 경성의 풍경을 드러내는 제재이다.
- ③ 구보가 타인을 관찰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의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 ④ 전통적인 서울의 모습과 대비되는 이질적인 존재로서 점점 일본화되어가는 식민지 경성의 모습을 풍자하는 제재이다.
- ⑤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교통수단으로서 목적지가 없는 주인공의 상황과 대비되어 주인공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16. 다음 그림은 특정 사건에 대한 구보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구보의 생각 추이에 따라 빈 칸 ㉠에 알맞은 구보의 생각을 2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게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짝음소—.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短杖)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1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

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중략>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일 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 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의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보는 고독감을 주된 정서로 표출하고 있다.
 - ② 구보는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을 대표한다.
 - ③ 구보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 ④ 구보가 외출한 후의 여정을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⑤ 구보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식의 흐름은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서술 방식이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소설은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루게 된다.

- ① 외부적 사건보다는 인물의 내면 심리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어.
- ② 단편적 사실들의 인과적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군.
- ③ 서사 구조는 약화되고 의식의 추이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어 있어.
- ④ 눈에 보이는 대로 떠오르는 생각의 실마리를 소재목으로 삼고 있어.
- ⑤ 인물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생각과 심리를 토해내는 내부적 계기로 작용하는군.

19. <보기>는 윗글의 문체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기법과 문체가 작품의 주제 전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2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보기>

이 소설은 만연체 문장과 심표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만연체 문장은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과정을 논리적 구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심표의 잦은 사용은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되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찍이

㉠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 하러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아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이리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은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詩)를 초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 게다. <중략>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일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제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 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홍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다.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팔뚝시계는 그것은 소녀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팔뚝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라에 전당(典當) 나온 십팔금 팔뚝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 뱀베르크 실로 짠 보일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

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나)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의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에 함박 싸인 흰 뚝길이다. 오- 이 뚝길....., 몇 사람이나 이 뚝길을 걸었을 거냐. 흰출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 오. 것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이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투른,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출히 트인 별판 너머도,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신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 오상원, '유예'

20. <보기>는 (가)와 (나)의 작가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이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가)의 작가 : 당대의 관찰을 통한 내면 의식의 서술방법은 서사구조를 약화시키지만 1930년대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그려냈고 지식인의 고뇌와 고독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 ② (나)의 작가: 저도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주인공이 충살형을 당하는 외부적 사건보다 그런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나타내려 노력했습니다. 이건 박태원 선생님과 같은 표현 기법이라 볼 수 있지요.
- ③ (가)의 작가 : 저는 가정, 추측, 의문의 문체를 사용하여 구보의 관념적인 태도와 약한 행동력을 표현하고, 만연체의 문장을 통해 인물의 정돈되지 않은 사유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 ④ (나)의 작가 : 제 작품의 주인공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실존의식이 강한 인물입니다. 호흡이 짧은 현재형 문장을 통해 죽음에 직면한 긴박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요. 선생님은 새로운 표현 기법을 많이 쓰셨지요?
- ⑤ (가)의 작가 : 문두를 끊어 소재목으로 삼는 기법은 뒤의 내용을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아주 참신한 방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지요. 또한 심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읽기에 속도감을 주어 인물의 섬세한 심리를 표현했습니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벗의 누이'는 구보의 행복관과 연결되어 중심 사건에서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 ② ㉡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당대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소녀가 간절하게 원하는 물건을 제시하여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적 궁핍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사수가 총을 장전하는 소리를 차가운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 전쟁의 냉혹함과 비정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전쟁 상황에서 죽음에 직면한 인물의 내면의식에서 터져 나오는 말로 내적 갈등을 통해 이념의 허위성을 고발한다.

22. 윗글의 시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 (1) (가)의 시점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조건>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조건>

'인물 (㉡)에 초점을 둔 (㉣) 시점에서 서술자와 인물간의 거리가 소멸되어 (㉣)시점의 효과가 나타난다.'의 빈칸 ㉡, ㉣, ㉣를 채워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2) (나)는 시점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의 시점이 끝나는 문장과 다른 시점이 시작되는 문장을 각각 찾아 쓰시오.

<조건>

- 본문에서 2개의 문장을 찾아 순서에 맞게 옮겨 서술할 것.
- 조건에 맞지 않거나 맞춤법, 어법에 맞지 않을 경우 감점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게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등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짝잡소-.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短杖)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 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1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 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중략>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찾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이리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時)를 초(草)하였다.

<중략>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 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 열일곱 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펴이나 괴롭고 슬픈 것같이 생각하려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 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 비용 삼천 원. 신혼 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하여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싶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며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② 여정을 따라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의식을 연속적으로 펼쳐내고 있다.
 - ③ 3인칭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내용을 전개하며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등장한다.
 - ④ 잦은 심표의 사용으로 긴 문장에 리듬감을 부여하며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⑤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2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내용의 전환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며 특별한 갈등 요소를 부각시켜 준다.
 - ② ㉡ - 행복의 가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둔 인물이 자기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갖는다.
 - ③ ㉢ - 정해진 행선지를 바꾸기 위해 머뭇거리는 구보의 행동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성격을 드러낸다.
 - ④ ㉣ - 연애 대상보다는 문학적 연애 감정에 탐닉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엿볼 수 있다.
 - ⑤ ㉣ -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詩)를 초(草)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 게다.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열입곱 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꺾이나 괴롭고 슬픈 것같이 생각하려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 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 비용 삼천 원, 신혼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하여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싶었다.

- 중략 -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흥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다.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팔뚝시계는-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팔뚝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典當) 나온 십팔금 팔뚝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가지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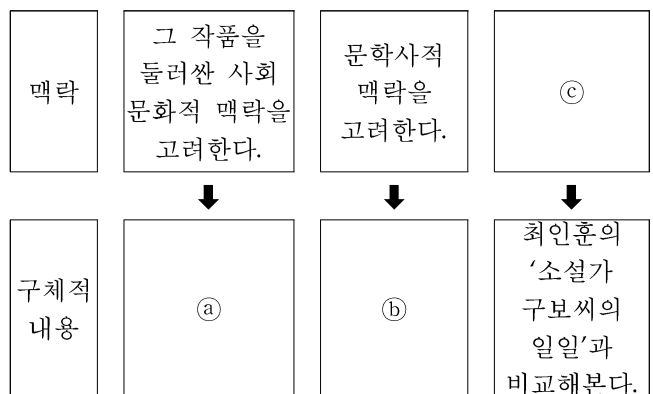
뵘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의 약한 행동력과 관념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② 파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인과적 연관성 없이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와 주인공의 거리감을 확보하여 1인칭 시점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가 교체하는 형식을 통해 주인공의 복합적인 내면을 드러낸다.
 - ⑤ 문두의 일부를 끊어 소재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시에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26. 다음은 작품 읽기에서 고려할 맥락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현대사회의 익명성의 문제점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체가 돋보인다.
 ㉣: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고려한다.
- ② ㉠: 무기력한 지식인은 당시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것이다.
 ㉡: 장면과 장면이 이어지는 몽타주 기법이 사용되었다.
 ㉣: 그 작품과 다른 작품들 간의 맥락을 고려한다.
- ③ ㉠: 1970년대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시민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리얼리즘의 획일성에 반대하여 나타난 작품이다.

- ㉔: 작품 안에 있는 상징적 맥락을 고려한다.
- ④ ㉔: 1930년대는 식민지가 심화되었고, 경성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 ㉕: 과거의 회상 속에 서사 구조가 매우 빈약하다.
- ㉖: 독자 중심의 효용론적 관점의 맥락을 고려한다.
- ⑤ ㉔: 당시 배경이 되는 경성은 근대의 도시화로 몰락한 농민과 도시 실업자들이 많았다.
- ㉕: 해방 후 비참한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㉖: 작가의 다른 작품들의 내용적 맥락을 고려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삶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게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㉑ 전차 안에서
 ㉒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㉓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중략>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중략>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걸눈질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걸눈질한 남자의 꼴을, 걸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

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알은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체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 속 그옥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일 년 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㉕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 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하략>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27.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세태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이 자신의 심리와 경험을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④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⑤ 뚜렷한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단편적인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28.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문두를 끊어 그대로 소재목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 ② ㉒ :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독자가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가게 한다.
 - ③ ㉓ : 목적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삶의 형태를 표현한다.
 - ④ ㉔ : 구보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이다.
 - ⑤ ㉕ : 여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다.

29.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의문과 가정의 표현을 쓰고 있다.
 ㄴ. 여인의 속물적인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ㄷ. 구보의 약한 행동력과 관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ㄹ. 구보와 여자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중략>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중략>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홍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다.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팔뚝시계는—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팔뚝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 나온 십팔금 팔뚝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뵘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30.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전개한다.
 - ② 등장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다.
 - ③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한다.
 - ④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통해 현대사회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낸다.
 - ⑤ 자연과 대립하는 인물의 패배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31.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행선지가 없는 구보의 행보를 통해 목적의식이 희박한 삶의 행태를 표현한다.
 - ② ㉡ 구보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취득할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태도를 보인다.
 - ③ ㉢ 구보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 목표가 '고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 시공간의 힘에 저항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 ⑤ ㉣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당시의 세태가 드러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구보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26살의 지식인이지만 안정된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 구보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지만, 구보는 수도 경성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젊은 내외가, 너덧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사오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壽男)이나 복동(福童)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을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머영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㉔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찍음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 동전을 골라 내었을 때, 차는 종묘(宗廟)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㉕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 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2.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외부의 사건보다 내면 심리가 서술의 중심을 이룬다.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는 인물의 행동과 촉발되는 의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식에 인과성을 부여한다.

- ㄷ. 심표를 사용하여 정돈되지 않은 인물의 사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ㄹ. 작품 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여 그에 의해 이야기되는 듯한 착각을 준다.
- ㅁ. 인물의 생각과 대화를 특별한 구분 없이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33. 윗글이 ㉑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그들의 행복을 확신하는 구보의 태도는 오히려 행복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
- ② ㉒ : 단장과 공책은 구보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는 자기 삶의 행복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㉓ : 갈 곳이 있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자신의 처지에서 구보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되고 이는 총동적으로 전차에 뛰어오르는 계기가 된다.
- ④ ㉔ : 구보는 고독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자기 위안임을 깨달으며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 ⑤ ㉕ : 우연히 펼쳐진 숫자들에서 굳이 의미를 찾으려는 구보의 행위는 일상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34.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A]에서 알 수 있는 구보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십시오.
- (2) <보기>에서 (1)의 구보의 심리 상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역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얼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담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
임을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3) 윗글의 구보와 <보기>의 화자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구보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26살의 지식인지만 안정된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 구보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지만, 구보는 수도 경성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집을 나와 천변 길을 광고로 향하여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하고 대답 못 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하기가 중문을 여닫으며 구보는 '네' 소리를 목구멍까지 내어 보았던 것이나, 중문과 안방과의 거리는 제법 큰 소리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광고롭게 활짝 열린 대문 앞을, 때마침 세 명의 여학생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그렇더라도 대답은 역시 하여야만 하였었다고, 구보는 어머니의 외로워할 때의 표정을 눈앞에 그려 본다. 처녀들은 어느 틈엔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구보는 마침내 다리 모퉁이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일 있는 듯싶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추어진다. 그는 어딜 갈까 생각하여 본다. 모두가 그의 갈 곳이었다. 한 군데라도 그가 갈 곳은 없었다.

한낮의 거리 위에서 구보는 갑자기 격렬한 두통을 느낀다. 비록 식욕은 왕성하더라도, 잠은 잘 오더라도, 그것은 역시 신경쇠약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떠름한 얼굴을 하여 본다.

취박(臭剝) 4.0

취나(臭那) 2.0

취안(臭安) 2.0

고정(苦丁) 4.0

수(水) 200.0

1일(一日) 3회(三回) 분복(分服) 2일분(二一分)

그가 다니는 병원의 젊은 간호부가 반드시 '삼비스이'라고 발음하는 이 약은 그에게는 조그마한 효험도 없었다.

그러자 구보는 갑자기 옆으로 몸을 비킨다. 그 순간 자전거가 그의 몸을 가까스로 피하여 지났다. 자전거 위의 젊은 이는 모멸 가득한 눈으로 구보를 돌아본다. 그는 구보의 몇 7칸통 뒤에서부터 요란스레 종을 울렸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위험이 박두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가 '3B수(水)'의 처방을 외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의 왼편 귀 기능에 스스로 의혹을 갖는다. 병원의 젊은 조수는 결코 익숙하지 못한 솜씨로 그의 귓속을 살피고, 그리고 대답하게도 그 안이 몹시 불결한 까닭 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선언하였었다. ㉠한 덩어리의 '귀지'를 갖기보다는 차라리 사 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중이염을 앓고 싶다 생각하는 구보는, 그의 선언에 무한한 굴욕을 느끼며, 그래도 매일 신경질나게 귀 안을 소제하였었다.

그러나, 구보는 다행하게도 중이질환(中耳疾患)을 가진 듯 싶었다. 어느 기회에 그는 의학 사전을 뒤적거려 보고, 그리고 별 까닭도 없이 자기는 중이가답아(中耳加答兒)에 걸렸다고 혼자 생각하였었다. 사전에 의하면 중이가답아에는 급성 1급 만성(急性及慢性)이 있고, 만성 중이가답아에는 또다시 이를 만성건성 급 만성습성(慢性乾性及慢性濕性)의 이자(二者)로 나눈다 하였는데, 자기의 이질(耳疾)은 그 만성습성의 중이가답아에 틀림없다고 구보는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실한 것은 그의 왼쪽 귀뿐이 아니었다. 구보는 그의 바른쪽 귀에도 자신을 갖지 못한다. 언제든 수이 전문의를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1년이나 그대로 내버려둔 채 지내온 그는, 비교적 건강한 그의 바른쪽 귀마저 또 한편 귀의 난청(難聽) 보충으로 그 기능을 소모시키고, 그리고 불원한 장애에 '툄케르 청장관(聽長管)'이나 '전기보청기'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네거리애 아무런 사무(事務)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광고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나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의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의 코 위에 걸려 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盲點)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眼科再來)'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R, 4 L, 3

구보는, 이 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強度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목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었다.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 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덧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사오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壽男)이나 복동(福童)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㉔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머뭇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혀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㉕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짝음소,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宗廟)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㉖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겐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 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어다 보며, 문득 대학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마막 차에 오른 듯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게다. 그가 만일, 오직 그 뿐이라고 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줄(拙)하다고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怯)하여, 얼토당토않은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하락>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中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주인공의 공간 이동에 따라 이야기들이 유기적으로 배열되어 전체 주제 의식을 통일성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작가의 개입에 의한 해설과 직접적인 설명 속에, 인물의 관찰 내용과 심리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③ 1930년대 도시 문명이 지닌 병적인 징후와 경성의 세태 풍속을 고현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모더니즘 소설에 속한다.
- ④ 작가의 호가 '구보'인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실제 삶을 반영한 자전적 소설로, 당시 소심하고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구보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 인물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모습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다.

36. 윗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 어절을 소재목처럼 처리하여 활자 크기에 변화를 줌으로써 시각적인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약 처방전을 작품 속에 그대로 배치하는 비일상적인 표현을 통해 소설 속 상황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서술하는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 인물의 복합적인 내면의식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만연체 문장을 통해 구보의 정돈되지 않은 생각의 전개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그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심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생각나는 대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으며, 독자가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37.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 : 구보의 신경질적이고 결벽증적인 행동은 당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 : 구보가 젊은 내외를 부러워하다가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 ③ ㉢ : 모두가 뚜렷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상황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타인과 단절된 소외된 모습을 보여준다.
- ④ ㉣ : 지식인으로서 고독을 사랑한다고 자기위로를 하며, 세상과 화합하려는 자기 극복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⑤ ㉣ : 구보는 동전 발생 연도를 보며, 행복과 의미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38. <보기>는 윗글의 제목을 차용하여 시인의 삶을 시화한 작품 중 일부이다. 서로 비교하며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오해하고싶더라도제발오해말아요
 시인도시(詩)먹지않고밥먹고살아요
 시인도시(詩)입지않고웃입고살아요
 시인도돈벌기위해일도하고출근도하고돈없으면라면먹어요
 오해하고싶더라도제발오해말아요
 오해하고싶으면제발오해해줘요
 시인도밥만먹고는못살아요
 시인도마누라만으로는못살아요
 구경만하고는만족못해요
 그러니까시인도무슨짓을해야지요
 무슨짓을하긴하는데그게좀그래요
 정치는정치가들이더좋아하고
 사기는사기꾼들이더좋아하고
 밑수는밑수업자들이더잘하고(중략)
 그래요미쳤지요하지만시인도
 밥먹고살아요돈벌기위해일도하고
 출근해요출근하지못하면정말곤란해요
 순사가검문하면주민등록증보여야해요(중략)
 거리를가다가혹시(詩)가있거든눈썹이며
 그곳이나비누로닦아주고안부나
 그렇게만전해줘요그게그렇다구요

- 오규원, 「시인 구보 씨의 일일」中

- ① 이석 : 윗글과 달리 <보기>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어.
- ② 동률 : 윗글과 <보기> 모두 근대화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은 지식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 ③ 청준 : 윗글은 예술가의 자책감과 번민(煩悶)을 보여주고 <보기>는 예술가도 평범하고 세속적인 생활인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어.
- ④ 형도 : 윗글은 어머니와 구보의 갈등구조를 통해, <보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삼

기>는 띄어쓰기를 무시하며 기존 세계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어.

- ⑤ 희열 : 윗글은 <보기>와 달리 예술가는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

39. <보기>와 윗글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1) 기법의 명칭을 쓰고, (2) 이 기법을 쓴 작가(박태원)의 의도를 윗글의 주제와 관련지어 추론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봉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봉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놈은 작은놈대로 큰놈은 큰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가 좋았다. 내려 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봉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등이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봉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우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가지 않는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 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송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르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쩔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며,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치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열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胃擴張)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십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간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퍼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즈메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 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을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 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

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내가 등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영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의 둘째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 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는 한번 흘깃 보기에,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④ 첫 어절을 소제목에 활용하는 독특한 서술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⑤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이야기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41. 위 ㉠-㉣에 나타나는 구보의 의식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자신처럼 고독을 피하러 온 사람들이 많음을 알게 된다.
 - ② ㉡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멸시한다.
 - ③ ㉢ :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는 사람의 모습에 실망한다.
 - ④ ㉣ : 황금을 쫓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현실적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다.
 - ⑤ ㉣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한 자신을 비웃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는 서울 거리의 풍물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세태를 바라보는 '구보'의 관찰과 생각 속에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경성의 다양한 현실이 잘 표현되어 있다. 당대 경성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병폐가 생겨났고, 황금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 ① 사람들 사이에는 무관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 ② 많은 사람들이 사행심에 빠져 황금에 열광하고 있었다.
- ③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할 문인들조차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 갔다.
- ④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었다.
- ⑤ 황금광 시대의 물결은 한 때 '구보'조차 황금의 매력에 심취하게 했다.

43. 윗글을 <보기>의 '고도의 소설적 기교'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소설가 '구보'가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며 보낸 하루를 재현한 글로써, 「조선 중앙 일보」에 연재되었던 박태원의 중편 소설이다. 특히 이 작품은 고도의 소설적 기교를 사용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① 지지각각으로 변화하는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된다.
- ② 일정한 스토리가 없이 주로 관찰과 단편적인 장면의 나열로 전개하고 있다.
- ③ 논리적 매개 없이 연상되는 조각조각의 이미지를 재현한 몽타주 기법이 드러난다.
- ④ 실제 현실을 고증하여 취사선택한 후 소설에 반영하는 고현학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44.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슬비 오는 날.
종로 오가 서시오 판 옆에서
낮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열한 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 신은 운동환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허리선 먼 길 떠 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건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흥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 신동엽, '종로 오가'

- ① <보기>는 윗글과 달리 공간적 이동에 따라 전개된다.
- ② 윗글은 <보기>와 달리 도시 빈민 노동자의 비애가 드러난다.
- ③ 윗글은 <보기>와 달리 타인을 바라보는 연민의 감정이 드러난다.
- ④ 윗글과 <보기> 모두 사람들 간의 온정이 메마른 도시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⑤ 윗글과 <보기> 모두 당시 시대상에 대한 인식이 인물의 시각을 통해 드러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 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녀석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

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열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の)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나이와,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 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45.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 ③ 구보는 세태를 보여주는 인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첫 어절을 소재목으로 처리하는 독특한 서술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⑤ 구보의 이동에 따른 관찰과 단편적인 장면의 나열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46. 뒷글에서 볼 수 있는 서술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추측형 문장을 사용하여 인물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세태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넓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중략>

(나)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복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열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の)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펴들었다. <중략>

(라) 황금광 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질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중략>

(마) 문득 한 사나이가 동글넙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영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나이와 자리를 같이 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나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가 한번 흘끗 보기에, 한 사나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의

로 나서는 때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47.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대화와 서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관찰한 내용과 연상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시선으로 대상을 서술함으로써 초점 인물의 생각에 독자로서 하여금 공감하게 한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추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4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인생'은 활기차고 인간 냄새가 나는 삶으로 구보가 경성역을 찾아가는 이유이다.
 - ② (나)에서 '중년의 시골 신사' 와 (나)의 '벗'은 식민지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혜택을 누리는 속물적 인간들을 상징한다.
 - ③ (다)에서 '젊은 아낙네'의 행동은 구보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④ (라)에서 '황금광 시대'는 도시의 일상적 삶 속에 숨겨진 자본주의 문화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구보는 황금을 쫓는 사람들을 일면 부러워하고 있다.
 - ⑤ (마)에서 우유부단하여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구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용을 받혀대인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것이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누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

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찍음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12년, 11년, 8년, 12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겐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 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설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 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떨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마약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씨'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물을 게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축하하고 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암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얼토당토 않은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중략>

(나)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은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세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약무인한 소리가 구포씨, 아니요...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2, 3년 일찍 마친 사나이. 어느 생명보험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아는 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덕하여 보이고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나이가 또 한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요,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요. 참, 최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씨.

이 사나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나리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딱한 사나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심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 싶은 것을 눈치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구,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없는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나이를 고급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仇甫讀者勸誘員)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십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포 선생, 하고 최군이라 불리운 사나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鵞)의 <승방비곡>과 윤백남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보험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나이는, 가장 영리하게, "물론 선생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간신히 그것들을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로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나이가 원호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나이에겐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고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서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49.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적 이동을 통하여 대상을 관찰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보여준다.
- ②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긴박함을 고조시키는 갈등을 유발한다.
- ③ 작중 인물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내면적 심리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50. ㉠~㉣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고독함과 우울함을 자신이 일부러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② ㉡ :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 : 타인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51. (나)의 '구보 씨'가 '사내'와 '최 군'을 대하는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 ② 위선적인 모습을 지닌 인물에 대해 그 가식을 벗게 하고 있다.
- ③ 자신과 행동을 통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 ④ 속물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냉소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도리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가엽게 여기고 있다.

52. <보기>를 고려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태원의 호는 구보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박태원의 초기 소설은 문체, 기법, 주제 등에 있어서 모더니즘 소설의 여러 특징을 보인다. 작품의 이데올로기보다는 문장 그 자체의 예술성을 중시하고, 새로운 소설적 기법을 시도하는 한편, 인물의 내면 의식 묘사를 중시하는 등 강한 실험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박태원은 어떤 특정한 시기의 세태의 단면을 묘사하는 세태소설을 주로 창작했는데, 고현학(考現學 : 현대적 일상생활의 풍속을 면밀히 조사, 탐구하는 행위)이라는 자신의 창작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이를 적용시킨 작품이 바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다.

- ① 인물 간의 갈등보다 '구보'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네치중하였다.
- ② 구보가 겪은 단편적 사건들을 뚜렷한 인과적 연관성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
- ③ 주인공 이름을 '구보'로 설정하고, 주인공을 '소설가'라는 직업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아 자전적 성격의 소설이다.
- ④ 전차 안이나 다방에서 볼 수 있는 풍물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으므로 세태 소설적인 성격을 지닌다.
- ⑤ '전차 안에서', '다방'과 같이 첫 어절을 소재목으로 처리하거나, 잦은 심표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소설적 기법을 시도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있을 수도 없게서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쇠잔한 몸을 이끌고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열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화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십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얽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나이와,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 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나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은,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부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뜨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질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은 구보는 보고, 느끼

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나이가 등골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영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나이와 자리를 같이 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5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서술자가 인물들에 대해 논평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ㄴ. 공간이동의 따른 관찰과 단편적인 장면을 나열하고 있다.
- ㄷ. 인물의 의식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 ㄹ.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ㄹ.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ㄹ

54.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은 시대의 산물인 동시에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창작될 당시의 사람들이 지녔던 생각과 시대상황이 담겨 있다. 이 때 시대란 작품이 담아내고자 하는 세계가 구체적으로 자리 잡은 배경을 뜻한다.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

- ① 구보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 유형을 추측해 본다.
- ② 구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의 갈등 양상을 파악해 본다.
- ③ 구보가 목격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반영된 세태를 추론해 본다.
- ④ 당시의 인물들의 외양묘사를 토대로 작가의 창작기법을 파악해 본다.
- ⑤ 당시의 경성 시내를 배회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의 전체 구조를 파악해 본다.

55. <보기>에 대한 구보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금' '금' '금' 금값의 폭등이 잔치집같이 조선을 발끈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사실이다. 물론 금광으로 해서 망한 사람이 수도룩하니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몇 십 만원짜리 하다 못해 몇 천 원짜리의 부자가 수도룩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 더 잘 눈에 띈다. 또 그것으로 해서 소위 '경기'라는 것도 무척 좋아졌다. 지금 한 괴물이 조선 천지를 횡행한다. '금'이라는 놈이다.

- ① 문인들조차 직업을 갖는 것보단 금광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겠군.
- ②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할 사람들까지도 금광에 매달리는 시대라니 안타깝군.
- ③ 요즘 황금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경성역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군.
- ④ 결국 황금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기는 현실 불가능한 허황된 꿈일 뿐이야.
- ⑤ 황금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진실한 인생이었을 지도 모르겠군.

56. 윗글의 밑줄 친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녀는 보기 드물게 눈에 뜨이는 미인이다.
- ② 우리는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밤에 움직였다.
- ③ 간밤에 늦게 잤더니 아침 늦게야 눈이 뜨였다.
- ④ 아침에 눈 뜨기가 무섭게 학교로 달려가야만 했다.
- ⑤ 지난 몇 년간 사회는 눈에 뜨이는 발전을 이루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네거리 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쓸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덧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중략)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용을 받혀대인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중략)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넓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쨌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 사람들은 그곳에 뻘뻘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집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누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녀석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복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게다. (중략)

[A]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질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도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은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 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와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나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영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가나. 응, 자네는..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단락의 첫 단어를 소재목으로 설정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 ② ㉡은 '구보'가 '젊은 내외'를 보며 조선 상류층의 역사의식 부재를 느꼈기 때문이다.
 - ③ ㉢은 '구보'가 경성역을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 ④ ㉣은 타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⑤ ㉤은 근대화로 인한 병폐를 육체적 질병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58.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슬비 오는 날, / 종로 5가 서시오판 옆에서
낮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열한시 반, / 통금에 쫓기는 군상(群像)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 새로 사 신은 운동화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허리선 먼 길 떠나온 고무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 전라남도 해남땅 어촌(漁村)
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 신동엽, '종로 오가'

- ① 위 글과 <보기> 모두 침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② 위 글과 <보기> 모두 인물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다.
- ③ 위 글의 '구보'와 <보기>의 화자 모두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 ④ 위 글에서는 '구보'의 고독이, <보기>에서는 '나'의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⑤ 위 글에서는 당대 '경성'의 모습을, <보기>에서는 당대 '종로 오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59.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A]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시대적 모습과,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구보의 태도를 서술하시오.
- (2) [A]부분에 나타난 서술상의 창작 기법을 예를 들어 한 가지 서술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를 보게 된다. 구보는 이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중략>

표, 짝음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중요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1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중략 줄거리] 전차를 탄 구보는 어디에서 내릴 지를 고민하던 중, 일 년 전에 그와 선을 본 적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된다. 구보는 그 여자를 힐끔힐끔 보면서 그녀에게 아는 척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그녀는 전차에서 내린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 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 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더 대답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 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5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던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 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시하였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 집으로 솔직하게 구혼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쩍게서리 여자를 괴롭혀 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 관계가 있는 노마나님이 와서 색시 집에서도 이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싶더라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느니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㉔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하여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전차가 약초정(若草町) 근처를 지나갈 때, 구보는,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뜻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띠어 본다. 그의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도 양산을 놓고 있었다. 어느 잡지에선가, 구보는 그것이 비(非)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운 일이 있다. 탄은 머리를 틀어 올렸을 뿐이나, 그만 한 나이로는 저 여인은 마땅히 남편은 가졌어야 옳을 게다. 아까, 그는 양산을 어디다 놓고 있었을까 하고, 구보는, 객쩍은 생각을 하다가, 여성에 대하여 그러한 관찰을 하는 자기는, 혹은 어떠한 여자를 아내로 삼든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㉕그러나 여자는- 여자는 능히 자기를 행복되게 하여 줄 것인가. 구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가만히 한숨지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62.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고현학'(考現學)에 입각해 모더니즘 소설의 경지를 개척한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고현학이란 고고학(考古學)의 반대쪽에 있는 말이다. 고고학이 과거 유물을 통해 그 시대를 재현해내는 것이라면, 고현학이란 현대적인 일상생활을 풍속을 면밀히 조사 탐구하는 행위를 보여 시대를 들여다보고 대변하는 것이다. 충실하게 고현학으로 재현한 구보의 일상은 76년이 지나 고고학의 중요한 재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① 운유 : '전차', '차장', '경정 운동장' 등의 단어를 통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의 서울은 상당히 도시화가 진행된 공간임을 알 수 있어.
- ② 중현 : 이 소설에서는 의문, 가정, 추측의 어미 및 어휘를 사용하여 주인공 '구보'의 약한 행동력과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 ③ 태민 : '구보'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인데 이러한 행복이 결여된 '구보'는 작품 전체에서 항상 고독을 느끼고 있어.
- ④ 기범 : 이 소설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소설의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아 일반적인 소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
- ⑤ 민호 : 이 소설은 문두의 일부를 끊어 소재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설이 발표된 당시에는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을 거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헤어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5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㉔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자기가 ㉕그를, 그 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숙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시하였었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 집으로 솔직하게 구혼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쩍게서리 여자를 괴롭혀 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㉖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 관계가 있는 노마나님이 와서 색시 집에서도 이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라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www.namuacademy.com

6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 ②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서술을 전개하며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심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지게 함과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이동 경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 ⑤ 생각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돈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만연체 문장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의식을 그리고 있다.

61. ㉔~㉖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 ② ㉕ : 여성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하였다.
- ③ ㉖ : 여성의 의사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혼인이 진행될까 걱정하고 있다.
- ④ ㉔ :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만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여자에게 반감을 보이고 있다.
- ⑤ ㉖ : 자신이 미래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느니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하여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전차가 약초정(若草町) 근처를 지나갈 때, 구보는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뜻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띠어 본다. 그의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도 양산을 놓고 있었다. 어느 잡지에선가 구보는 그것이 비(非)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운 일이 있다. 단은 머리를 틀어 올렸을 뿐이나, 그만한 나이로는 저 여인은 마땅히 남편은 가졌어야 옳을 게다. 아까 ㉠그는 양산을 어디다 놓고 있었을까 하고 구보는 객쩍은 생각을 하다가, 여성에 대하여 그러한 관찰을 하는 자기는, 혹은 어떠한 ㉡여자를 아내로 삼든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여자는 능히 자기를 행복되게 하여 줄 것이다. 구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가만히 한숨 지었다.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이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 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은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詩)를 초(草)하였다. 그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중략)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일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젠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리어 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 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 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흥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다.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게다. 팔뚝시계는 -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손목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典當) 나온 십팔금 손목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가지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뱀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후략)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63. 다음은 '독서토론회'에서 이 글을 읽고 나눈 대화이다. 감상의 준거(準據)가 나머지와 다른 한 사람은?

재원 :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1930년대라는 시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해. 그래야 '구보'가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당대의 지식인이면서 나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

효섭 : 이 작품은 '의식의 흐름'기법이라는, 정통 소설 장르가 중요시하는 플롯을 무시한 표현기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작가가 이러한 기법을 통해 전달하려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도 이 소설을 감상하는 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건규 : 다른 것 모르겠고, 이 작품은 한 문장 안에 심표가 너무 자주 등장해 몽타주나 오버랩 등의 표현기법과 함께 등장인물 '구보'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한방법인 듯 해.

건황 : 작품을 읽다가 '벗의 누이'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위해 해 주었다는 '딱지 찾아주기' 일화에서 나는 헛웃음이 나왔는데, 시대와 관련지어 감상해 보면, 당시 일제가 심은 밀정의 교활함에 대한 풍자인 듯해.

정빈 : 나는 가히 '의식의 흐름'기법의 완결이라고 할 만한 영국작가 J.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읽어보고 싶어졌어. 아무래도 그 작품에 영향 받은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 '율리시즈'도 주인공의 하루를 소설화한 거래. 장장 세권 분량으로 번역되었다는데, 올해의 내 독서 목표 1호로 정했어.

- ① 재원
- ② 효섭
- ③ 건규
- ④ 건황
- ⑤ 정빈

64. 다음 중,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바른 것은?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단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시선에 잡히는 단편적 사물들을 통해 인물의 생각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소설의 전통적 플롯을 중시하여 사건의 논리적 인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시술되어 있다.
- ④ 물질남성을 추구하는 당대 사람들의 속물성을 은근히 조롱하면서 지식인의 상대적 우월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일종의 산책형 소설로 주인공의 이동경로가 '동대문→한강교→훈련원→약초정→조선은행'으로 전개되고 있다.

65. 위의 밑줄 친 ㉠ ~ ㉡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중략)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나)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중략)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 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 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5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중략)

전차가 약초정(若草町) 근처를 지나갈 때, 구보는,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뜻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띠어 본다.

(라)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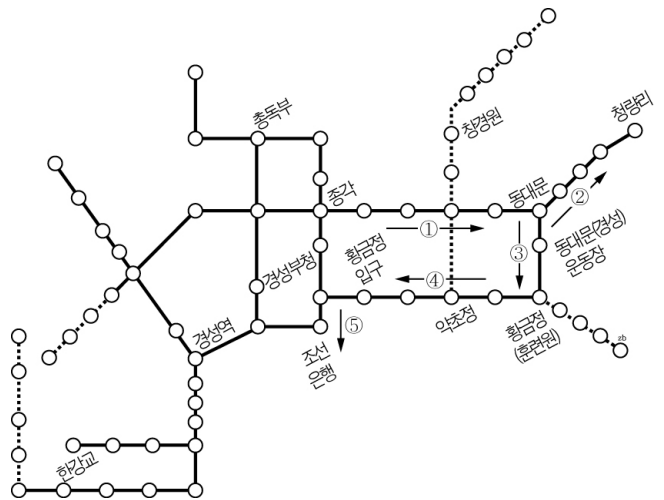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흥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나,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팔뚝시계는 -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팔뚝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6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두를 소재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③ 잦은 심표의 사용으로 인물의 섬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는 주로 전지적 작가이나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 ⑤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전개에 빠른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67. 아래 그림은 위 글이 발표될 당시의 서울 전차 노선도이다. 화살표가 구보의 이동 방향이라고 보았을 때, 위 글에 드러난 구보의 이동 방향이 아닌 것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 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 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 하나 세어 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5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시하였었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 집으로 솔직하게 구혼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경우에 객쩍게서리 여자를 괴롭혀 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

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 관계가 있는 노마나님이 와서 색시 집에서도 이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싶더라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느니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하여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전차가 약초정(若草町) 근처를 지나갈 때, 구보는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뜻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띠어 본다. 그의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도 양산을 놓고 있었다. 어느 잡지에선가, 구보는 그것이 비(非)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운 일이 있다. 탄은, 머리를 틀어 올렸을 뿐이나, 그만한 나이로는 저 여인은 마땅히 남편은 가졌어야 옳을 게다. 아까, 그는 양산을 어디다 놓고 있었을까 하고, 구보는 객쩍은 생각을 하다가, 여성에 대하여 그러한 관찰을 하는 자기는, 혹은 어떠한 여자를 아내로 삼든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여자는 능히 자기를 행복되게 하여 줄 것이다. 구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가만히 한숨지었다.

일찍이

구보는, 벼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벼를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벼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주 벼를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時)를 초(草)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 게다.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열 일곱 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펴이나 괴롭고 슬픈 것같이 생각하려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 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비용 삼천 원, 신혼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하여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싶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벼와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일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젠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 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중략>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후략>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6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의 내면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와 초점의 주체(보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69. 이 글의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이야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원 : '구보'씨가 여자에게 호감을 먼저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심하고 솔직하지 못한 성격을 지녔군.
 - ② 영은 : '구보'씨는 선 본 여자와의 교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군.
 - ③ 가인 : '구보'씨는 양산을 놓고 있는 젊은 여자를 통해 행복한 결혼을 할 자신감이 없음을 깨닫는군.
 - ④ 지석 : 짝사랑하던, 벼의 누이의 결혼 후, 구보씨는 그녀에게서 현실적이고 속물적인 면을 보고 실망하는군.
 - ⑤ 수현 : '구보'씨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중략>

(a)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벼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서,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마약 차에 오른 듯깊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게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줄(拙)하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암전 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怯)하여, 얼토당토않은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는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일 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의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런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은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결눈질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결눈질한 남자의 꼴을, 결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고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알은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체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그욕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일 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 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챈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7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②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시간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해 가고 있다.
- ③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심리적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줘서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⑤ 소재목을 설정하여 서술자 눈에 보이는 대로 단편적인 생각들을 서술하는 동시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71. (a)에 나타난 구보의 심정과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은?

- ①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랜 앓은 기침소리야 / 쓴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룩싸룩 눈꽃은 쌓이고 / 그래 지금은 모두들 /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 ② 올해도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 작년 이맘때 오른/ 산마루 옛 성(城)터 바위 모서리/ 작년처럼 단풍은 붉고// 작년처럼/ 가을 들판은 저물어간다.

- 김중길, <단풍>

- ③ 오래 고통 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지는 해의 힘없는 햇빛 한 가닥에도 / 날카로운 풀잎이 땅에 처지는 것을// 그 살에 묻히는 소리 없는 괴로움을 / 제 입술로 활아주는 가녀린 풀잎

- 이성복,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 ④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72. <보기>의 설명을 참조하여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문학의 용어를 쓰시오.

<보기>

이러한 기법의 소설은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것보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루게 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찍이

구보는, 벼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벼를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 하러 나온 벼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아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자주 벼를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은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詩를) 초(草)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 게다.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열 일곱 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꺾이나 괴롭고 슬픈 것같이 생각하려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 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 비용 삼천 원. 신혼 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하여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싶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벼와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일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 대해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젠대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 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 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 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흥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다.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팔뚝시계는 -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팔뚝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典當) 나온 십팔금 팔뚝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뽀뽀로 실로 싼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후략)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73. 위 글을 <보기>의 관점에서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기법은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을 조각 조각 분리하지 않고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연속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 ① 구보의 이동 경로와 다양한 사고의 필연적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
- ② 심표의 잦은 사용으로 정돈되지 않은 구보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 ③ 구보의 내면 의식은 사건의 순서와 서사적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드러난다.
- ④ '벼의 누이'의 말은 모두 구보의 의식 속에 있는 것으로 큰 따옴표 없이 서술된다.
- ⑤ 구보가 보고 들은 것보다 그것을 계기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을 이룬다.

7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결혼 후 속물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벼의 누이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였다.
- ③ ㉢ : 교활한 수법으로 다른 아이의 딱지를 빼앗았다.
- ④ ㉣ : 물질적 가치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 ⑤ ㉤ : 자신의 사랑과 행복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다.

75. ㉣과 같이 생각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인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 ② 행복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 ③ 구보에 대한 여인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 ④ 구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 ⑤ 여인과 구보의 무미건조한 만남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76. <보기>의 화자가 '구보'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 사년 일 개월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 '참회록'

- 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도록 노력하세요.
- ②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선 고독감을 떨쳐 버리도록 노력하세요.
- ③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포용해보도록 노력하세요.
- ④ 자신에 대해 회의감만 갖지 말고 달라지려는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 ⑤ 자신의 생각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과 아내를 구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대해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게 모종의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거리를 헤매다 아무런 목적 없이 전차를 탄 구보는 옛날에 선보았던 여자를 만나고, 그녀가 자기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던 와중 그녀가 전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릴까를 고민하다가 차는 출발해 버리고 만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하지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 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와 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 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이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5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숙인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시하였었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 집으로 솔직하게 구혼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경우에 객쩍게서리 여자를 괴롭혀 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관계가 있는 노마나님이 와서 색시집에서도 이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라 말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라면, 그것은 희극이라느니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하여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전차가 약초정(若草町) 근처를 지나갈 때, 구보는,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뚝뚝 웃음을 입가에 띠어 본다. 그의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서 양산을 놓고 있었다. 어느 잡지에선가, 구보는 그것이 비(非) 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운 일이 있다. 탄은, 머리를 틀어 올렸을 뿐이나, 그만한 나이로는 저 여인은 마땅히 남편은 가졌어야 옳을 게다. 아까, 그는 양산을 어디다 놓고 있었을까 하고, 구보는, 객쩍은 생각을 하다가, 여성에게 대하여 그러한 관찰을 하는 자기는, 혹은 어떠한 여자를 아내로 삼든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 여자는 능히 자기를 행복되게 하여 줄 것인가. 구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가만히 한숨지었다.

(중략)

조선 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흥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다.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팔뚝시계는 -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팔뚝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典當) 나온 십팔금 팔뚝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뽀뽀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뒷부분 줄거리)

다방에 들어간 구보는 차를 마시면서 자기에게 약간의 여행 경비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문득 벗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그는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성역 대합실을 찾아가나 그곳에서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과 슬픔을 발견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중학교 시절의 열등생과 그의 예쁜 여자 친구를 보며 황금과 물질에 대해 생각한다. 다시 다방으로 돌아간 구보는 시인이자 사회부 기자인 벗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긴다. (중략) 오전 두 시의 종로 네 거리에서 구보는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떠올리며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며 벗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다.

77. 위 작품은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내면 의식 드러내기와 관련이 깊은 이 작품의 문체상의 특징을 쓰시오.

<보기>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아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짜리 문학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를 초하였다.

78. <보기>에서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주인공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필연적인 사건들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 주인공이 관찰한 것과 생각한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서술자가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 ⑤ ㉠, ㉣, ㉤

7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구보의 어머니는 아들이 소설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② 구보는 시계가 필요하지 않지만 갖는다면 우아한 팔뚝 시계를 갖고 싶어 한다.
 ③ 구보는 자신에게 유일한 여자인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행복하게 해 줄 자신이 있다.
 ④ 구보는 예전에 선을 보았던 여자가 싫지는 않았으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구혼하지 않았다.
 ⑤ 구보는, 두 무릎 사이에 양산을 놓은 여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것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80. <보기>와 관련지어 위 글에 대한 감상을 말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30년대의 경성은 식민지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순을 잘 보여준다. 도시 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지만, 정신보다 물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지식인들은 시대와 불화하여 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 ① 거리의 전차나 은행 등은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와 관련지어 볼 수 있겠어.
 ② 구보가 거리를 방황하며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은 당대 지식인의 정신적 무력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겠군.
 ③ 근대적 거리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구보의 모습에서 시대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당대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④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가족과 전차 안의 양산을 든 여자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당시 근대사회의 모순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어.
 ⑤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한 소녀의 모습도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적 맥락과 연결되는구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과 아내를 구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정력과 시력에 대해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게 모조의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전략>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혀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①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짝쇼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短杖)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1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마약 차에 오른 듯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게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즐(拙)하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래 암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怯)하여, 얼토당토않은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중략>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이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 다섯 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詩를) 초(草)하였다. 그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게다.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열 입곱 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꺾이나 괴롭고 슬픈 것같이 생각하려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 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 비용 삼천 원,

신혼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하여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싶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일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 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제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읽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리어 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丁)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흥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다.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게다. 팔뚝시계는-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팔뚝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典當)나온 십팔금 팔뚝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뵘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후략>

뒷부분 줄거리

다방에 들어간 구보는 차를 마시면서 자기에게 약간의 여행 경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문득 벗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그는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성역 대합실을 찾아가나 그곳에서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과 슬픔을 발견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중학교 시절의 열등생과 그의 예쁜 여자 친구를 보며 황금과 물질에 대해 생각한다.

다시 다방으로 돌아간 구보는 시인이자 사회부 기자인 벗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긴다. 황혼이 되자 벗은 집으로 돌아가고, 구보는 종로 거리를 걷다가 조그만 다료에 들어가 여인과 차를 마시는 청년을 바라보며 질투와 고독을 느낀다.

다료를 나온 구보는 동경 유학 시절의 옛사랑을 추억하며 자신의 용기 없는 행동과 약한 마음 때문에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다방으로 되돌아가는 길에는 우연히 만난 벗의 조카 아이들에게 수박을 사 준 후, 전보 배달의 자전거를 보고 벗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다시 찾은 다방에서 내키

지 않는 대화를 나누다가 벚을 만나 밖으로 나와 어느 여급이 있는 카페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그는 술을 마시며 정신병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유쾌하게 웃는다. 그리고 '여급 대모집'의 의미를 물어 오던 소복 입은 여성을 회상하고 가난과 불행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오전 두 시의 종로 네 거리에서 구보는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떠올리며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며 벚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8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전통적인 소설 갈래에서 중시하는 사건의 인과 관계나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 ② 주인공의 일상 속에 작가의 실제 생활이 반영된 자전적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 ③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서술 방식을 통해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 의식을 드러낸다.
- ④ 서술자의 시선에 포착된 거리의 풍경이나 주변 인물들의 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⑤ 주인공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기까지의 하루 행적과 의식의 추이를 서술하고 있다.

82.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구보는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② 구보의 어머니는 아들이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 ③ 그 여자는 구보를 좋아했으나 구보의 무관심함으로 상처를 받아 구보를 외면하고 있다.
- ④ 벚의 누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소녀는 자신이 원하는 돈만 있다면 지극히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83. 위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 : 구보는 고독이 두려워 고독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고 있군.
- ② ㉡ : 구보는 뒤집혀 있는 동전의 숫자를 보면서 그 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새겨보고 있군.
- ③ ㉢ :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아 갈팡질팡하는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④ ㉣ : 구보가 진심으로 벚의 누이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 : 구보는 행복이 물질적 가치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8년. 11년. 12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 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 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벚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전차가 약초정(若草町) 근처를 지나갈 때, 구보는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뜻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띠어 본다. 그의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다 양산을 놓고 있었다. 어느 잡지에선가 구보는 그것이비(非)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운 일이 있다. 탄은 머리를 틀어 올렸을 뿐이나, 그만한 나이로는 저 여인은 마땅히 남편은 가졌어야 옳을 게다. 아까 그는 양산을 어디다 놓고 있었을까 하고 구보는 객쩍은 생각을 하다가, 여성에 대하여 그러한 관찰을 하는 자기는, 혹은 어떠한 여자를 아내로 삼든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 주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 여자는 능히 자기를 행복되게 하여 줄 것인가. 구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가만히 한숨지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벚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일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 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젠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리어 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8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 가고 있다.
 - ② 인물의 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주인공의 하루의 생활을 소재로 삼았다.
 - ④ 심표의 사용으로 변화를 주어 해당 부분에 주목하게 한다.
 - ⑤ 원점 회귀적 여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85. 서술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②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멀다.
 - ③ 서술자와 초점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작품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스물여섯 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가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과 아내를 구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대해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서 모종의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

(나)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중략>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일 년 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의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런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결눈질 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결눈질한 남자의 꼴을 결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라)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헤어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중략>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시하였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 집으로 솔직하게 구혼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경우에 객쩍게서리 여자를 괴롭혀 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마)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벗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이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열다섯 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이리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戀愛時)를 초(草)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보다 세 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

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게다.

<중략>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일곱 살 먹은 사내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젠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 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바) 뒷부분 줄거리

오전 두 시의 종로 네거리에서 구보는 어머니의 슬픈 얼굴을 떠올리면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며 벗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곳에는 불어 드는 바람도 없이 양 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집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고,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 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턱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열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독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간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잡기를 단념하지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퍼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즈메에리 양복 입을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8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서술자는 주인공 구보로 자신의 마음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 ② 며칠 동안 서울을 배회하는 구보의 모습을 통해 당시 지식인의 무기력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③ 긴 문장을 끊는 쉼표의 잦은 사용으로 사건의 흐름을 끊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 ④ 당시의 사회상을 그린 세태소설로 1970년대 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인간의 외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 ⑤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기보다 등장인물의 내부적인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8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가): 구보는 동경까지 다녀온 유학파 작가지만 아내를 얻지 못해 어머니의 걱정을 사고 있다.
 - ② (나): 구보는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이 많은 교외를 목적지로 정해 여행을 하고 있다.
 - ③ (다): 구보는 전차에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④ (라): 구보는 선을 본 여자가 마음에 들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솔직하게 구혼하지 못했다.
 - ⑤ (마): 구보는 과거 짝사랑하던 벗의 누이와 결혼하지 못한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절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88. <보기> 중,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 ㄱ.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ㄴ. 서술자의 목소리와 주인공의 목소리가 섞여 나타난다.
- ㄷ.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ㄹ.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인물의 내면에 따라 현실을 포착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89. <보기>는 1930년대 후반의 세태를 묘사한 글이다. 이런 세태에 대한 구보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금' '금' '금' 금값의 폭등이 잔칫집같이 조선을 발끈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사실이다. 물론 금광으로 해서 망한 사람이 수도룩하니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하다못해 몇 천 원짜리의 부자가 수도룩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 더 잘 눈에 띈다. 또 그것으로 해서 소위 '경기'라는 것도 무척 좋아졌다.

지금 한 괴물이 조선 천지를 횡행한다. '금'이라는 놈이다.

- ① 도시적 삶은 이제 지겨워. 농촌으로 돌아가 살아야겠어.
- ②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좇는 것은 당연지사야.
- ③ 사람들이 황금에 물들어 모두 속물들이 되어가고 있군.
- ④ 돈, 명예, 권력 등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참 다양해.
- ⑤ 그나마 소설가나 시인들은 황금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해.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90. 구보가 관찰한 대상과 그들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관찰 대상	판단 근거	판단 내용
① 지계꾼	몸을 웅그리고 앉아 있음	치량하고 기운이 없어 보임
② 노파	눈이 몽롱하고 안면 근육이 굳어 있음	남의 집 드난살이를 하다가 딸네 집에 찾아가고 있음
③ 시골 신사	노파와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함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오만한 태도를 지님
④ 노동자	안구가 돌출되어 있고, 손이 경미하게 떨리고 있음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하며 바세도우씨병에 걸렸다고 생각함
⑤ 개찰구 앞의 두 사내	의혹에 찬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쳐다봄	금광 브로커가 틀림없다고 확신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머니는 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동 못에 걸린 단장을 떼어 들고, 그리고 문간으로 향하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 가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중문 앞까지 나간 아들은, 혹은 자기의 한 말을 듣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또는 아들의 대답 소리가 자기의 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그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이번에는 중문 밖에까지 들릴 목소리를 내었다.

"일즉어니 들어오너라."

역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중문이 소리를 내어 열려지고, 또 소리를 내어 닫혀졌다. 어머니는 얇은 실망을 느끼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려 한다. 중문 소리만 크게 나지 않았으면, 아들의 '네' 소리를, 혹은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다시 바느질을 하며, 대체, 그 애는, 매일, 어딜, 그렇게, 가는, 겐가,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스물여섯 살짜리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는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거리였다.

(중략)

어머니는 역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월급쟁이가 몇 갑절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주 있는 내 아들은 무엇을 하든 잘하리라고 혼자 걱정해 버린다.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 드는 것인가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엘 건너가 공부 하고 온 내 아들이, 구하여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나)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 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넓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게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있을 수도 없게서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나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부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도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은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라) 다료(茶寮)에서 나와, 벗과 대창옥(大昌屋)으로 향하며, 구보는 문득 대학 노트 틈에 끼어 있었던 한 장의 엽서를 생각하여 본다.

물론 처음에 그는 망설거렸었다. 그러나 여자의 속소까지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 한 기회에서 몸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우선 젊었고 또 그것은 흥미 있는 일이었다. 소설가다운 온갖 망상을 즐기며, 이튿날 아침 구보는 이내 이 여자를 찾았다. 우입구 시래정(牛込區 矢來町). 주인집은 그의 신조사(新潮社) 근처에 있었다. 인품이 좋은 주인 여편네가 나왔다 들어간 뒤, 현관에 나온 노트 주인은 분명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쪽에서 미인이 왔다. 그들은 보고 빙그레 웃고 그리고 지났다. 벗의 다료 옆, 카페 여급. 벗이 돌아보고 구보의 의견을 청하였다. 어때 예쁘지. 사실 여자는, 이러한 종류의 계집으로서는 드물게 어여뻐다. 그러나 그는 이 여자보다 좀더 아름답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어서 읍쇼. 설렁탕 두 그릇만 주우. 구보가 노트를 내어놓고, 지기의 실례에 가까운 ㉣심방(尋訪)에 대한 ㉤변해(辨解)를 하였을 때, 여자는 순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모르는 남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은 까닭만이 아닐 게다. 어제 어디 갔었니. 길옥신자(吉屋信子). 구보는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내고, 여자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맞은편에 앉아 벗은 숟가락 든 손을 멈추고 빨리 구보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생각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의미 없이 웃어 보였다. 좀 올라오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였었다. 말로는 태연하게, 그러면서도 그의 붉은 역시 처녀답게 붉어졌다. 구보는 그의 말을 좇으려다 말고, 불쑥, 같이 산책이라도 안하시렵니까, 불일 없으시면.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여자는 마약 어디 나가려던 차인지 나들이옷을 입고 있었다. 통속소설은 템포가 빨라야 한다. 그 전날, 윤리학 노트를 집어 들었을 때부터 이미 구보는 한 개 통속 소설의 작자였고 동시에 주인 공이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여자가 기독교 신자인 경우에는 제 자신 목사의 줄음 오는 설교를 들어도 좋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히고 그러나 구보가, 만일 불일이 계시다면, 하고 말하였을 때, 당황하게, 아니에요 그럼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자는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분명히 자기를 믿고 있는 듯싶은 여자 태도에 구보는 자신을 갖고, 참 이번 주일에 무장야관(武藏野館)도 구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한 자기가 하릴없는 불량소년같이 생각되고, 또 만약 여자가 그렇게도 쉽사리 그의 유인에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리 통속 소설이라도 독자는 응당 작자를 신용하지 않을 게라고 속으로 싱겁게 웃었다. 그러나 설혹 그렇게도 쉽사리 여자가 그를 좇더라도 구보는 그것을 경박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에는 경박이란 문자는 맞지 않을 게다. 구보는 자부심으로서 여자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히 믿을 만한 남자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B] 여자는 총명하였다. 그들이 무장야관(武藏野館) 앞에서 자동차를 내렸을 때, 그러나 구보는 잠시 그곳에 우뚝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뒤에서 내리는 여자를 기다리기 위하여서가 아니다. 그의 앞에 외국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던 까닭이다. 구보의 영어 교사는 남녀를 번갈아 보고, 새로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고 '오늘 행복을 비오' 그리고 체 길을 걸었다. 그것에는 혹은 삼십 독신녀의 젊은 남녀에게 대한 빈정거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소년과 같이 이마와 콧잔등이에 무수한 땀방울을 깨달았다. 그래 구보는 바지 주머니의 수건을 꺼내어 그것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름 저녁에 먹은 한 그릇의 설렁탕은 그렇게도 더웠다.

(마) 구보는 거의 외로운 어머니를 잊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응당, 온 하루,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였을 게다. 오오, 한없이 크고 또 슬픈 어머니의 사랑이여. 어버이에게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또 자식에게로 옮겨가는 여인의 사랑 —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식에게로 옮겨간 까닭에 그렇게도 힘 있고 또 거룩한 것이 아니었을까- 구보는 벗이, 그럼 또 내일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였어도, 거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제 나는 생활을 가지리라. 생활을 가지리라. 내게는 한 개의 생활을,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잠을... 평안히 가 주십시오. 벗이 또 한 번 말했다. 구보는 비로소 그를 돌아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하였다. 내일 밤에 또 만납시다. 그러나 구보는 잠깐 주저하고, 내일, 내일부터, 내 집에 있겠소, 창작하겠소-

"좋은 소설을 쓰시오."

벗은 진정으로 말하고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참말 좋은 소설을 쓰리라. 번을 서는 순서가 모멸을 가져 그를 훑어 보았어도 그는 거의 그것에서 불쾌를 느끼는 일도 없이, 오직 그 생각에 조그만 한 개의 행복을 갖는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91. (가) ~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못마땅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건실한 생활인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 ② (나) : 경성역이라는 근대화된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들 사이의 내면적인 교류가 단절된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도시 군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③ (다) : 구보는 도시의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돈'을 지적하면서, 예술가는 순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④ (라) : 구보는 자신의 연애가 통속 소설과 닮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귀는 여자에 대해서는 통속 소설 속 인물과 다르다고 평가한다.
 - ⑤ (마) : 구보는 일상적인 행복과 거리를 두고 소설 창작에 몰두하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9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쉼표는 긴 문장을 끊어 의도적으로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 ② 쉼표는 궁금증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③ 어머니의 '머뭇거림'을 통해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 ④ 쉼표는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등장인물의 내면의식의 추이에 주목하게 한다.
 - ⑤ '대체, 그 애는, ~겐가'의 의문을 통해 '아들'의 외출, 산책 행위가 반복적임을 나타낸다.

93. ㉠ ~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몸을 오그리고
 - ② ㉡ : 역(驛)
 - ③ ㉢ : 물신주의(物神主義)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
 - ④ ㉣ : 방문하여 찾아봄.
 - ⑤ ㉤ :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94. (라)를 읽고, 서술 방법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1. (라)의 서술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를 밝혀 적고 그 방법의 효과를 서술할 것.
2.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고 있는 [A]에서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는 시작 지점들을 모두 찾아 각각의 첫 어절을 밝혀 적을 것(예시를 제외한 4개를 서술하되 4개를 초과한 경우 앞의 4개만 채점)
예) 다료에서, 물론
3.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매개물을 [B]에서 찾아 서술할 것.

1) [정답] ①

[해설]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
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말로 보아 구보의 태도가 여자에 대
한 확실한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②

[해설] [A]는 긴 문장으로 구보의 내면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만연
체의 서술은 화자의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효과
적이다.

3) [정답] ③

[해설] '그가 만일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
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랄지도 모른다.'를 통해 구보의 어머
니는 실제로 구보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구보의 머리 속에서 일
어나는 생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정답] ②

[해설] 만연체 문장은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 과정을 논리적인 조성
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5) [정답] ③

[해설] 윗글은 표면적으로는 서술자와 초점 주체(보는 자)가 분리되어 있
는 3인칭 시점이지만, 실제로는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시점을 선택한 소
설은 ③이다.

6) [정답] 의식의 흐름

[해설] 의식의 흐름 기법은 등장 인물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 방식으로,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흔들림을 잘 드러
나게 한다.

7) [정답] ②

[해설]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이야기 전개가 아니라, 구보의 내면 심리
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8) [정답] ④

[해설] 이 소설을 통해 당시 생활상을 일부 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화폐단위다.

9) [정답] ⑤

[해설] 차장에게 구보가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내릴 곳
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의식이 명확한 삶의 형태
를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10) [정답] ③

[해설] '백화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게 모종의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에서 독자는 젊은 내외를 통해 구보
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정답] ②

[해설] <보기>와 윗글의 서술 방식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이 기법은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더 잘 드러나게 한다.

12) (1)만연체, 심표의 빈번한 사용 (2)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흔들림을 잘 나타낸다. (3)만연체-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과정을 논리적 조성을 거치지 않고 드러낸다. 심표의 빈번한 사용-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장치다.

[해설] 이 소설에 사용된 문체적 특징은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흔들림을 잘 드러내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3) [정답] ②

[해설] 이 소설의 전개는 인물의 내면의식을 따라서 전개되며, 인물의 생각이 특별한 논리적 인과 관계 없이 흘러간다.

14) [정답] ⑤

[해설] 이 작품의 목적은 생활과 예술, 고독과 행복이라는 대립적 가치 사이에 긴 작가의 갈등과 고뇌를 그리는 것이다.

15) [정답] ②

[해설] 전차는 구보가 산책하는 수단이 되며, 근대 도시로서의 경성의 풍경을 잘 보여준다.

16) [정답]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해설] 처음에 구보는 그가 여자를 따라 내렸다는 사실을 여자가 알게 되면, 그를 천박하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잠시 후 여자를 따라 내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17) [정답] ⑤

[해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서술자와 초점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1인칭 시점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18) [정답] ②

[해설] 구보가 떠올리는 생각들은 필연성보다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 사실들은 선명한 인과적으로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19) [정답] 지식인들의 고독과 도시인의 쓸쓸한 내면 풍경을 잘 드러낸다.

[해설] 이 소설은 만연체 문장과 심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흔들림을 잘 드러나게 하고 있다.

20) [정답] ⑤

[해설] 문두를 끊어 소재목으로 삼는 기법은 참신한 방법이지만 뒤의 내용을 암시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21) [정답] ④

[해설] '충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전쟁의 비극을 더욱 심화시킨다.

22) [정답] (1) 인물 (㉞내면)에 초점을 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서술자와 인물간의 거리가 소멸되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가 나타난다. (2)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해설] (가)는 '구보는~'으로 서술하며 내면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이 직접 말하는 듯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를 보인다. (나)는 총살형을 당하는 외부적 사건보다 그런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내면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3) [정답] ④

[해설] 서술자의 관찰 내용과 심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되어 있고,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 과정을 논리적인 조성을 거치지 않고 만연체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고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장치로 심표를 자주 사용해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흔들림이 잘 드러난다.

24) [정답] ④

[해설] 구보는 책에서 읽은 연애 감정을 자신도 느껴보려고 일부러 책에 쓰여 있던 감정을 가져보려고 애썼는데, 이는 문학적 연애 감정에 탐닉했던 구보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25) [정답] ③

[해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서술자와 초점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를 소멸함으로써 1인칭 시점과 비슷한 효과를 주어, 서술자와 인물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준다.

26) [정답] ②

[해설] 1930년대 무기력한 문학인의 눈에 비친 일상사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을 의식의 흐름 기법, 몽타주와 오버랩 등 모더니즘 기법을 사용하여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27) [정답] ④

[해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서술자와 초점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를 소멸함으로써 1인칭 시점과 비슷한 효과를 주어, 서술자와 인물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준다.

28) [정답] ④

[해설] 구보는 교외에는 자연이 있고, 한적이 있으며, 고독조차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여 고독이 있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 것이다.

29) [정답] ②

[해설] 나. 여인의 성격은 잘 드러나지 않고 여인에 대한 구보의 내면의 식만이 서술되어 있다. 르. 구보와 여인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 또한 여자가 전차에서 내리면서 찾아볼 수 없다.

30) [정답] ②

[해설] 위 글은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31) [정답] ③

[해설]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는 말은 고독을 중요시 여긴 자신의 태도가 우선적일 수도 있다는 뜻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보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 목표가 '고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32) [정답] ④

[해설] 구보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이 나타나며, 심표를 통해 정돈되지 않은 구보의 사고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과성이 없는 내면 의식 중심의 서술이 나타난다.

33) [정답] ④

[해설] 자신이 고독한 상황에 대하여 합리화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34) [정답] (1) 목적지 없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2) 외로운 혼 (3) 구보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외로운 상태에서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설] 구보는 목적지가 없이 정처없이 떠돌며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35) [정답] ①, ②

[해설] 주인공이 공간을 이동하며 느끼는 내면 의식이 서술되고 있지만,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 나타나므로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배열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작가가 직접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보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36) [정답] ④

[해설] 만연체 문장으로 구보의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전개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아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37) [정답] ①, ⑤

[해설] ② 구보는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 내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③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지만, 구보 혼자 목적지가 없어 외로움과 애타픔을 느끼게 된다. ④ 자신이 고독을 사랑한다는 식의 합리화를 하는 모습에 대해 생각한다.

38) [정답] ③

[해설] <보기>의 '밥먹고살아요돈벌기위해일도하고'에서 세속적이고 평범한 일을 하는 시인 구보의 하루를 알 수 있다.

39) [정답] (1) 의식의 흐름 기법 (2) 구보의 배회과정을 의식의 흐름기법으로 서술하며 혼란을 겪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해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구보가 목적지 없이 배회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0) [정답] ⑤

[해설] 뒷글은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내면세계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야기의 인과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41) [정답] ③

[해설] 양복을 입은 사내가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가지며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42) [정답] ⑤

[해설] 황금광 시대에 대하여 구보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구보가 황금에 매력에 심취했다고 볼 수 없다.

43) [정답] ⑤

[해설] 윗글에는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생각나는 대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44) [정답] ⑤

[해설] 각 작품에서 시대상을 반영하는 표현들이 나타난다. '인지대, 광무소, 초등학교, 통금' 등이 그 예이다. '구보'와 '나'는 이러한 시대상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풀어내고 있다.

45) [정답] ③

[해설] 이 소설은 일반적인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인물 간의 갈등 구조 대신, 주인공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 시내를 배회하며 관찰한 모습과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소설로, 관찰한 인물들에 대해 구보는 냉소적, 비판적 시선을 지닌다.

46) [정답] ④

[해설] 이 소설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지적인 서술자는 작품 속의 구보만을 향하고 있고,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구보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 서술자는 구보의 내면 심리를 전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주로 구보의 시선이나 의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세태를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을 틀리다.

47) [정답] ③

[해설] 이 소설은 일반적인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인물 간의 갈등 구조 대신, 주인공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 시내를 배회하며 관찰한 모습과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소설로, 관찰한 인물들에 대해 구보는 냉소적, 비판적 시선을 지닌다.

48) [정답] ④

[해설] '황금광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에게 구보는 비판적,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목적의식 없는 자신보다 낫다는 자조적 태도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다.

49) [정답] ②

[해설] 이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소설은 일반적인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인물 간의 갈등 구조 대신, 주인공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 시내를 배회하며 관찰한 모습과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소설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50) [정답] ⑤

[해설] 쓸 데 없는 생각이라는 생각에 혼자 웃었을 뿐이다. 사나이에게 거리감을 두기 위해 경어를 사용하는 구보는 사나이를 부러워하거나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모멸감을 가지고 있다.

51) [정답] ④

[해설] 구보는 '그는 한 잔 십 전짜리~모른다, 참 구포 선생, ~구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 사나이와 최군을 속으로 비웃으며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52) [정답] ②

[해설] 이 소설은 구보의 공간 이동에 따른 여로형 구성 속에서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 몽타주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건들이 인과적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

53) [정답] ③

[해설] 노파와 시골 신사를 관찰하며 그들의 신상에 대한 다양한 장면을 상상하는 부분에서 몽타주 기법이, 논리적인 매개 없이 문득 발견한 신사 얼굴의 부증을 통해 다양한 병을 연상하는 부분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였다.

54) [정답] ③

[해설] 제시된 부분에서 노파, 시골 신사, 병자,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 양복 입은 사내, 두 명의 사내, 중학 동창을 만나고 있는 구보는 대상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와 물질 만능 주의가 팽배했던 세태가 드러난다.

55) [정답] ⑤

[해설] 이 소설에 나타난 당시는 '황금광 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구보는 이에 대해 비판적, 냉소적 태도를 보이지만 그래도 목적의식 없는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황금을 찾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인생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56) [정답] ②

[해설] ㉠은 '(무엇이 눈에)보이거나 들어오다'의 뜻으로, 이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②이다.

57) [정답] ⑤

[해설] ② 젊은 부부를 보는 구보는 역사의식 없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일상적 행복을 누리는 모습 때문에 부러워한다. ⑤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단한 삶을 표현한 것이다.

58) [정답] ③

[해설] ③ <보기>의 화자는 소년에게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 모습이 '크고 맑지만~젖고 있었다.'에 드러난다. 그러나 구보는 자신이 관찰하는 대상들에게 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④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도시 노동자로, 시골에서 온 낯선 소년이 곧 자신처럼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동일시한다. '노동자의 흥수'에서 '나의 비애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9) [정답] (1) '황금광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에게 구보는 비판적,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목적의식 없는 자신보다 낫다는 자조적 태도도 보인다. (2) 잦은 심표의 사용으로 서술에 속도감을 주고, 인물의 내면 의식을 표현한다.

[해설] 이 외에도 이 소설에는 인물의 내면 의식을 시간 순서와 논리성을 무시한 채 열거하는 기법인 의식의 흐름 기법, 한 시점 동안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 기술하는 몽타주 기법 등이 사용되었다.

60) [정답] ②

[해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서술자와 초점 주체(보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

어 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시점은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를 소멸하여 1인칭 시점 같이 서술자와 인물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61) [정답] ④

[해설] @은 구보의 결단성과 행동력이 없는 성격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자에게 반감을 나타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62) [정답] ①

[해설] <보기>에서 위 작품이 당시 생활상을 잘 나타낸 소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30년대 서울의 모습을 지적인 ①이 적절한 답이다.

63) [정답] ③

[해설] 재원은 반영론적 관점, 효섭은 표현론적 관점, 건항은 반영론적 관점, 정빈은 효용론적 관점으로 모두 외재적 관점이다. 건규는 작품의 내적 요소에만 집중하여 감상하는 절대론적 관점(내재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64)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졌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한 인물의 내면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논리적인 흐름 없이 인물의 의식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65) [정답] ⑤

[해설] @~@는 모두 자신이 예전에 선을 보았던 여자에 대한 지칭이며, @는 자신이 결혼하게 되더라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여자로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66) [정답] ⑤

[해설] 이 소설은 문장의 길이가 길다. 이러한 만연체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7) [정답] ②

[해설] 구보는 동대문행 전차를 탔으며, 이 전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간다. 그리고 훈련원을 지나 약초정을 지나가며 구보는 조선 은행 앞에서 내린다. 청량리행 전차를 탄 것은 '여자'이다.

68)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구보)의 시점에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구보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객관적 서술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69) [정답] ②

[해설] 구보는 여자를 썩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혹시라도 여자가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70) [정답] ②

[해설]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졌다. 따라서 등장 인물의 의식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며 이들 사건 사이에 인과성은 적은 편이다.

71) [정답] ④

[해설] 구보는 현재 전차를 탔지만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 ④ 역시 '차단-한 등불'을 바라보며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삼

72) [정답] 의식의 흐름 기법

[해설] 이 소설은 특정한 사건이 나타나기 보다는, 구보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씌어져 있다. 이를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한다.

73) [정답] ③

[해설] 의식의 흐름 기법은 등장 인물의 내면 의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쓰여지므로 사건간의 인과 관계가 적고 시간 순서도 섞여 있다.

74)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아이'는 벗의 누이의 아이이다. 그녀는 아이가 나이가 적어 다른 아이에게 딱지를 뺏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므로, 딱지를 뺏기는 아이로 봐야 한다.

75) [정답] ①

[해설] 구보는 누이를 짝사랑했으나 결혼 후 만난 그녀가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실망하고 행복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76) [정답] ④

[해설] <보기>에서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므로 구보에게도 앞으로 열심히 살라는 내용의 말을 해줄 수 있다.

77) [정답] 만연체에 심표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78) [정답] ③

79) [정답] ④

80) [정답] ④

81) [정답] ①

82) [정답] ③

83) [정답] ④

84) [정답] ①

85) [정답] ②

86) [정답] ⑤

87) [정답] ①

88)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 인과 관계가 없는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다. 또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구보라는 특정한 인물의 시선에서만 관찰한다.

89) [정답] ③

90) [정답] ⑤

[해설] 개찰구 앞의 두 사내가 금광 브로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의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옷차림을 봐서 그들은 무직자고 또 대부분의 무직자는 금광 브로커라는 확신 때문이다.

91) [정답] ④

92) [정답] ②

93) [정답] ⑤

94) [정답] (1)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연관성 없는 내면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었다. (2) 그들이, 구보가, 맞은편에, 좀, (3) 설령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응송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계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港口)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 식은 어쩔 수 없었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균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서,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 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며,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 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①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胃擴張)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澎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

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 들었다. 그러나 ②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개찰구 앞에

③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을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 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④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短杖)과 또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地圖代)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狝富)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 들조차 끼여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射倖心),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⑤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鑛務課)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내가 등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卑俗)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영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의 둘째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아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는 한번 흘끗 보기에,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 광으로 나서는 때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부중 : 몸이 붓는 증상 심장병이나 콩팥병 또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의 혈액 순환 장애로 생김

*전경부 : 목의 앞쪽 부분

*팽릉 : 크게 부어오름

*바세도씨병 : 바제도병 갑상선의 이상으로 갑상선이 붓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병

*쓰메에리 : 목에 둘러 바싹 여미는 깃이나 그런 옷을 가리킴

*광무소 : 광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대신 처리하는 사무소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당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치밀한 장면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③ 한 인물의 가치관이 변하는 과정을 내면 의식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의도적으로 빈번하게 심표를 사용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면서 사건 간의 인과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다음이 '구보'의 '대학 노트'라고 가정할 때, 그 속에 적힌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등 대합실 안>

○'노파': 그동안 힘든 일을 하며 살았는지, 지금은 감정까지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임. ①

○'중년의 시골 신사': 옆에 앉은 노파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볼 때 천박한 인물이라 판단됨... ②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 병자를 위해 자신이 떨어뜨린 복숭아를 그대로 놓아두는 마음 따뜻한 여인으로 생각됨... ③

<개찰구 앞>

○'두 명의 사내': 금광 브로커로 보임. 저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 답답함. ④

○'중학 시대의 열등생': 가식적이고 천한 사람도 돈만 있다면 연애를 할 수 있는 이 세태가 못마땅함...⑤

3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30년대, 우리나라 근대 지식인의 주된 관심은 근대 문명의 수용에 있었지만, 그들은 식민 치하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바로

당대 근대 지식인의 모습이 '구보'에 투영되어 있다. 소설가 '구보'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복을 찾아 근대 문명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이곳저곳을 산책한다. 그런데 그가 도시인들의 삶을 관찰하며 발견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① 구보가 찾고 있던 '한 개의 기쁨'이란 무기력에서 벗어난 약동하는 삶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거야.

② 구보는 전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지계꾼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생각에 고독을 느끼게 되었어.

③ 구보는 '경성역'을 바라보면서 활기찬 그곳에서 고독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④ 구보가 친밀감을 느껴야 한다고 여긴 '도회의 항구(港口)'는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공간일 거야.

⑤ 구보는 '삼등 대합실 군중'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보다 더 깊은 고독감에 빠지게 되었을 거야.

4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구보'의 '내적독백'이 직접 제시되어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나 의식을 보여 줌으로써 그가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① a, b ② a, e ③ a, b, c

④ a, c, d ⑤ b, d, e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마약 차에 오른 듯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게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즐(拙)하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암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怯)하여, 얼토당토않은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

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일 년 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 시의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 그는 결코 대답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결눈질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결눈질한 남자의 꼴을, 결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알은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체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그옥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자과 한 번 본 뒤로, 이래 일 년 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 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 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중략)

㉣ 어느 틈엔가, 구보는 조선은행 앞에까지 와 있었다.

이제 이대로, 이대로 집으로 돌아 갈 마음은 없었다. 그러면, 어디로—. 구보가 또다시 고독과 피로를 느꼈을 때, 약칠해 신으시죠 구두에. 구보는 혐오의 눈을 가져 그 사내를, 남의 구두만 항상 살피며, 그곳에 무엇이 든 결점을 [A] 잡아내고야 마는 그 사나이를 흘겨보고,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 일면식도 없는 나의 구두를 비평할 권리가 그에게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거리에서 그에게 온갖 종류의 불유쾌한 느낌을 주는, 온갖 종류의 사물을 저주하고 싶다, 생각하며, 그러나, 문득, 구보는 이러한 때, 이렇게 제 몸을 혼자 두어 두는 것에 위험을 느낀다. 누구든 좋았다. 벗과, 벗과 같이 있을 때, 구보는 얼마쯤 명랑할 수 있었다. 혹은 명랑을 가장할 수 있었다.

㉥ 마침내, 그는 한 벗을 생각해 내고, 길가 양복점으로 들어가 전화를 빌렸다. 다행하게도 벗은 아직 사(社)에 남아 있었다. ㉦ 바로 지금 나가려든 차야 하고, 그는 말했다.

㉧ 구보는 그에게 부디 다방으로 와 주기를 청하고, 그리고 잠깐 또 할 말을 생각하다가, 저편에서 전화를 끊어 버릴 것을 염려해 당황하게 덧붙여 말했다.

㉨ “꼭 줌, 곧 줌, 오—”

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지적 서술자가 주인공의 시선을 빌려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장소의 이동에 따라 관찰하고 떠올린 것들을 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주인공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배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심표를 자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며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빠른 장면의 전환을 통해 시대 현실에 대한 주인공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6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무능력한 아들이지만 어머니만은 자신을 옹호해 줄 것이라 믿는 것 같아.
- ② ㉡: 소심하고 소극적인 구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
- ③ ㉢: 여자를 만나고 온 이후로 계속 생각했으면서도 관심 없는 척하는 자신의 이중성에 대한 자책이겠지.
- ④ ㉣: 여자를 따라서 내리고 싶었으면서도 공리를 하느라 행동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 회가 느껴져.
- ⑤ ㉤: 친구를 통해서라도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보의 절박함이 느껴져.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어휘 풀이)

- (1) 오찬(午餐):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점심 식사.
- (2) 단장(短杖): 짧은 지팡이.

지문 연구

주제: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경성의 일상사
구성

* 발단: 구보의 어머니는 동경에서 공부하고 온 스물여섯 살 아들이 일자리가 없음을 이해하지 못함.

* 전개: 구보는 집을 나와 '서울 거리 → 전차 안 → 다방 → 경성역 대합실 → 다방 → 거리 → 술집'으로 거리를 배회하면서 현실에 대한 냉소와 함께 우울한 감정을 느낌.

* 결말: 종로 네거리에 선 구보는 이제 좋은 소설도 쓰고 어머니의 혼인 이야기도 물리치지 않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향함.

→ 여기에 실린 부분은 전개에 해당한다.

감상 포인트

- * 독특한 소설 기법에 유의하며 읽는다.
- *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자의 의식과 감정을 파악하며 읽는다.
- *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구보'의 고독한 모습이 상징하는 것에 주목하며 읽는다.

8. 다음은 '구보'의 공간 이동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화신 상회 → ㉡ 전차 안 → ㉢ 경성역

- ① ㉠에서 '구보'는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에서 고독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느끼는 구보의 혼란한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다.
- ③ ㉢에서 방향을 상실한 '구보'의 모습을 통해 당대 하층민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는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서, '구보'는 그곳에서 사람들 간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게 된다.
- ⑤ ㉢는 '구보'가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 곳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게 된다.

9. (보기)를 고려하여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태원의 호는 구보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박태원의 초기 소설은 문체, 기법, 주제 등에 있어서 모더니즘 소설의 여러 특징을 보인다. 작품의 이데올로기보다는 문장 그 자체의 예술성을 중시하고, 새로운 소설적 기법을 시도하는 한편, 인물의 내면 의식 묘사를 중시하는 등 강한 실험 정신을 보여 주고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있다. 박태원은 어떤 특정한 시기의 세태의 단면을 묘사하는 세태 소설을 주로 창작했는데, 이때 고현학(古賢學: 현대적 일상생활의 풍속을 면밀히 조사·탐구하는 행위)이라는 자신의 창작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이를 적용시킨 작품이 바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다.

① 인물 간의 갈등보다 '구보'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데 치중하였다.

② 구보가 겪은 단편적 사건들을 뚜렷한 인과적 연관성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

③ 경성역의 풍물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으므로 세태 소설적인 성격을 지닌다.

④ 주인공 이름을 '구보'로 설정하고, 주인공을 '소설가'라는 직업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아 자전적 성격의 소설이다.

⑤ '전차 안에서', '조그만'과 같이 첫 어절을 소재목으로 처리하거나 잦은 심표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소설적 기법을 시도했다.

10.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삼등 대합실에서 구보가 약동하는 무리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
- ② 힘든 도시 생활로 피곤함에 지친 노파를 구보가 업신여기는 장면
- ③ 분주하게 전차를 오르내리는 사람들 속에서 멍하게 구보가 서 있는 장면
- ④ 구보가 자신의 두 손에 놓인 단장과 공책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장면
- ⑤ 구보가 움직이는 전차에 황급히 뛰어오르고 마지막 남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장면

11. '구보'의 정서를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찾아 쓰고, '구보'가 그러한 정서를 느끼는 이유를 당대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 1 ① 2 ③ 3 ② 4 ② 5 ⑤ 6 ③ 7 ② 8. ② 9. ②
 10. ③ 11 고독, 구보는 1930년대 식민지 사회에서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고독을 느끼게 된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해제 이 작품은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주인공인 '구보'는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군상(群像)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근대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다. 구보는 이들을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구보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문학을 하는 당대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을 일상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이 작품은 기존의 소설에서 중시했던 플롯 중심의 서사 구조보다 회상이나 내면 의식의 추이에 대한 서술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경성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고독을 느낀 구보가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성역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고독에 서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는 부분이다.

주제 1930년대 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모습과 그의 의식

전체 줄거리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소일하는 작가인 구보는 정오에 집을 나와 광고, 종로를 걸으며 자신의 눈과 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불안해한다. 그리고 무작정 올라탄 전차 안에서 이전에 선을 본 여자를 발견하지만 일부러 모른 채하다, 그녀가 전차에서 내리자 모른 채한 것을 후회한다. 구보는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경성역 삼등 대합실로 가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냉정한 태도에 슬픔을 느낀다. 또 거기서 만난 중학 시절 열등생이 예쁜 여자와 동행한 것을 보고 물질에 약한 여자의 허영심에 대해 생각한다. 구보는 다방에서 만난 사회부 기자인 친구가 돈 때문에 기사를 써야 한다며 불평을 하자 그에게 연민을 느낀다. 또 구보는 그곳에서 즐겁게 차를 마시는 연인들을 바라보면서 질투와 고독을 동시에 느낀다. 다방을 나온 구보는 종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정신병자로 간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새벽 두 시의 종로 네거리에서 구보는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위해 혼인을 하고,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다짐한다.

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이 글은 구보의 눈에 비친 일제 강점기 경성의 여러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성역'에 있는 여러 군상들의 모습이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 또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인물 등 대부분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작가는 당대 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이 글은 구보의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구보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 있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③ 구보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지만, 구보의 가치관이 변하지는 않는다.

④ 이 글에는 심표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작품에 심표를 사용하면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그 부분에 멈추게 된다. 이처럼 심표는 독자의 읽기 속도를 지연시켜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지만, 사건과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학II (2) 문학과 삶 (다) 문학과 문화

① 문학과 예술, 인문, 사회, 문화, 매체의 관계를 이해한다.

2 내재적 접근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는 잘못하여 떨어뜨린 복숭아가 병자 쪽으로 굴러가자 잡기를 단념한다. 이는 복숭아를 병자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자의 좌석 옆이 비어 있음에도 앉으려 들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병자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이다. 구보는 그녀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몰인정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① 구보는 무표정한 '노파'를 보며 그녀가 지금껏 힘들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② 구보는 '노파'와 거리를 두려는 '신사'를 속물적이고 천박한 인물로 판단하여 업신여기고 있다.

④ 구보는 금광 브로커가 늘어나는 황금광 시대가 되었음을 깨닫고 무거운 한숨을 쉰다.

⑤ 구보는 가식적이고 천한 친구가 돈이 있다는 이유로 연애를 한다는 세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학II (2) 문학과 삶 (가) 문학과 자아

② 문학을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한다.

3 문학사적 지식의 적용 답 ②

'구보'는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대문' 밖으로 나가 보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지게꾼들'을 보며 고독감을 느낀다. 이는 '지게꾼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약동하지 않고 공상맞게 움츠리고 맥없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구보는 남대문 밖에서 만난 지게꾼을 보며 실망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보가 남대문 밖으로 나가 찾으려던 '한 개의 기쁨'이란 무기력에서 벗어난 약동하는 삶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③ 구보가 '경성역'으로 들어간 것은 활기찬 사람들 속에 있으면 현재 느끼고 있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④ 구보가 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회의 항구'는 근대 문명을 대표하는 '경성역'을 비유한 말이다.

⑤ 구보는 인간 본연의 온정이 사라지고, 이웃을 믿지 않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보며 대합실 밖에서보다 더욱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학II (2) 문학과 삶 (나) 문학과 공동체

① 문학을 통하여 사회, 민족, 역사, 자연 등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갖는다.

4 소설의 기법 이해 답 ②

㉞는 구보가 '중년 신사'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추측한 바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㉟도 구보가 '중학 시대의 열등생'에 대해 한 생각을 직접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㉞와 ㉟는 대상에 대한 '구보'의 생각과

의식이 겉으로 드러난 내적 독백'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㉞에 나오는 '구보'라는 말, ㉟에 나오는 '자기'라는 말, ㉠에 쓰인 과거형 종결 어미는 구보의 내적 독백이 아니라 구보의 행동과 심리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학Ⅱ (1) 문학의 위상 (나)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②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관련 양상을 이해한다.

해제 |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생활을 반영한 자전적 소설로, 1934년《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소설가인 주인공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인물 간의 갈등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대신,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의식의 흐름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소설가인 주인공은 현대의 풍속도를 관찰한다는 고현학적 태도로 1930년대 경성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그러나 주인공은 세속화된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한 채 고독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주인공의 의식 속에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뇌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 소설가 구보의 눈으로 바라본 1930년대 도시의 일상사와 지식인의 자의식

전체 줄거리 |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구보는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스물여섯 살의 소설가이다.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한 채 집을 나온 구보는 경성 시내를 배회하면서 거리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것들과 연결된 과거의 경험들을 회상한다. 다방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다 고독을 느끼며 벼를 찾아가기도 하고, 도시의 풍속도를 살피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기도 한다. 밤이 되자 벼와 함께 시름을 덜기 위해 술집으로 간다. 거기에서 구보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술집 여공과 유희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새벽 두 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벼와 헤어진다.

내용 구조도 |

지문 수록 부분

집 → 경성 거리 → **전차 안** → **다방** → 경성역 대합실 → 다방 → 경성 거리 → 술집 → 집

특별한 사건 없이 '구보'가 경성 시내를 배회하고 관찰하며 사색하는 단편적 사실과 파편적 단상을 인과성 없이 서술

5 서술상 특징 파악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생활을 반영한 자전적 소설로, 일반적인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인물 간의 갈등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대신, 주인공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 시내를 배회하며 관찰한 모습과 주인공의 사고의 과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장소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관찰이 드러나 있지만 '빠른 장면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으며,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지적 서술자가 서술하면서도 마치 일인칭 주인공의 서술처

럼, 구보의 시점에 동화되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전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과 조선은행 앞, 다방 등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관찰한 내면 심리가 주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주인공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며 주인공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배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떠오르는 대로 표현하고 있다.

④ '~하고 싶다, 생각하며, 그러나, 문득, 구보는' 등에서와 같이 심표를 자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며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6 구절의 의미 파악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 앞부분에서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일 년 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정의 모독'과 '일종의 죄악'이라고 느낀 것이다. 따라서 ③ '여자를 만나고 온 이후로 계속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차 안에서 만난 여성에 대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가정한 장면으로, 비록 소심하고 무능력한 아들이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주변머리 없다'고 질책한다면 '내 아들은 원래 얌전'하다며 변호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장면에서, 어머니만은 자신을 옹호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겉눈질하는 모습을 통해 '소심하고 소극적인' 구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야 비로소 뉘우치는 모습을 통해 '여자를 따라서 내리고 싶었으면서도 공리를 하느라 행동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를 느낄 수 있다.

⑤ '제 몸을 혼자 두어 두는 것에 위험을 느낀다.'를 통해 친구를 통해서라도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보의 절박함을 알 수 있다.

7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②

작품의 특징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구성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이 동시대 다른 작품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평가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구보는 조선은행 앞으로 공간을 이동한 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일반적인 서사물이라면 다음 행선지와 관련한 내용이 이어져야 할 대목에서, 그 순간 구보는 구두닦이의 말에 불쾌함을 느끼고 그에 대한 상념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 연상 구조가 이 소설의 서사적 특성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부분은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 표지에 해당한다.

③ 이 부분은 구보의 행동 묘사를 나타낸다. '한 벼를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는 자유 연상이나 상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뜻한다.

④ 이 부분은 구보의 친구가 말한 대목이므로 구보의 상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⑤ 이 부분에는 구보의 행동만 드러나 있지 자유 연상이나 상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해제: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선 중앙 일보”에 연재된 박태원의 중편 소설로서, 박태원의 생활을 반영한 자전적 작품이다. 박태원의 호와 필명은 ‘구보’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26세의 소설가인 ‘구보’는 예술가로서의 삶과 일상적 행복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도시를 배회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구보의 내면 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연관성 없는 구보의 내면 의식을 보여 주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다. 또한 이 소설에는 서울 거리의 풍물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어 세태 소설적인 성격도 띤다.

8.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 (답) ②

⑥에서 ‘구보’는 고독에 대해 ‘고독을 두려워한다.’ 또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또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라고 서술함으로써 고독에 대한 혼란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⑥에서 ‘구보’는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라는 부분을 통해 구보가 그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③ ⑥에서 방향을 상실한 ‘구보’의 모습은 당대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준다. ④ ㉠은 ‘구보’가 처음에 활기찬 곳이라고 느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구보’는 고독을 느낀다. ⑤ ‘구보’는 지루한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 ㉡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무관심과 개인주의를 느끼며, 그들에게 연민을 갖게 된다.

9.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구보가 겪은 단편적 사건들이 뚜렷한 인과적 연관성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고독한 ‘구보’의 내면 심리 상태를 부각하며, 등장인물 사이의 뚜렷한 갈등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단장과 공책을 들고 다니며 이야기거리를 찾는 구보의 행동은 고현학적인 방법으로 소설을 창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④ 주인공 이름을 ‘구보’로 설정하고, 주인공을 ‘소설가’라는 직업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아 ‘구보’는 작가 박태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기에 자전적 성격의 소설로 볼 수 있다. ⑤ ‘전차 안에서’, ‘조그만’과 같이 첫 어절을 소재목으로 처리하거나 잦은 심표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소설 기법이라 할 수 있다.

10.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삼등 대합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로 볼 때 대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② 구보는 노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노파를 업신여기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④ 자신의 손에 놓여진 단장과 공책을 바라보지만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⑤ 구보가 움직이는 전차에 황급히 뛰어오르지만, 남은 한 좌석은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정서의 파악

‘구보’는 ‘고독’을 느낀다. ‘구보’는 지루한 고독에서 벗어나 활력을 느끼고 싶어 경성역으로 가고, 그곳에서 인생을 느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오히려 경성역의 군중 속에서 ‘구보’는 더 큰 고독을 느끼게 된다. 경성역에 있는 군중들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 없었고, 누구도 먼저 옆의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것과 남을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다.